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제주형(올레) 생태문화로 조성방안

주관연구기관	(사)제주올레
연구책임자	김태일
발행년월	2010-11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관리기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NDSL URL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300030387
IP/ID	14.49.138.138
이용시간	2017/11/02 16:45:15

저작권 안내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iSTi
www.kisti.re.kr

제주형(올레)생태문화로 조성방안

김 태 일

2010. 11

환경부지정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주형(올레)생태문화로 조성방안

김 태 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 출 문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제주형(올레) 생태문화로 조성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 (사)제주올레

연구책임자 : 제주대학교 김태일 (인)

연 구 원 : 이석창 허남춘 송시태 라해문 양건 현군출

안은주 박선경 이수진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요 약 문

Ⅰ. 제목

제주형 (올레) 생태문화로 조성방안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주의 특이한 지형을 고려하여 건설된 「길」, 넓은 도로보다는 최소한의 통행을 전제로 한 「길」, 사람의 다리가 중심이 되는 「길」, 이동 중이라도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눈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담아가는 「길」, 그리고 제주 지역마다 색깔(특색)이 있는 「길」을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제주올레라고 할 수 있다. 제주올레는 2009년 10대 문화상품으로 선정되었고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문화를 인상깊게 남기는 장소로 거듭나게 되어 원래의 의미에서 확장돼 도보 여행길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자리잡았다.
제주의 바다와 오름, 돌담, 문화를 넉넉하게 품은 이 길은 제주의 속살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걷는 길이자, 평화와 치유의 길이다. 집 대문에서 마을길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어인 「올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2007년 9월 첫 번째 코스를 개장 이후 열광적인 인기를 얻으며 이제는 집에서 마을로, 개인에서 사회, 제주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8월 현재 제주올레는 총 21코스가 개설되어 있으나 올레 개척의 목적과 정신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생태적 개발에 의한 올레이다.

그러나 올레꾼들에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도보 여행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1) 제주지역에 맞는 제주형 생태문화로 조성을 통해 문화적 환경적 가치의 공유, 2) 이용상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 3) 과거 제주의 해안, 오름, 하천을 연결하는 생태로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조건에 대한 평가와 개발원칙, 주변 지역의 자원에 대한 평가와 활용수법의 체계화, 4) 마을 만들기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상기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 이미 개발되어 있는 올레 연구를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향 설정
(현황파악 및 과제 도출)

○ 주민 및 관광객에게 제주의 문화풍경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생태문화로 조성을 위한 코스 조성 방안(線的 개발)

○ 제주지역의 해안, 중산간, 내륙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생태로 조성 방안(面的 개발)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 장기적으로 이 요소들을 생태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안 마련(네트워크화)

본 연구의 구성 및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제2장에서는 총 21개 코스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징과 현황을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환경/물리적 요소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제4장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장에서는 국외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생태문화로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을 새롭게 정리하여 생태문화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생태문화로 조성을 위한 접근 원칙과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조성 수법을 코스유형별, 혹은 공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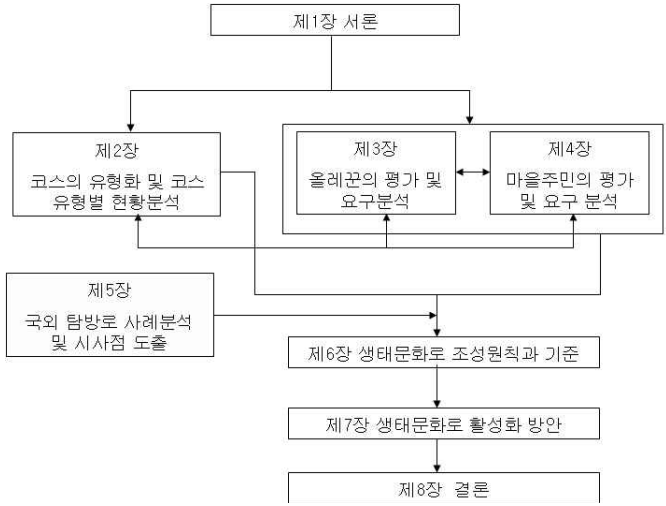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구성과 흐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연구의 추진단계는 다음과 같다. 즉 현황파악단계, 지역분석단계, 구상단계, 확정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황파악단계는 (사)제주올레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일부 DB화 되어 있음)를 재검토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내부 검토를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올레를 방문하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에 대한 요구와 문제 의식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태문화로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제주올레가 운영하고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하여 문제점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 보완하도록 한다.

지역분석 단계에서는 3개 분야 조사 분석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분야별 개별 연구와 전체 논의의 과정을 거쳐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인문사회분야 및 생태환경 분야에서의 조사가 중요하며 올레가 지나는 마을별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마을 만들기와 생태문화로 조성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현재 (사)제주올레에서 마을별 스토리텔링작업을 하였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 현실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구상단계는 그림 2와 같이 연구의 주제인 생태/문화에 대한 정의와 의미, 가치 등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에 부합되는 조성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아울러 현황 파악 단계에서 자문역을 하였던 제주올레 자문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얻도록 한다. 또한 마을별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 2가지를 추가하여 기존 DB를 보완하도록 한다.

확정단계에서는 제시의견을 종합화하고 구체화하는 단계로 매뉴얼화 작업을 검토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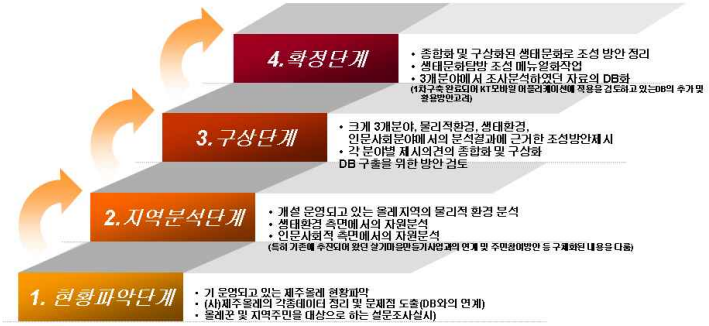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의 추진단계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분야(건축설계분야 중심), 인문사회분야, 생태환경분야, 3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각 분야별로 2명의 책임자급 연구원을 구성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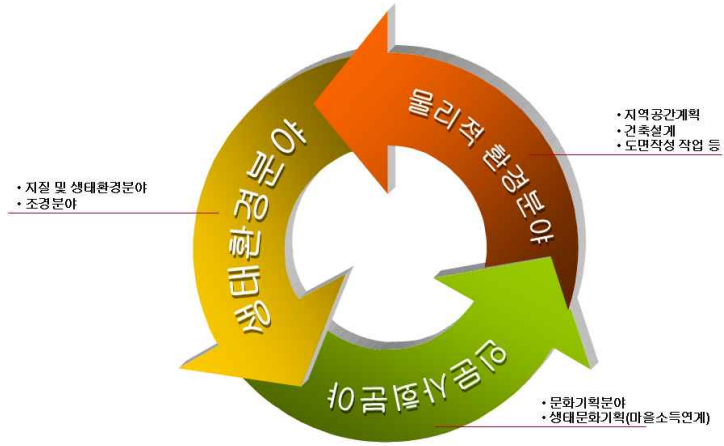


그림 3. 각 분야별 연구진행

Ⅳ. 연구 결과

제2장의 연구결과는 개설된 총 21개 코스를 유형화하여 전형적인 유형별 코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화에 대한 분류기준은 인문사회적 요소, 생태적 요소, 그리고 물리적 환경 요소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인문사회적 요소 항목의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총 5개 유형이 가능하였고, 바다코스: 7코스, 해안+오름 코스: 1코스, 중산간 코스: 13코스, 내륙코스: 14-1코스, 섬코스: 18-1(추자도 코스)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들 유형별 코스를 중심으로 현장답사를 통해 특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아울러 올레꾼 및 마을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생태로 개선 방향과 개선 수법을 모색하였다.

한편 올레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올레 방문자의 특징으로 올레꾼 10명 중 6명(63.3%)은 제주올레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지만, 10명 중 4명 가량은 제주올레를 두 번 이상 방문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주올레가 한 번 오고 말 여행지가 아니라 자꾸 오고 싶은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고, 코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코스를 돌아보고자 하는 이가 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올레를 통한 문화적 교류에 대해서는 올레꾼 10명 중 9명(88.6%)은 제주올레가 문화교류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올레꾼들이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대중교통과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지역민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과 올레꾼, 올레꾼 끼리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지역 문화 및 여행 문화들이 교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의 속살을 보는 여행'이라는 제주올레의 슬로건과도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맞닿는 결과이다.

특히 올레 개설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올레꾼 2명 중 한 명(52.6%)은 제주올레 길 개발이 제주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제주올레 길 개발이 자연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레꾼 10명 중 2명 가량(24.9%)은 길 개발이 제주 자연 보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제주올레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일부 오름이나 흙길이 손상되거나 쓰레기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물리적 환경 부분에서는 올레꾼들은 (사)제주올레가 설치한 인공 시설물 중 디자인 작업이 필요한 항목으로 화살표와 화장실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화살표의 양식이 통일되지 않았고, 화장실의 경우 제주올레 화장실과 마을 간이 화장실이 혼재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올레 화장실의 경우 디자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기존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것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디자인 필요성을 느낀 것이 20~30% 수준이어서 꼭 개선이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부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올레꾼들은 편의시설, 휴식시설, 식당 등의 인프라에 비교적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올레가 길을 내면서 편의시설이나 인프라 추가 설치에 대해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이기도 하다. 10명 중 3명꼴로 불만족을 표시한 사람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올레꾼들은 대체로 코스 교통편이나 길의 길이, 길의 폭, 안전성 등에서 불만족을 표시한 이는 20% 미만으로 제주올레 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제주올레 길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으나 주변 인프라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이도 있는 것으로 설문 결과 드러난 셈이다.

Ⅴ.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된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 생태문화로 조성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에 적용하고 활용한다.

○ 지역단위 혹은 마을 단위에 있어서 길을 조성할 때 작성된 매뉴얼을 통해 지역 고유의 길을 친환경적이고 개성 있는 길로 조성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자료로 활용한다.

○ (사)제주올레가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DB에 추가적으로 DB데이터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3 연구진 구성 및 연구 내용 …… 4
4 인문사회적 환경/생태 환경/물리적 환경의 요소 정리 …… 6

제2장 코스의 유형화 및 코스 유형별 현황 분석

1 코스 개설 현황 및 유형화 …… 11
2 코스 유형별 인문사회적 특징 …… 31
3 코스 유형별 생태적 특징 …… 36
4 코스 유형별 물리적 특징 …… 45
5 종합평가 및 시사점 …… 51

제3장 올레꾼의 평가 및 요구 분석

1 설문조사방법 및 내용 …… 56
2 조사자 속성 및 여행 행태 특징 …… 56
3 인문사회 측면에서의 평가 …… 65
4 물리적 측면에서의 평가 …… 71
5 종합평가 및 시사점 …… 74

제4장 마을 주민의 평가 및 요구 분석

1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 76
2 올레 개설에 대한 마을 주민 평가 …… 77
3 마을 활성화를 위한 요구 조건 …… 82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 85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5장 국외 탐방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캐나다 사례 …… 87
2 영국 사례 …… 95
3 국외 사례의 시사점 …… 103

제6장 생태문화로 조성 원칙과 수법
1 조성 원칙 …… 107
2 조성 기준(가이드 라인) …… 108
3 조성 수법과 실제 …… 110

제7장 생태문화로 활성화방안
1 자원정보 제공 방안 …… 126
2 생태문화로 활성화 방안 …… 126
3 지역 활성화 방안 …… 127

제8장 결론
1 분석 결과 종합 …… 134
2 생태문화로 조성을 위한 제언 …… 135

부록: 제주올레 길 지역 주민 설문 …… 138
참고문헌 …… 142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표 목 차

표 1-1 ····· 5
표 2-1 ····· 11
표 2-2 ····· 24
표 2-3 ····· 25
표 2-4 ····· 25
표 2-5 ····· 26
표 2-6 ····· 27
표 2-7 ····· 29
표 2-8 ····· 30
표 2-9 ····· 37
표 2-10 ····· 43
표 2-11 ····· 43
표 2-12 ····· 43
표 2-13 ····· 44
표 2-14 ····· 44
표 3-1 ····· 57
표 3-2 ····· 65
표 4-1 ····· 77
표 6-1 ····· 109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 림 목 차

그림 1-1 ····· 3
그림 1-2 ····· 4
그림 1-3 ····· 5
그림 1-4 ····· 6
그림 2-1 ····· 30
그림 2-2 ····· 31
그림 2-3 ····· 32
그림 2-4 ····· 32
그림 2-5 ····· 33
그림 2-6 ····· 33
그림 2-7 ····· 34
그림 2-8 ····· 38
그림 2-9 ····· 38
그림 2-10 ····· 39
그림 2-11 ····· 39
그림 2-12 ····· 40
그림 2-13 ····· 40
그림 2-14 ····· 41
그림 2-15 ····· 41
그림 2-16 ····· 42
그림 2-17 ····· 45
그림 2-18 ····· 45
그림 2-19 ····· 46
그림 2-20 ····· 46
그림 2-21 ····· 47
그림 2-22 ····· 47
그림 2-23 ····· 47
그림 2-24 ····· 48
그림 2-25 ····· 48
그림 2-26 ····· 49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림 2-27 ····· 49
그림 2-28 ····· 49
그림 2-29 ····· 50
그림 2-30 ····· 50
그림 2-31 ····· 50
그림 2-32 ····· 51
그림 2-33 ····· 51
그림 2-34 ····· 51
그림 2-35 ····· 51
그림 2-36 ····· 52
그림 2-37 ····· 53
그림 2-38 ····· 54
그림 2-39 ····· 54
그림 3-1 ····· 58
그림 3-2 ····· 58
그림 3-3 ····· 59
그림 3-4 ····· 59
그림 3-5 ····· 60
그림 3-6 ····· 60
그림 3-7 ····· 61
그림 3-8 ····· 62
그림 3-9 ····· 62
그림 3-10 ····· 63
그림 3-11 ····· 63
그림 3-12 ····· 63
그림 3-13 ····· 64
그림 3-14 ····· 64
그림 3-15 ····· 65
그림 3-16 ····· 66
그림 3-17 ····· 67
그림 3-18 ····· 68
그림 3-19 ····· 69
그림 3-20 ····· 69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림 3-21 ····· 70
그림 3-22 ····· 70
그림 3-23 ····· 70
그림 3-24 ····· 71
그림 3-25 ····· 73
그림 3-26 ····· 73
그림 3-27 ····· 73
그림 4-1 ····· 77
그림 4-2 ····· 78
그림 4-3 ····· 78
그림 4-4 ····· 79
그림 4-5 ····· 79
그림 4-6 ····· 80
그림 4-7 ····· 81
그림 4-8 ····· 82
그림 4-9 ····· 83
그림 4-10 ····· 83
그림 4-11 ····· 84
그림 4-12 ····· 84
그림 5-1 ····· 87
그림 5-2 ····· 90
그림 5-3 ····· 92
그림 5-4 ····· 92
그림 5-5 ····· 93
그림 5-6 ····· 95
그림 5-7 ····· 95
그림 5-8 ····· 97
그림 5-9 ····· 98
그림 5-10 ····· 100
그림 5-11 ····· 101
그림 5-12 ····· 102
그림 5-13 ····· 103
그림 5-14 ····· 104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림 6-1 ····· 111
그림 6-2 ····· 112
그림 6-3 ····· 112
그림 6-4 ····· 113
그림 6-5 ····· 114
그림 6-6 ····· 115
그림 6-7 ····· 116
그림 6-8 ····· 117
그림 6-9 ····· 117
그림 6-10 ····· 118
그림 6-11 ····· 118
그림 6-12 ····· 119
그림 6-13 ····· 119
그림 6-14 ····· 120
그림 6-15 ····· 120
그림 7-1 ····· 126
그림 7-2 ····· 127
그림 7-3 ····· 128
그림 7-4 ····· 128
그림 7-5 ····· 128
그림 7-6 ····· 129
그림 7-7 ····· 129
그림 7-8 ····· 129
그림 7-9 ····· 130
그림 7-10 ····· 130
그림 7-11 ····· 131
그림 7-12 ····· 131
그림 7-13 ····· 131
그림 7-14 ····· 132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연구진 구성 및 내용 ·····
4 인문사회 환경/생태 환경/물리 환경의 요소 ·····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 지역 곳곳에 상당한 도로망이 구축되었고, 또 앞으로 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 개설은 도로가 지나는 지역의 자원을 극대화하거나 활성화하는 기능보다는 단순히 지나쳐 버리는 도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로 건설 방식에 있어서도 지극히 토목적인 형태의 개발이어서 환경훼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로에는 자동차만 존재할 뿐 안전하게 걷는 사람이 없거니와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지역 사람들의 인심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 이제 도로는 사람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기이다. 명칭 역시「도로」라고 하기 보다는「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다정하고 맛깔스러운 것 같다. 사전적 의미로서 길은 이동수단이 통행하는 곳, 그리고 도로 역시 통행하는 길의 의미이기는 하지만, 길이 갖는 의미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행의 의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와 같은 도로건설방식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사실이다. 자동차 중심의 직선화된 도로, 절토, 성토에 의한 지형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가능성 증가,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부족,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정서를 고려한 도로계획의 미비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제주도의 추진정책과 실천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일도 적지 않다. 제주도정 도시계획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생태도시, 안전도시이다. 최근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저탄소운동과 연계하여 녹색산업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 도로보다는 자전거 길, 걷는 길을 정비하려는 정책, 고효율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정책 등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물이 도민들의 생활공간에 깊숙이 자리잡도록 세심한 도시계획과 도로계획 검토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 도로를 확충하기 바쁘고 게다가 기존 도로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롭게 도로를 건설하는 등 상식 밖의 도로 사업을 제주지역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화로의 경우도 그러하거니와 도시 공간 내 도로 역시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그리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없는 도로이다. 이왕 막대한 비용으로 도로를 만든다면 제주의 풍경이 가득히 담긴 길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제주의 특이한 지형을 고려하여 건설된 「길」, 넓은 도로보다는 최소한의 통행을 전제로 한 「길」, 사람과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길」, 이동 중이라도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눈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담아가는 「길」, 그리고 제주 지역마다 색깔(특색)이 있는 「길」을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제주올레라고 할 수 있다. 제주올레는 2009년 10대 문화상품으로 선정되었고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문화를 인상 깊게 남기는 장소로 거듭나게 되어 원래의 의미에서 확장돼 도보 여행길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자리 잡았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주의 바다와 오름, 돌담, 문화를 넉넉하게 품은 이 길은 제주의 속살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걷는 길이자, 평화와 치유의 길이다. 집 대문에서 마을길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어인 「올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2007년 9월 첫 번째 코스를 개장 이후 열광적인 인기를 얻으며 이제는 집에서 마을로, 개인에서 사회로, 제주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길이다. 현재 제주올레는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생태적 개발에 의한 올레이다. 제주올레의 개설 현황은 그림 1-1과 같다.

그러나 올레꾼들에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도보 여행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1) 제주지역에 맞는 제주형 생태문화로 조성을 통한 삶의 쾌적함과 관광발전에 기여하고, 2) 과거 제주의 해안, 오름, 하천을 연결하는 생태로 및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조건에 대한 평가와 개발원칙, 주변지역의 자원에 대한 평가와 활용수법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마을 만들기와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주올레 현황 파악 및 관계자(이용자와 마을 주민)의 인식조사, 그리고 국외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태문화로의 조성 원칙과 기준(가이드 라인)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주형 생태문화로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다.



그림 1-1. 제주올레 개설현황 (2010년 6월 현재)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성 및 흐름은 그림 1-2와 같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제2장에서는 총 21개 코스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징과 현황을 정리하여 제3장 및 제4장에서의 설문조사 분석과 연계하여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특히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환경/물리적 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제4장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장에서는 국외의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해 생태문화로의 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을 새롭게 정리하여 생태문화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생태문화로 조성을 위한 조성원칙과 기준, 그리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각 부분별 구체적인 조성 실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7장에서는 마을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제8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생태문화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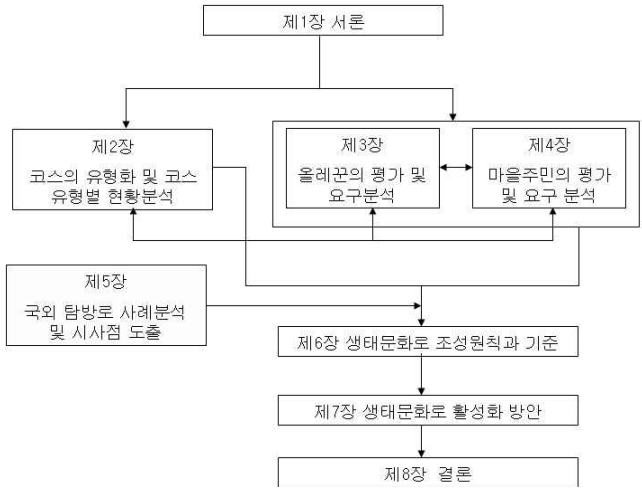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의 구성과 흐름

3. 연구진 구성 및 연구 내용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림 1-3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분야(건축설계분야 중심), 인문사회분야, 생태환경분야, 3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각 분야별로 2명의 책임자급 연구원을 구성하여 조사 분석하도록 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림 1-3. 각 분야별 연구진행

분야별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내용은 표 1-1과 같다.

단계	연구내용	연구담당	추진일정(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현황파악단계	기 운영되고 있는 제주올레에 대한 현황파악(설문조사 포함)	안은주 박선경 김태일													
2.지역분석단계	외국의 유사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김태일 안은주													
	대상지역의 물리적 환경 파악	현군출 양건													
	인문사회 및 생태적 자원파악	박선경 이수진 라혜문 송시태 이석창 허남춘													
3.구상단계	물리적환경, 생태환경, 인문사회분야에서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조성방안 제시(제시의견의 종합화 및 구상화)	안은주 김태일 라혜문 송시태 이석창 허남춘 현군출 양건													
4.확정단계	생태문화 탐방로조성 기법 매뉴얼작성	안은주 김태일 라혜문 송시태 이석창 허남춘 현군출 양건													
중간보고서		안은주 김태일													
최종보고서		안은주 김태일 박선경 이수진													

표 1-1. 일정별 작업내용 및 역할분담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연구의 추진단계는 그림 1-4와 같다. 즉 현황파악 단계, 지역분석 단계, 구상단계, 확정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황파악 단계는 (사)제주올레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1]를 재검토하여 문제점 정리를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올레를 방문하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요구와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생태문화탐방로의 조성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제주올레가 운영하고 있

1) 일부자료들은 DB화 되어 활용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점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 보완하도록 한다.

지역분석 단계에서는 3개 분야가 동시에 조사 분석 작업이 진행되며 분야별 개별연구와 전체 논의의 과정을 거쳐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및 생태환경 분야에서의 조사가 중요하며 올레가 지나는 마을별의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마을 만들기와 생태문화로 조성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구상단계는 연구의 주제인 생태/문화에 대한 정의와 의미, 가치 등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에 부합되는 조성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확정단계에서는 제시의견을 종합화하고 구체화하는 단계로 생태문화로 조성원칙과 기준(가이드라인), 그리고 조성실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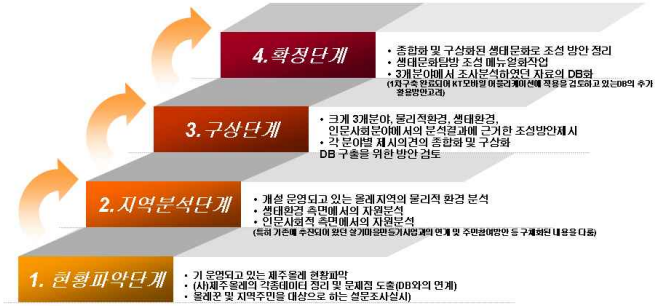


그림 1-4. 본 연구의 추진단계

4 인문사회 환경/생태 환경/물리적 환경의 요소

4.1 역사문화적 요소

한 지역 혹은 마을이 지닌 의식주의 기본 문화요소를 비롯한, 정신적·언어적·물질적 문화요소와 선사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적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등을 아울러 인문적 요소라고 하겠고, 이를 확장하면 인문사회적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민속문화를 유형문화·언어·예술·심의현상 등으로 분류하거나 주기전승·계급전승·조형전승·행동전승·언어전승 등으로 나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일반적으로 연구의 범위가 초기에는 무지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오락적 교양에 불과한 옛 이야기·속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담·수수께끼 등 구전문예와 신앙·관습 등을 연구하는 좁은 뜻의 민속학이었다. 미국의 경우 알란 던데스(Alan Dundes)는 민속 문화를 크게 4분한다(『Folklore and folklife』)

구비전승(Oral traditions)
사회민속(Social folk customs)
민속예능(Perfoming folk arts)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여기서는 구비전승을 문화의 하위 영역으로 끌어들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언어문화'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민속은 인간의 일상과 의례를 지칭하는 것인데 주로 정신적 현상과 관련을 지어 '정신문화'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민속예능은 민속춤과 놀이, 음악과 미술 등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이미 우리의 근대적 삶에서 사라지고 오로지 무대 위에서만 공연되거나, 아주 일정한 시기 일반 대중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레길에서의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물질문화는 민간에서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기 위해 물질을 바탕으로 이루어 놓은 문화로서 의식주, 생업, 일상의례에 의해 만들어진 부산물 등을 포함시킨다. 이것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언제나 어느 마을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의식주 문화를 한 부류로 삼는다.

물질문화 중 의식주를 제외한 것은 어느 곳에서는 보일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문화 요소다. 그래서 의식주를 제외한 기타 생업과 일상의례와 관련된 것을 둘째 부류로 삼는다. 돌하르방과 동자석은 물질문화이면서 그 신앙적 측면에서는 정신문화이기도 하다. 당은 물질문화이지만 당굿은 정신문화다.

언어문화는 일상의 언어생활을 비롯해 문학적 언어를 아우르는 문화로 정의한다.

정신문화는 민간의 사고와 신앙과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 이룬 문화로 정의한다.

전통적인 역사 유적과 근대적인 역사유적으로 분류한다.

이런 표본적 요소를 토대로 하여 6개 영역에 속하는 문화역사적 환경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질문화 1: 초가집, 올레, 돌담, 갈옷, 용천수, 전통음식(물회, 자연산 회, 전복, 귤, 흑돼지, 몸국, 말고기 등)
물질문화 2: 해녀, 소금밭, 돌하르방, 방사탑, 동자석, 원담
언어문화: 제주어(방언), 신화 본풀이, 전설, 민요
정신문화: 당, 굿, 심방(무당), 포제, 본풀이
역사유적: 고인돌, 선사유적, 몽고군 유적, 읍성, 환해장성, 봉수와 연대, 잣성(마목장)
근대유적: 4·3 유적, 일본군 진지동굴, 해군기지와 같은 근대역사유적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4.2 생태 환경적 요소

생태란 유기체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말하며, 환경은 생물 혹은 인간을 둘러싸는 외계(外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것과 사회 문화적 것을 포괄한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생태 환경적 요소란 생물과 그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환경인 습지, 초지대, 해안식물대, 상록활엽수림대, 낙엽활엽수림대, 침엽수림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 습지(濕地): 습지는 물에 따라 동식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이 결정되는 곳이며, 일 년의 일정 기간 이상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지역으로,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다.
- 초지대(草地帶): 여름에 비가 적은 온대 지방에서, 키 작은 풀이 무성한 지대이다.
- 해안식물대(海岸植物帶): 식물의 수직 분포의 하나로서, 대개 바닷바람이나 바닷물에 강한 식물이 자라는데, 갯완두나 갯메꽃 따위의 해안 식물이 자란다.
- 상록활엽수림대(常綠闊葉樹林帶): 상록활엽수가 주로 자라는 식물 지대이다.
- 낙엽활엽수림대(落葉闊葉樹林帶): 낙엽활엽수가 주로 자라는 식물 지대이다.
- 침엽수림대(針葉樹林帶): 침엽수가 주로 자라는 식물 지대이다.

4.3 물리적 환경적 요소

도시건축분야에서 자주 듣거나 사용되는 단어중의 하나가 '제주다운'이라는 표현이다.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는 지금 현재의 제주에는 오래전 볼 수 있었던 한라산을 배경으로 하는 제주 초가의 여유로운 삶의 풍경, 그리고 초가의 돌담 뒤편에 핀 동백꽃, 밭을 따라 피어난 유채꽃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함께 어우러진 제주만의 생활문화 풍경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경관 형성은 제주가 가진 독특한 제주의 땅에 대한 이해와 제주사람들의 오랜 시간을 통해 습득하였던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주적인 스케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즉 「땅」「공간」「스케일」에 있는 것이다.

- 땅(Land)

  화산섬이라는 제주 특유의 지질학적 특성과 제주의 땅이 가진 지형과 지세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1700년대에 제작된 濟州三縣圖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을 보면, 관아명과 지명, 城・봉수・연대 등의 방어시설뿐만 아니라, 한라산과 각종 오름, 목장, 포구, 하천 등이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주의 주요 경관 요소가 바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각종 오름, 목장, 포구, 하천임을 알 수 있다

- 공간(Space)

  제주 사람들의 오랜 경험과 철학적 사상이 녹아 스며들어 형성된 제주전통초가에 대한 이해, 즉 형태적 미학뿐만 아니라 공간적 미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 스케일(Scale)

기본적으로 제주의 건축물은 육지의 그것에 비해 크지 않다. 이것은 바람과의 대응에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원풍경이 되는 한라산과 오름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경관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관계이다. 제주답다는 것은 제주 고유의 경관과 관련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며 그럴수록 도시건축 영역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제주인들은 이러한 자연(물리적)환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삶의 문화와 고유 풍경을 형성하여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제주를 연상시키는 고유의 언어이며, 인위적인 개발과 조화되게 제주다움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資源)이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 2 장 코스의 유형화 및 코스 유형별 현황 분석

1 코스 개설 현황 및 유형화 ·····
2 코스 유형별 인문사회적 특징 ·····
3 코스 유형별 생태적 특징 ·····
4 코스 유형별 물리적 특징 ·····
5 종합평가 및 시사점 ·····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2장 코스의 유형화 및 코스 유형별 현황 분석

1 코스 개설 현황 및 유형화

1.1 제주올레 코스 개설 현황

1.1.1 제주올레 코스별 개요

제주올레 길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 1코스가 시작되어 총 21개 코스[2] 총연장 347km 구간이 개설되어 있다.

총 21개 코스(제주도 둘레를 잇는 정규 코스 16개와 섬 및 중산간[3] 비정규 코스 5개)를 5개의 유형, 즉 바다코스, 해안+오름코스, 중산간코스, 내륙코스, 섬코스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각 코스의 경로, 총연장, 코스의 특징을 구분한다.

분류	코스	비고
바다코스	5, 6, 7, 8, 10	
해안+오름코스	1, 2, 3, 4, 12, 14	
중산간코스	7-1, 9 ,11, 13, 15	
내륙코스	16, 14-1	
섬코스	10-1, 18-1, 1-1	

표 2-1. 지형적 특성에 따른 개설 올레의 분류

(1) 바다코스

1) 7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3.8km (4~5시간) 2007년 12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외돌개~월평

외돌개 → 선녀탕(황우지해안)(0.3km) → 폭풍의 언덕(0.5km) → 돔배낭길(1.6km) → 속골(3.4km) → 수봉로(3.9km) → 법환포구 (4.8km) → 일강정 바당올레(6.2km) → 악근천다리(8.0km) → 강정천(8.6km) → 강정쉼터 (8.8km) → 강정포구(10.3km) → 월평포구(11.9km) → 굿당산책로 13.1km → 월평 아왜낭목(13.8km)

③특징: 외돌개를 출발하여 법환포구를 경유해 월평마을까지 이어진 해안올레로 올레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연생태길인 '수봉로'를 만날 수 있다. 수봉로는 염소가 다니던 길에 직접 삽과 곡괭이만으로 계단과 길을 만들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 길이다. 2010년 8월 코스의 경로가 다시 한번 수정, 완성되었다. 그동안 돔배낭골

2) 2010년 9월 17코스가 개장되어 총 22코스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010년 4월 기준으로 개설된 올레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3) 표고 200m~600m사이의 지역을 의미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이 끝나는 지점에서 펜션단지 길이 막히면서 서귀포여고 쪽으로 길을 우회했으나 제주올레 탐사국은 팬션단지 주차장에서 바다쪽 길을 새로 개척하여 속골로 이어지는 자연의 길을 완성했다. 2009년 2월에는 그동안 너무 험해 갈 수 없었던 '두머니물~서건도' 해안 구간을 제주올레에서 일일이 손으로 돌을 고르는 작업 끝에 새로운 바닷길로 만들어 이어, '일강정 바당올레'로 명명했다. 2009년 3월에는 각종 자연현상에 유실되었던 수봉교 자리에 '풍림올레교'가 세워졌다.

④코스 난이도: 상

수봉로는 언덕 길이고, 새로 만든 펜션단지 아래 해안길과 일강정 바당올레에서 서건도 사이 바윗길이 험한 편이다.

2) 5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4.7km(4~5시간) 2008년 8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남원~쇠소깍

남원포구 → 큰엉 입구 (1.2km) → 제주올레 안내소 (.8km) → 신성동(2.7km) → 신그물(3.5km) → 수산물연구센터(4.6km) → 동백나무 군락지(5.2km) → 곤내골 올레쉼방(5.5km) → 세천포구(5.8km) → 조배머들코지(7.1km) → 넙빌레(10km) → 공천포 쉼터(10.9km) 배고픈 다리(우회 분기점)(11.6km) → 망장포(12.km) → 예촌망(12.8km) → 쇠소깍(14.7km)

③특징: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꼽히는 큰엉 경승지 산책길을 지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쇠소깍까지 이어지는 바당올레와 마을올레다. 키가 훌쩍 큰 동백나무로 울타리를 두른 마을 풍경이 멋스럽다. 남원읍과 해병대 93대대의 도움을 받아 사라지고 묻히고 끊어진 바당올레길 세 곳을 복원했다. 덕분에 난대 식물이 울창한 숲을 지나서 바다로 나가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④코스 난이도: 중

전체적으로는 평탄한 길이지만, 험한 바윗길 구간도 지난다.

⑤볼거리: 신그물, 태웃개, 동백나무 군락지, 넙빌레, 망장포구, 조배머들코지, 쇠소깍

3)6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4.4km(4~5시간) 2007년 10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쇠소깍~외돌개

쇠소깍 → 소금막(0.4km) → 제지기오름 정상(2.6km) → 보목포구(3.2km) → 문필봉 입구(3.7km) → 구두미포구(4.4km) → 서귀포 보목하수처리장(5.4km) → 검은여(6.5km) 제주올레 사무실(7.9km) → 정방폭포(8.3km) → 서귀포초등학교(9.1km) → 이중섭 화백 거주지(9.5km) → 서귀포항 (10.1km) → 천지연 기정길(10.5km) → 시공원 입구(11.7km) → 삼매봉 입구(13.1km) → 외돌개(14.4km)

③특징: 쇠소깍을 출발하여 서귀포 시내를 통과, 이중섭거리와 천지연폭포 위 산책로를 거쳐 외돌개까지 이어지는 해안·도심 올레다. 해안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금막과 삶과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문화가 숨쉬는 서귀포 시내, 난대림과 천연기념물 5종이 서식하는 천지연폭포 위 산책로를 걸으며 서귀포의 문화와 생태를 접할 수 있다. 누구나 힘 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이다.

④코스 난이도: 하

서귀포 시내를 지나는 비교적 평탄한 코스다. 초반에 오름이 하나 있고, 무성한 숲길도 지나지만 길이 험하지는 않다.

⑤볼거리: 쇠소깍, 소금막, 제지기오름, 구두미, 소정방 폭포, 이중섭 미술관, 천지연 기정길, 외돌개

4)8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5.2km(4~5시간) 2008년 3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월평~대평

월평마을 아왜낭목 → 선귓네 입구(1.1km) → 선귓네 끝(2.1km) 대포해녀탈의장(2.5km) → 대포포구(2.9km) → 축구장(3.7km) 주상절리 안내소(4.7km) → 시에스호텔 (5.5km) → 베릿내오름 전망대(6.3km) → 중문색달해변(8.8km) → 하얏트 산책로(9.5km) → 해병대길(10km) → 들렁궤(10.3km) → 색달하수처리장(10.6km) → 열리 해안산책로 → 논짓물 (11.4km) → 하예포구(12.9km) → 대평 해녀 탈의장(14.3km) → 대평포구(15.2km)

④특징: 바당올레 코스. 용암이 굳으면서 온도차에 의해 육각 등의 결정을 만들어 절경을 빚은 주상절리와 흐드러진 억새가 일품인 열리 해안길을 지난다. 해녀들만 다니던 거친 바윗길을 해병대의 도움을 받아 평평하게 고른 '해병대길'을 지나는 맛도 그만이다. 종점인 대평리는 자연과 어우러진 여유로움이 가득한 작은 마을. 안덕계곡 끝자락에 바다가 멀리 뻗어나간 넓은 들(드르)이라 하여 '난드르'라고 불리는 마을이다. 마을을 품고 있는 군산의 풍경 또한 아름답다.

⑤코스 난이도: 상

큰 돌들로 이루어진 해병대길 구간이 있다. 해수욕장의 모래사장도 걷기에 편하지 않다. 색달하수종말처리장부터 대평포구까지는 유모차도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이다.

2010년 8월 현재 해병대길 구간은 낙석으로 인해 잠정 폐쇄상태이다.

⑥볼거리: 선귓네, 주상절리, 베릿내오름, 들렁궤, 논짓물, 하예등대, 박수기정, 군산

5)10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연도: 총 14.8km (4~5시간) 2008년 5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화순~모슬포

화순금모래해변 → 퇴적암 지대(0.5km) → 소금막(1km) → 항만대(2km) → 산방연대(2.4km) → 설큼바당(2.9km) → 사계포구(3.6km) → 사계바당(4.3km) → 사계 발자국 화석 발견지(5.7km) → 송악산편의점(7.1km) → 송악산(8.4km) → 셋알오름 입구(9.3km) → 고사포 진지(9.7km) → 섯알오름 위령탑(10.5km) → 알뜨르비행장 길

+3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11.7km) → 하모해수욕장(13.2km) → 모슬포항 하모체육공원(14.8km)

③특징: 화순해수욕장에서 시작해 산방산 옆을 지나 송악산을 넘어 대정읍 하모리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해안올레. 국토 최남단의 산이자 분화구가 있는 송악산을 넘는 것이 특징이다. 송악산 분화구 정상에서 마라도와 가파도를 가까이 볼 수 있고, 산방산과 오름군, 영실계곡 뒤로 비단처럼 펼쳐진 한라산의 비경도 감상할 수 있다. 제주올레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소개된 산방산 밑 소금막 항만대의 절경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다. 화순해수욕장은 파도가 너무 세지도 잔잔하지도 않아 맨몸으로 파도타기에 적합하고 용천수 야외수영장까지 있어 여름철 물놀이에 제격이다.

④코스 난이도: 중

초반에 바윗길이 있고, 산방연대, 송악산 등의 오르막이 포함돼 있다.

⑤볼거리: 화순해수욕장, 소금막, 항만대, 사계발자국화석 발견지, 송악산, 섯알오름, 알뜨르 비행장 터, 모슬포항

⑵ 해안+오름코스

1) 1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5.6km(4~5시간) 2007년 9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시흥~광치기

시흥초등학교 → 말미오름 입구(1.1km) → 말미오름 정상(1.8km) 쇠물통(2.2km) 알오름 정상(3.3km) → 알오름 내려오는 길(3.6km) → 삼거리(4.8km) → 종달초등학교(6.5km) 종달리 옛소금밭(6.9km) → 종달리 바당길(7.6km) 목화휴게소(8.5km) → 성산갑문(11.5km) → 성산포항 입구(12km) → 성산마을 제단(13km) → 수마포 해안(13.9km) → 광치기 해변(15.6km)

③특징: 제주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이다. 오름과 바다가 이어지는 '오름-바당 올레'다. 아담하고 예쁜 시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사시사철 푸른 들을 지나 말미오름과 알오름에 오르면, 성산 일출봉과 우도, 조각보를 펼쳐놓은 듯한 들판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검은 돌담을 두른 밭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들의 모습은 색색의 천을 곱게 기워 붙인 한 장의 조각보처럼 아름답다. 종달리 소금밭을 거쳐 시흥리 해안도로를 지나면 성산 일출봉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지는 수마포 해변에 닿는다. 길이 끝나는 광치기 해변의 물빛도 환상적이다. 말미오름과 알오름 길이 점차 훼손되고 있어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④코스 난이도: 중

코스 초반에 두 개의 오름을 오른다. 비나 눈이 온 뒤에는 길이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다. 이후로는 오르막이 없는 평탄한 길이다.

⑤볼거리: 말미오름, 알오름, 성산일출봉, 종달리 소금밭, 종달리 해수욕장, 수마포 해안, 광치기 해변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2) 2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 총 18.1km(5~6시간) 2008년 6월

②시점 및 종점: 광치기~온평

광치기 해변 → 내수면 둑방길(1km) → 식산봉(2.8km) → 오조리 성터(4.1km) → 성산하수종말처리장(6.2km) → 홍마트(6.8km) 고성윗마을 갈림길→ 대수산봉 입구(9.5km) → 대수산봉 뒷길(11.6km) → 말 방목장(12.64km) → 혼인지(15.5km) → 온평초등학교(16.5km) → 환해장성(17.8km) → 온평포구(18.1km)

③특징: 성산리 광치기 해변에서 출발하여 고성, 대수산봉, 혼인지를 지나 온평리 바닷가까지 이어지는 올레. 물빛 고운 바닷길부터 잔잔한 저수지를 낀 들길, 호젓한 산길까지 색다른 매력의 길들이 이어진다. 대수산봉 정상에 서면 시흥부터 광치기 해변까지 아름다운 제주 동부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제주 '삼성 신화'에 나오는 고, 양, 부 삼신인이 벽랑국에서 찾아온 세 공주를 맞이한 온평리 바닷가에서 혼인식을 치렀다는 혼인지도 지난다.

④코스 난이도: 중

초반에는 물길이 이어지다가 중반 즈음에서 오름을 오른다. 오름 앞뒤로는 호젓한 산길이어서 두 명 이상이 짝지어 가는 것이 좋다.

⑤볼거리: 내수면, 식산봉, 오조리 성터, 대수산봉, 혼인지, 황루알

3) 3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20.7km(6~7시간) 2008년 9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온평~표선

온평포구 → 도댓불(0.14km) → 중산간 입구(1.36km) → 난산리 초입(3.46km) → 난산리(4.59km) → 통오름 입구(6.41km) → 통오름 정상(7.14km) → 독자봉 입구(7.71km) → 독자봉 아래 녹차밭대문(8km) → 김영갑갤러리 두모악(12.1km) → 하천길 삼거리(13.4km) → 우물안개구리 옆길(14.2km) → 신풍 신천 바다목장(15.1km) → 신천리 해녀탈의장(16.2km) → 신천리 마을 올레(17.1km) → 하천리 배고픈다리(18.4km) → 소낭쉼터(19.6km) → 표선해수욕장 탈의실 옆(20.7km)

③특징: 장장 12킬로미터에 걸친 중산간 길의 고즈넉함을 만끽할 수 있는 올레다. 양옆에 늘어선 오래된 돌담과 제주에 자생하는 울창한 수목이 운치를 더한다. 나지막하지만 전망이 툭 트인 '통오름'과 '독자봉' 또한 제주의 오름이 지닌 고유의 멋을 느끼게 해준다. 도중에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에 들러 사진에 담긴 제주의 하늘과 바다, 오름, 바람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이 올레의 매력. 중산간 길을 지나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바다목장 길이 열린다. 물빛 바다와 풀빛 초장이 푸르게 어우러진 낯선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는, 제주에서만 접할 수 있는 바당올레길이다.

④코스 난이도: 상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코스 길이가 20.7km 달하고 중간에 오름과 바닷길이 포함돼 있다.

⑤볼거리: 도댓불, 독자봉, 신풍·신천 바다목장, 배고픈 다리, 표선 백사장, 당케포구, 제주민속촌박물관

4) 4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22.9km(6~7시간) 2008년 10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표선~남원

표선해비치해변 → 거웃개(0.7km) → 갯늪(2.2km) → 흰동산(3.8km) → 거문머처(5.6km) → 가마리개(6.2km) → 해녀탈의장(6.6km) → 해병대길(ᄀᆞ는개)(7.4km) → 토산 산책로 입구(7.6km) → 토산포구(8km) → 남쪽나라 횟집(8.8km) → 산여리통 입구(9km) → 토산초등학교(9.8km) → 망오름 입구(11.3km) → 망오름 정상(11.8km) → 망오름 쉼터(12.3km) → 거슨새미(12.8km) → 영천사(13.8km) → 반구동(14.8km) → 삼석교(16.4km) → 태흥2리 포구(18.8km) → 태흥1리 쉼터(20.9km) → 남원포구(22.9km)

③특징: 절반은 아름다운 해안 올레고, 나머지 절반은 오름과 중산간 올레다. 가마리 해녀올레는 '세계 최초의 전문직 여성'으로 불리는 제주 해녀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며, 이곳을 거쳐 '가는개'로 가는 숲길은 제주올레에 의해 35년 만에 복원되었다. 토산리 망오름과 거슨새미는 중산간의 특별한 풍광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데, 거슨새미 가는 길은 제주올레가 새로 낸 길이다.

④코스 난이도: 상

코스 길이가 가장 길고, 오름과 바닷길이 일부 포함돼 있다. 바다 옆으로 쭉 이어진 해안도로를 따라 오래 걷는다.

⑤볼거리: 갯늪, 거우개, 가마리개와 가마리 해녀올레, ᄀᆞ는개, 해병대길, 망오름, 영천사(노단새미), 거슨새미

5) 9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8.2km(3시간) 2008년 4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대평포구~화순금모래해변

대평포구 → 몰질(0.35km) → 한밭소낭길(0.95km) → 과수원입구(1.6km) → 기정길(2.0km) → 볼레낭길(2.2km) → 봉수대(2.3km) → 볼레낭길 만남길(2.5km) → 월라봉 입구(3.0km) → 월라봉 진지동굴(3.8km) → 월라봉 내린 길(4.1km) → 임금내 전망대(4.9km) → 올랭이소 정상(5.6km) → 자귀나무 숲길(6.1km) → 자귀나무 숲길 끝(6.6km) → 황개천 올레화장실(7.0km) → 화순리선사마을 유적공원(7.1km) → 동화동 마을올레(7.5km) → 화순선주협회(7.9km) → 화순금모래해변(8.2km) / 바당올레횟집

③특징: 대평포구에서 시작해 말이 다니던 '몰질'을 따라 가면 봉수대와 월라봉을 지난다. 박수기정길은 2008년 4월에 개장하여 올레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토지 소유주의 허락 철회로 폐쇄되었다. 몰질길은 2009년 2월에 새롭게 개척했다. 상록원시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림 모습을 간직한 안덕계곡은 비경.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꼽힌다.

④코스 난이도: 상

코스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월라봉, 안덕계곡 등이 포함돼 있어 쉽지는 않다.

⑤볼거리: 올질 봉수대, 황개천, 안덕계곡

6) 12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연도 : 총17.5km(5~6시간) 2009년 3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무릉~용수

무릉 생태학교 → 평지동 입구(0.9km) → 평지교회(2.5km) → 신도 생태연못(4.2km) → 농남봉 정상(5.5km) → 산경도예(6.2km) → 신도 바당올레(8.4km) → 신도포구(9.4km) → 소낭(11km) → 한장동 마을회관(11.6km) → 수월봉 정상(12.5km) → 엉알길(13.3km) → 자구내포구(14.6km) → 당산봉 정상(15.3km) → 생이기정(16.1km) → 용수포구(17.5km)

③특징: 해안을 따라 서귀포시 전역을 잇고 제주시로 올라가는 첫 올레. 무릉 2리부터 용수포구 절부암까지 들과 바다, 오름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 드넓은 들에서 보는 지평선은 아스라하고, 깊은 바다는 옥빛으로 일렁인다. 신도 앞바다에 거대한 도구리(돌이나 나무를 파서 소나 돼지의 먹이통으로 사용한 넓적한 그릇)들이 바닷물과 해초를 가득 머금은 채 연못처럼 놓인 모습이 신비롭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날, 이 도구리에 파도가 덮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7코스 '일강정 바당올레'를 만든 강정 돌챙이들이 서귀포시청의 도움을 받아 신도 앞바다 역시 걷기 좋은 멋진 길로 재탄생시켰다. 차귀도를 바라보며 수월봉과 엉알길을 지나 당산봉을 넘고 나면 '생이기정 바당길(새가 많은 절벽이라는 뜻으로 제주올레가 붙인 이름)'로 접어든다. 눈 밑에서 갈매기가 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이 구간은 제주올레에 의해 개척되었다.

④코스 난이도: 중

초반에는 평탄한 길이 이어진다. 신도에 이르러 바다를 만나면 넓은 바윗길을 지나고, 오름도 오른다.

⑤볼거리: 자구내포구, 도원연못, 농남봉, 신도 바당올레, 수월봉, 엉알길, 생이기정 바당길, 차귀도, 용수포구와 절부암

7) 14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9.3km(6~7시간) 2009년 9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저지~한림

저지마을회관 → 저지 고망숲길(0.6km) → 나눔허브제약(1.7km) → 소낭숲길(2.5km) → 삼거리(4km) → 오시록헌 농로(4.2km) → 굴렁진 숲길(5.3km) → 무명천 산책길1(7.2km) → 월령숲길 입구(7.4km) → 무명천 산책길2(8.1km) → 무명천 산책길3(8.9km) → 월령 선인장자생지(10.3km) → 월령포구(10.9km) → 해녀콩 서식지(12km) → 금능포구(13.5km) → 금능해수욕장(14.3km) → 협재해수욕장(14.9km) →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옹포포구(16.9km) → 국립패류육종센터(17.6km) → 한림항 비양도 도항선선착장(19.3km)

③특징: 고요하고 아늑한 농촌 풍경에 마음이 탁 풀어지는 밭길을 지나면, 곶자왈처럼 무성한 숲길이 이어지고, 폭신한 숲길을 벗어나 물이 마른 하천을 따라 가노라면 어느새 걸음은 바다에 가 닿는다. 돌담길, 밭길, 숲길, 하천길, 나무 산책로가 깔린 바닷길, 자잘한 돌이 덮인 바닷길, 고운 모래사장 길, 마을길 들이 차례로 나타나 지루할 틈 없이 장장 19.3km의 여정이 이어진다. 바다에서는 아름다운 섬 비양도를 내내 눈에 담고 걷는다. 걸을수록 조금씩 돌아앉는 비양도의 모습이 흥미롭다. 길이 없는 곳, 도저히 좋은 길을 찾기 힘든 환경에서 탐사팀은 흠잡을 데 없는 길을 만들기 위해 몇 배나 더 공을 들였다. 그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올레다.

③코스 난이도: 중

코스가 비교적 길고 일부 숲길과 자잘한 돌길을 지난다.

④볼거리 : 큰소낭 숲길, 오시록헌 농로, 굴렁진 숲길, 월령리 선인장 자생지, 해녀콩 서식지, 금능해수욕장/협재해수욕장, 비양도, 옹포포구(명월포 전적지), 한림 오일장/한림 매일시장

⑶ 중산간 코스

1) 13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6.4km(4~5시간) 2009년 6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용수~저지

용수포구 → 너른 밭길(1.2km) → 충혼묘지 사거리(1.9km) → 복원된 밭길(2.3km) → 용수저수지(3.2km) → 먼고돌담(4.8km) → 특전사숲길(4.9km) → 쪼른 숲길(5.9km) → 고목나무숲길(6.6km) → 고사리숲길(7.6km) → 하동숲길(8.2km) → 고망숲길(8.5km) → 낙천리 아홉굿 마을(9.6km) → 올레농장(11km) → 용선달리(12.1km) → 뒷동산 아리랑길(12.4km) → 저지오름 둘레길(13.9km) → 저지오름 정상(14.8km) → 저지마을회관(16.4km)

③특징: 해안가를 이어오던 제주올레의 지도가 내륙으로 방향을 틀었다. 숲길 올레의 시작을 알리는 코스다. 바다는 오직 시작점인 용수포구에서만 인사한 후 길은 중산간으로 이어진다. 용수저수지와 숲을 지나 작은 마을 낙천리를 만나고 다시 숲과 오름을 오른다. 제13 공수특전여단 병사들의 도움으로 복원된 총길이 3km에 이르는 7개의 숲길, 밭길, 잣길들과 저지오름의 울창한 숲이 우리를 부른다.

④난이도: 중

제주올레가 특전사의 도움을 받아 개척한 폭이 좁은 숲길을 여럿 지난다.

⑤볼거리 : 절부암, 용수저수지, 특전사 숲길, 낙천리 아홉굿(샘) 마을, 저지오름

2) 7-1코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5.1km(4~5시간) 2008년 12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월드컵경기장~외돌개

월드컵경기장(정문) → 월드컵경기장(후문)(0.4km) → 성산아파트(1.2km) → 대신중학교(2km) → 월산동(3.5km) → 엉또폭포(4.7km) → 배수지(6.1km) → 고근산 정상(7.3km) → 서호마을(9.5km) → 호서마트(10.2km) → 서호초등학교(10.9km) → 봉림사(12.2km) → 하논 분화구(13km) → 삼매봉 옆길(14.3km) → 외돌개(15.1km)

③특징: 제주 중산간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호흡하며 걷는 올레.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작하여 중산간을 거쳐 외돌개로 내려온다. 위로는 한라산, 아래로는 제주의 남쪽 바다와 서귀포 전역을 조망할 수 있다. 기암절벽과 천연 난대림에 둘러싸인 중산간의 비경이 감탄을 자아낸다.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논농사를 짓는 하논분화구를 지난다.

④코스 난이도: 중

여느 오름에 비해 비교적 높은 고근산을 오른다.

⑤볼거리: 엉또폭포, 고근산, 하논분화구, 외돌개

3) 11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8km(5~6시간) 2008년 11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무릉 생태학교

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 → 산이물(1km) → 암반수마농마을(동일리)(2km) → 청소년수련관(2.5km) → 대정여고(3.2km) → 모슬봉 둘레길(4.2km) → 모슬봉 숲길(5km) → 보성농로(7.3km) → 정난주마리아 성지(9.3km) → 신평 사거리(11.4km) → 신평곶자왈(12km) → 정개왓 광장(13.8km) → 무릉곶자왈 아름다운 숲길(15.3km) → 무릉2리 효자정려(16.8km) → 무릉 생태학교(18km)

③특징: 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에서 시작하는 11코스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길, 근대사와 현대사가 녹아 있는 올레다. 11코스의 절정인 모슬봉은 이 지역 최대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서, 제주올레는 이곳 정상부로 올라가는 '잊혀진 옛길'을 산불감시원의 조언을 얻어 복원했다. 모슬봉에서는 흔들리는 억새 사이로 드넓게 펼쳐진 제주 남서부 일대의 오름과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신평-무릉간 곶자왈 올레는 제주올레에 의해 처음 공개되었다.

④코스 난이도 : 상

길이가 비교적 길고 곶자왈이 포함돼 있다. 곶자왈에서는 길을 잃으면 위험하므로 리본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걸어야 한다. 곶자왈이 포함된 코스에서는 역방향 올레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볼거리: 알뜨르 비행장, 섯알오름, 모슬봉, 정난주 마리아 묘, 신평-무릉간 곶자왈

4) 15코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9km(6~7시간) 2009년 12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한림~고내

한림항 비양도 도항선 선착장 → 대림 안길 입구(2.5km) → 사거리(3.8km) → 성로동 농산물집하장(4.7km) → 귀덕농로(5.5km) → 선운정사(6.5km) → 버들못농로(7.6km) → 혜린교회(8.9km) → 남읍숲길(9.3km) → 남읍초등학교 금산공원 입구(10.5km) → 남읍리사무소(11.3km) → 백일홍길 입구(12.1km) → 과오름입구(12.5km) → 도새기숲길(13.8km) → 고내봉 입구(14.9km) → 하르방당(16.5km) → 고내봉 아래 하가리 갈림길(17.6km) → 고내교차로(18.5km) → 고내포구(19km)

③특징: 바다를 떠난 길은 다시 바다 쪽으로 향한다. 15코스는 한림의 바다에서 출발해 중산간의 마을과 밭, 오름을 돌아 다시 고내의 바다에 이르는 올레다. 한림항을 출발하여 한수리를 지나면 길은 바다를 등진다. 마을 올레의 시작이다. 인적 드문 한적한 마을이 있고, 사시사철 푸른 밭이 있고, 그 밭에 물을 대는 작은 못들이 있고, 두 개의 오름이 있고, 감춰진 난대림 숲이 있다.

④코스 난이도: 중

길이가 비교적 길고, 높지는 않지만 오름이 있고, 숲길도 지난다.

⑤볼거리: 영새생물, 버들못 농로, 백일홍길, 금산공원(납읍 난대림지대), 납읍리 포제단, 하가리 돌담과 연화못, 고내봉, 애월 환해장성

⑷ 내륙코스

1) 14-1 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8.8km(5~6시간) 2010년 4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저지~무릉

저지마을회관 → 강정동산(2.7km) → 폭낭쉼터(4km) → 문도지오름 정상(5.1km) → 주가흘길(5.5km) → 저지곶자왈 입구(7km) → 노루쉼터(7.5km) → 동물농장 숲길(8.5km) → 오설록(10.3km) → 무릉곶자왈 입구(13.9km) → 항물(14.3km) → 영동케(봉근물)(15.4km) → 인향마을(16.7km) → 구남물(17.4km) → 무릉 생태학교(18.8km)

③특징: 저지에서 무릉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무성한 숲의 생명력, 초록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는 길이다. 저지마을을 떠난 길은 밭 사이로 이어지다 이내 숲으로 들어선다. 순한 말들이 풀을 뜯는 문도지오름 정상에 오르면 한라산과 봉긋봉긋 솟은 사방의 오름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발 아래 야트막하게 펼쳐진 곶자왈은 마치 잘 정리된 정원과도 같이 고분고분해 보인다.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 만만한 풍경은 곶자왈 안에 들어선 순간 잊혀진다. 곶자왈이 품고 있는 무성한 숲의 생명력이 온몸을 휘감는다. 자칫 표식을 놓치면 드넓은 곶자왈을 헤매게 되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빠져나온 길은 녹차 밭 사이를 지나며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곶자왈로 발길을 이끈다. 이번에는 조금 넓은 숲길이다. 그 길은 인향마을을 지나 종점인 무릉2리까지 이어진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④난이도: 상

곶자왈에서 길을 잃으면 위험하므로 표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코스 내에 인가가 없으므로 혼자보다는 두 명 이상이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식당이나 상점이 없으므로, 반드시 도시락과 물, 간식을 미리 준비해서 가야 한다.

⑤볼거리: 저지리 문화 예술인 마을, 문도지오름, 저지곶자왈, 오설록 티 뮤지엄

2) 16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7.8km(5~6시간) 2010년 3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고내~광령

고내포구 → 신엄포구(1.5km) → 남두연대(2.8km) → 중엄새물(3.8km) → 구엄포구(4.8km) → 구엄리마을 수산봉둘레길(6.4km) → 수산저수지 둑방길(7.2km) → 수산밭길(9.6km) → 장수물(11.3km) → 항파두리 항몽유적지(12.6km) → 고성숲길(13km) → 숭조당(14.4km) → 청화마을(16.1km) → 광령1리사무소(17.8km)

③특징: 고내의 작은 포구에서 출발한 길은 해안을 따라 구엄까지 이어진다. 일부 해안길은 작은 오솔길 산책로이고, 일부는 바다와 맞닿은 길, 일부는 해안 도로를 따라 간다. 넓은 소금빌레가 펼쳐진 구엄포구를 지나면 길은 내륙으로 방향을 튼다. 봉긋하게 솟은 수산봉을 향해 마을과 밭길을 지나 수산봉 둘레를 돌면, 수산의 넓은 저수지에 이른다. 저수지 둑방 위를 가볍게 걸어 마을을 통과하면,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서 옛 토성, 항파두리로 발길을 이끈다. 성을 빠져나가면 아름다운 숲길, 계곡길이 반긴다. 숲을 빠져 나온 길은 이제 마을을 보여주며 종착지 광령에 다다른다. 고내에서 구엄까지의 쪽빛 바다, 아직도 하얀 소금기가 햇빛에 빛나는 소금빌레, 낚시꾼들이 한가롭게 세월을 낚는 잔잔한 저수지, 키 큰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는 호젓한 숲, 삼별초가 항전을 벌였던 옛 토성, 제주의 여느 마을과 다를 바 없이 평화롭고 소박한 마을들, 돌담을 두른 밭….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 보여주는 길, 제주올레의 열 여섯 번째 길, 고내~광령 올레다.

④코스 난이도: 중

특별히 난이도 높은 구간은 없지만, 전체 길이가 17.8km에 이르고, 오르막길이 일부 포함돼 있다. 신엄포구 지나서 계단이 있고, 숲을 지나기도 해 유모차나 휠체어로 전 코스를 가기는 힘들다.

⑤볼거리: 신엄 도댓불, 남두연대, 중엄새물, 구엄 돌염전, 수산봉, 수산리 저수지, 곰솔,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5) 섬코스

1) 10-1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5km(1~2시간) 2010년 3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가파도 내 일주순환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상동포구 → 상동본향당(0.2km) → 장택코 정자(0.8km) → 냇골챙이(1.7km) → 가파초등학교(2.1km) → 전화국(2.4km) → 개엄주리코지(3.6km) → 큰 옹짓물(4.1km) → 제단(4.4km) → 부근덕(4.8km) → 가파포구(하동)(5km)

③특징: 가파도는 한국의 유인도 중에서 가장 낮은 섬이다. 섬의 최고점이 20.5미터에 불과하다. 제주도에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과 가장 낮은 섬 가파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의미 깊다. 낮은 섬 가파도는 느리게 걸어도 한 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작다. 그러므로 가파도 올레는 걷기 위한 길이 아니다. 머물기 위한 길이다. 길고 긴 제주 섬의 올레를 걸어오느라 수고한 나의 몸과 마음이 하루쯤 편히 쉴 곳. 가파도는 산책의 섬, 휴식의 섬, 안식의 섬이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에너지 충전소다

④코스 난이도: 하

가파도는 오르막이 없고 길이도 5km로 짧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⑤볼거리: 보리밭, 고인돌 군락지, 집담과 밭담, 김성숙 선생 동상, 고냉이돌, 할망당 제단, 마라도 까마귀돌

2) 18-1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 총 17.3km(6~7시간) 2010년 6월 개장

②시점 및 종점: 추자도 일주순환

추자항 → 최영장군 사당(0.4km) → 봉글레산 입구(1.1km) → 봉글레산 정상(1.5km) → 천주교 추자공소 → 순효각 입구(2.5km) → 처사각(2.7km) → 나바론 절벽 정상(3.1km) → 추자등대(3.3km) → 추자교(4.2km) → 추자교 삼거리(4.4km) → 묵리 고갯마루(5.1km) → 묵리 교차로(5.8km) → 묵리마을(6.2km) → 신양2리(6.8km) → 신양항(7.7km) → 모진이 몽돌해안(8.4km) → 황경헌의 묘(9.3km) → 신대산 전망대(10.2km) → 예초리 기정길 끝(10.7km) → 예초리포구(11.1km) → 엄바위 장승(11.6km) → 돈대산 입구(12.0km) → 돈대산 정상(12.8km) → 묵리 교차로(14.0km) → 담수장(14.6km) → 추자교(15.4km) → 영흥 쉼터(16.2km) → 추자항(17.7km)

③특징: 추자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네 개의 섬과 아무도 살지 않는 서른 여덟 개의 섬이 추자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 바다에 떠 있는 첩첩산중. 겹겹이 보이는 섬의 봉우리들은 섬이 아니라 깊은 산중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 산봉우리들 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추자도는 발길을 이어갈 때마다, 눈길을 달리할 때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새로운 풍광을 쏟아낸다. 추자도의 두 섬, 상추자와 하추자의 봉우리들을 넘고 또 넘어 이어가는 제주올레 길은 추자도의 숨은 풍광을 모두 들춰내 보여준다. 고즈넉한 숲길을 바다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쁨은 추자도의 한 봉우리를 넘은 후, 다시 새로운 봉우리에 오르는 힘을 기꺼이 내어줄 것이다.

④코스 난이도: 최상

봉글레산, 묵리 고개, 신대산, 예초리 기정, 돈대산 등 봉우리를 여러 차례 오르내린다. 추자도에서 하루를 머물러야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봉글레산에서 보는 일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올이 아름답다.

⑤볼거리 : 추자도, 최영장군 사당, 추자 처사각, 나바론 절벽, 추자도 등대, 묵리 고갯길, 모진이 몽돌해안, 황경헌의 묘, 예초리 기정길, 엄바위 장승, 테우 체험

3) 1-1코스

①코스 길이(소요 시간) 및 개장 연도: 총 15.9km(4~5시간) 2009년 5월개장

②시점 및 종점 : 우도일주순환

천진항 → 쇠물통언덕(0.9km) → 홍조단괴해빈 해수욕장(2km) → 하우목동항(3.2km) → 산물통(오봉리 주흥동)(4.4km) → 답다니탑 망대 전 삼거리(5.6km) → 파평윤씨 공원(6.5km) → 하고수동 해수욕장(7.5km) → 비양도 망대(9km) → 조일리 영일동 입구(10.1km) → 검멀레 해수욕장(12km) → 망동산(12.7km) → 우도봉(13.2km) → 농로 사거리(15km) → 한반도여(15.4km) → 천진항(15.9km)

③특징: 소가 드러누운 모습으로 떠 있는 우도는 푸른 초원과 검은 돌담 그리고 등대가 가장 제주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우도 올레는 제주도에 딸린 62개의 섬 가운데 가장 크고 일년 내내 쪽빛 바다색을 자랑하는 우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쇠물통 언덕을 지나 제주도의 옛 돌담을 고스란히 간직한 돌담 올레를 걷고, 호밀과 보리, 땅콩이 자라는 밭둑 올레를 즐긴다. 기존 우도봉 산책 코스는 바로 올라 전망대로 가지만, 올레 코스는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우도 저수지 옆길을 지나 우도봉으로 오르게 길을 냈다. 이 길은 꽃양귀비와 크림손클로버로 뒤덮인 아름다운 초원이다.

④코스 난이도: 하

전체적으로 큰 굴곡이 없지만, 차와 스쿠터 등에 주의하며 걸어야 한다.

⑤볼거리: 하고수동 해수욕장, 홍조단괴해빈 해수욕장, 호밀 밭, 크림손클로버와 꽃양귀비 군락, 비양도, 쇠물통 언덕길, 우도봉

1.1.2 개설방향

동쪽 서귀포시 시흥리에서 처음 시작하여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북쪽을 거쳐 처음 시작 부분인 동쪽의 1코스와 만나게 된다. 서귀포 권역은 바다에 면한 올레길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주시 권역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내륙 또는 중산간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는 제주시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안가의 개발이 덜 이루어진 상태여서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을 올레코스에 담도록 추진되어 왔다.

한편 제주시 권역으로 넘어서면 바닷가는 자연보다는 카페 펜션 등으로 개발된 곳이 많고, 육상 양어장이 많아 올레 길은 자연과 제주만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내륙과 중산간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사)제주올레에서는 길을 개설할 때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해 오고 있는데 확포장 상태와 폭, 사용재료의 종류, 참여구성원, 소유자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칙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기준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어서 보다 구체성을 갖는 원칙과 기준(가이드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라인)의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와 같다.

코스 개설 원칙	기준
광범위한 지역 검토	-해안변을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 구간이 많거나 육상 양식장과 같은 경관훼손구조물을 피하여 개설한다.
자연환경	-새로운 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친환경적인 방식을 쓴다. -새 길의 폭은 1m를 넘지 않는다.
역사 · 문화적 가치	-사라진 옛길을 찾는다.
풍광	-자연 상태에서의 길을 찾는다.
길의 상태(도로 현황, 접근성)	-포장도로는 되도록 피한다.
옛길의 모습	-점(지점)과 점(지점)을 잇는 선으로서 개발되고 있으나 선의 상태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점차 점과 점이 면을 이루고 면과 면을 잇는 선(생태 문화적 벨트)으로 변화 진화되도록 유도한다.
기타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보수할 때는 군, 민 등 다양한 인력을 참여시킨다. -사유지는 올레가 소유하지 않되, 통과하도록 조율한다.

표 2-2. (사)제주올레가 적용하고 있는 개설원칙과 기준

1.1.3 이용현황

올레길이 개설된 지 오랜 기간을 거치치 않아 이용현황에 대한 축적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사)제주올레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각 코스별 방문현황을 살펴보면 코스별 이용현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1월이 11,763명으로 가장 이용객이 적고, 12월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별 이용 현황에 있어서는 7코스의 이용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코스의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7-1 코스의 경우 이용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한편 2010년 이용객 현황(9월 현재)을 살펴보면(표 2-4),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방문자 수가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2009년에는 1월 이용객이 가장 적었으나 2010년에는 1월의 방문자 수가 약 46,000명으로 증가하였고, 2월의 방문자수가 줄어들고 6월~8월 방문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10년 들어 방문자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또한 6월~8월 방문자수가 뚜렷하게 증가한 현상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제주올레가 널리 홍보되면서 방문자 수가 급증하였고 특히 여름 휴가철에 종전의 해안을 찾는 여행객보다는 올레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표 2-3. 2009년 코스별 이용객 현황

구분	코스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 합계	251,349	11,763	12,873	15,072	15,054	17,192	15,276	17,250	21,507	27,680	28,302	33,962	35,418
1코스	48,008	474	940	992	1,076	1,504	1,569	2,287	2,911	8,307	10,911	10,599	6,438
2코스	8,972	742	811	733	803	898	743	592	912	828	211	514	1,185
3코스	12,365	1,124	1,019	695	1,107	1,011	916	959	1,284	1,675	508	833	1,234
4코스	6,284	132	143	137	288	274	218	311	487	842	1,605	1,041	806
5코스	15,584	473	562	786	742	997	796	952	1,085	535	3,305	2,975	2,376
6코스	23,375	1,199	1,222	1,345	1,480	1,782	1,513	1,808	1,996	1,438	3,220	3,393	2,979
7코스	66,607	3,433	3,974	4,256	4,716	5,348	5,262	5,875	6,184	5,742	3,765	8,687	9,365
7-1코스	1,508	65	70	95	87	420	90	87	94	89	92	106	213
8코스	25,889	1,563	1,694	1,502	1,767	1,774	1,567	1,782	3,151	3,046	883	1,227	5,933
9코스	7,540	636	550	436	579	725	687	628	884	883	236	321	975
10코스	14,650	1,164	1,341	1,244	1,496	1,311	1,071	1,007	1,216	2,244	512	502	1,542
11코스	11,043	758	547	331	623	665	468	425	521	1,151	1,941	2,185	1,428
12코스	9,524	-	-	2,520	290	483	376	537	782	900	1,113	1,579	944
13코스[4]	7,222	-	-	-	-	-	2,300	892	752	836	962	951	530
14코스[5]	4,145	-	-	-	-	-	-	-	-	1,780	840	943	582
15코스[6]	1,642	-	-	-	-	-	-	-	-	-	-	-	1,642

표 2-4. 2010년 코스별 이용객 현황

구 분	코스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월별 합계	530,673	45,396	39,805	49,193	66,034	50,641	71,310	70,639	73,087	64,568
1코스	63,196	7,838	5,542	6,695	7,360	8,180	5,949	6,363	7,021	8,248
2코스	7,516	770	1,079	688	560	563	620	684	1,479	1,073
3코스	10,134	818	1,652	846	728	822	967	928	1,845	1,528
4코스	12,156	1,571	990	1,257	1,542	1,611	1,690	976	1,330	1,189
5코스	10,529	2,401	1,561	889	699	644	477	1,431	939	1,488
6코스	20,632	1,632	2,453	2,082	2,172	2,382	2,099	1,003	4,147	2,662
7코스	281,053	19,702	13,856	23,530	38,108	23,879	43,138	45,227	41,526	32,087
7-1코스	2,642	296	366	181	192	136	252	288	502	429
8코스	19,582	3,156	3,584	1,932	2,513	2,011	2,436	1,242	742	1,966
9코스	12,165	992	1,678	1,122	1,202	1,008	1,742	1,068	1,974	1,379
10코스	28,031	2,846	3,392	2,966	2,790	2,842	2,773	2,921	3,976	3,525
10-1코스	8,690				1,100	424	2,978	1,368	1,452	1,368
11코스	16,153	1,510	1,570	2,760	2,110	1,800	2,087	1,550	1,147	1,619
12코스	8,961	524	788	705	1,453	1,040	971	983	1,203	1,294
13코스	5,456	400	420	550	620	712	513	780	631	830
14코스	5,812	420	462	530	611	695	596	870	678	950
14-1코스	3,250	가설			1,000	450	450	450	450	450
15코스	5076	520	412	450	592	650	530	642	530	750
16코스	6,110			2,010	682	792	730	630	530	736
18-1코스[7]	3,529	-	-	-	-	-	312	1,235	985	997

4) 2009년 6월 개설
5) 2009년 9월 개설
6) 2009년 12월 개설
7) 2010년 6월개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1.2 올레코스의 유형화

1.2.1 올레코스의 유형화를 위한 인문사회 검토 요소

올레코스의 유형화를 위한 인문사회적 검토 요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표본적 요소를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적 검토 요소의 정량화를 위해 표 2-5와 같이 유형적, 문화역사 환경요소 중심의 물질문화, 역사유적, 근대유적 등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유형적 문화역사 환경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문화에는 해녀, 소금밭, 굿당, 방사탑, 동자석, 원담 등의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역사유적은 고인돌, 선사유적, 몽고군 유적, 환해장성과 진성, 봉수와 연대, 잣성(마목장) 등의 제주의 역사유적을 대표하는 자원의 분포 여부와 근대유적은 4·3 유적, 일본군 진지동굴, 해군기지와 같은 근대 역사유적 등의 자원요소 분포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구 분	물질문화						역사유적						근대유적		
	해녀	소금밭	굿당	방사탑	동자석	원담	고인돌	선사유적	몽고군유적	환해장성/진성	봉수와 연대	잣성	4·3 유적	일본군 진지동굴	근대역사유적
1코스	O	O				O							O	O	
2코스	O							O		O			O		
3코스	O										O				
4코스	O		O	O							O				
5코스	O		O								O		O		
6코스	O	O											O	O	
7코스	O		O											O	
8코스	O									O					
9코스								O			O			O	
10코스	O							O		O	O		O	O	
11코스	O													O	O
12코스	O			O	O										
13코스				O											
14코스	O														
15코스		O								O	O				
16코스		O	O						O		O				
1-1코스	O		O	O			O								
7-1코스															
10-1코스	O		O				O	O							
14-1코스															
18-1코스	O								O						

표 2-5. 올레코스의 유형화를 위한 인문사회 검토 요소

21개 올레코스에서 인문사회적 유형화 요소를 검토한 결과 7-1, 14-1, 코스에서는 유형적 문화역사 환경요소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적 문화역사 환경요소가 고르게 분포한 올레코스는 1, 2, 5, 10 코스 등이며 3, 4, 6, 7, 8, 9, 10-1, 11, 13, 14, 15, 16,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18-1 등의 코스는 최소 한 개 이상의 유형적 문화역사 환경 요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2 올레코스의 유형화를 위한 생태 환경 검토 요소

올레코스의 유형화를 위하여 생태 환경의 검토요소로서 표 2-5와 같이 총 21개 올레 코스에서 각 코스 별 습지, 초지대, 상록활엽수림대, 낙엽활엽수림대, 침엽수림대 및 관목림대로 구분하였다.

구분	습지	초지대	해안 식물대	상록활엽 수림대	낙엽활엽 수림대	침엽수림대 및 관목림대
1코스	O	O	O			
1-1코스		O	O			
2코스	O	O	O			
3코스		O	O		O	
4코스	O	O	O		O	
5코스		O	O	O		
6코스	O	O	O	O		O
7코스	O	O	O	O		O
7-1코스	O	O	O	O		O
8코스	O	O	O			
9코스	O	O	O	O		O
10코스		O	O			
10-1코스			O			
11코스		O	O	O		
12코스	O	O	O			
13코스		O	O	O	O	
14코스		O	O		O	
14-1코스		O		O		
15코스		O			O	
16코스		O	O			
18-1코스			O		O	O

표 2-6. 올레코스의 유형화를 위한 생태 환경 검토요소

21개 올레코스의 생태 환경 요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5개의 생태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습지·초지대·해안식물대로 이루어진 올레코스(1, 2, 4, 8, 12), 둘째, 습지·초지대·해안식물대를 포함하면서 상록·침엽수림대가 분포하는 올레코스(6, 7, 7-1, 9), 셋째, 초지대·해안식물대를 포함하면서 수림대(낙엽활엽수림)가 분포하는 올레코스(1-1, 3, 5, 10, 11, 13, 14, 16), 넷째, 해안식물대가 없이 초지대와 수림대(상록활엽수림)를 포함하는 올레코스(14-1, 15), 다섯째, 해안식물대가 주를 이루거나 해안식물대와 수림대가 분포하는 올레코스(10-1, 18-1)인 다섯 개로 구분되어 진다.

다섯 개로 구분되어진 코스별 생태적 요소에서, 첫 번째인 습지·초지대·해안식물대로 이루어진 올레코스(1, 2, 4, 8, 12)에서는 습지를 주요 요소로 인지하여 습지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1코스(시흥-광치기 올레)를 대표 코스로, 두 번째인 습지·초지대·해안식물대를 포함하면서 상록·침엽수림대가 분포하는 올레코스(6, 7, 7-1, 9)에서는 침엽수림대를 주요 요소로 인지하여 침엽수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7코스(외돌개~월평 올레)를 대표 코스로, 세 번째인 초지대·해안식물대를 포함하면서 수림대(낙엽활엽수림)가 분포하는 올레코스(1-1, 3, 5, 10, 11, 13, 14, 16)에서는 낙엽활엽수림대를 주요 요소로 인지하여 13코스(용수~저지 올레)를 대표 코스로, 네 번째인 해안식물대가 없이 초지대와 수림대(상록활엽수림)를 포함하는 올레코스(14-1, 15)에서는 상록활엽수림대가 분포하는 곶자왈을 주요 요소로 인지하여 14-1코스(저지~무릉 올레)를 대표 코스로, 다섯 번째는 해안식물대가 주를 이루거나 해안식물대와 수림대가 분포하는 올레코스(10-1, 18-1)에서는 해안식물대와 수림대를 주요 요소로 인지하여 18-1코스(추자도 올레)를 대표 코스로 추출하였다.

1.2.3 올레코스의 유형화를 위한 물리적 검토 요소

제주의 풍경을 결정짓는 물리적 환경의 중요 요소는 땅, 공간, 그리고 스케일에서 출발한다. 특히 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는 제주의 풍경을 결정짓는 물리적 환경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제주지역의 땅을 특징짓는 요소는 중산간, 해안, 중산간과 해안과의 사이 지역인 내륙, 하천, 제주를 더욱 제주답게 풍경을 연출해 내는 오름과 오름군들, 그리고 섬 속의 섬과 같은 요소들이 제주의 풍경을 독특하게 만들어 내는 것들이며 이들 요소가 제주만이 갖는 중요한 물리적 환경요소라고 할수 있다.

이들 환경요소를 점, 선, 면의 관계에서 정리하면 점적(点的) 요소로서의 중요 포인트, 즉 오름과 오름군, 선적(線的)요소로서의 하천, 해안과 해안선, 면적(面的)인 요소로서의 공간 지역 즉 중산간, 내륙, 섬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제주올레 코스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세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4 올레코스의 유형화

유형화에는 객관적인 항목들을 적용하였는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21개 코스에 이르는 코스를 답사하기에는 시간적, 예산 사용상의 측면에서 제약이 있어서 정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올레코스를 유형화하였다.

(1)정량적 물리적 환경요소 검토
-코스의 거리는 얼마인가?
-코스상에 오름을 지나는가? (1)지난다 (2)지나지 않는다
-코스상에 해안선을 따라 지나는가? (1)지난다 (2)지나지 않는다
-코스상에 하천을 지나는가? (1)지난다 (2)지나지 않는다
-코스상의 최고 고도는 어느 정도인가?
-코스상의 최저 및 최고 고도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평균경사도[8]는 어느 정도인가?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2)정량적 생태적 환경요소 검토

-코스상에 습지대를 지나는가? (1) 지난다 (2) 지나지 않는다

-코스상에 초지대를 지나는가? (1) 지난다 (2) 지나지 않는다

-코스상에 해안식물대를 지나는가? (1) 지난다 (2) 지나지 않는다

-코스상에 낙엽활엽수림대를 지나는가? (1) 지난다 (2) 지나지 않는다

(3)정량적 역사문화 환경요소 검토

- 코스상에 물질문화를 지나는가? (1) 지난다 (2) 지나지 않는다

- 코스상에 역사유적을 지나는가? (1) 지난다 (2) 지나지 않는다

- 코스상에 근대유적을 지나는가? (1) 지난다 (2) 지나지 않는다

표 2-7과 같이 정량화된 물리적, 생태적, 역사문화 환경요소를 정리하여 통계적 수법을 이용하여 코스를 유형화하였다.

	코스거리(㎞)	오름	해안선	하천	최고고도(m)	최저및최고고도와의거리(㎞)	평균경사도	습지대	초지대	해안식물대	낙엽활엽수대	침엽수림대	물질 9)문화	역사유적	근대유적
1코스	15.6	1	1	2	153.8	4.1	2.15	1	1	1	1	1	1	2	1
2코스	18.1	1	1	2	135.4	4.84	1.6	1	1	1	2	1	1	1	1
3코스	20.7	1	1	1	159.4	10.66	0.86	1	1	1	2	1	1	2	2
4코스	22.9	1	1	1	181.4	6.5	1.6	1	2	1	2	1	1	1	1
5코스	14.7	2	1	1	43.9	6.5	0.39	1	2	1	2	1	1	1	2
6코스	14.4	1	1	1	158.4	11.7	0.78	2	2	1	2	1	1	2	1
7코스	13.8	1	1	1	60.5	3.88	0.89	2	2	1	1	1	1	2	2
8코스	15.2	1	1	1	104.9	3.95	1.52	1	1	1	2	1	1	1	2
9코스	8.2	1	1	1	189	4.09	2.65	1	1	1	1	1	2	2	1
10코스	14.8	1	1	2	79.8	4.23	1.08	2	1	1	2	1	1	1	1
11코스	18	1	1	2	171.3	4.15	2.36	1	1	1	1	1	1	2	1
12코스	17.5	1	1	2	104.8	2.94	2.04	1	1	1	2	1	2	2	2
13코스	16.4	1	2	2	245	13.88	1.01	1	1	2	1	1	2	2	2
14코스	19.3	2	1	1	131.3	14.64	0.51	1	1	1	1	1	1	1	2
15코스	19	1	1	1	180.8	8.09	1.28	1	1	1	2	1	2	1	2
16코스	17.8	1	1	1	184	11.6	0.91	1	1	1	1	1	1	1	2
1-1코스	15.9	1	1	2	126.9	11.47	0.63	2	1	1	2	1	1	2	2
7-1코스	15.1	1	1	1	393.9	5.85	3.85	1	1	2	1	1	2	2	2
10-1코스	5	2	1	2	22.2	1.77	0.72	2	1	1	2	2	1	2	2
14-1코스	18.8	1	2	2	263.7	13.22	1.14	1	1	2	1	1	2	2	1
18-1코스	17.7	1	1	2	161.3	10.3	0.90	2	2	1	1	1	1	1	2

표 2-7. 올레 코스의 유형화를 위한 정량화 요소

(5)코스 유형화

정량적 물리적 요소와 생태적 요소, 인문사회적 요소에 대하여 관련 주요 인자를 추출하기 위

8) 경사도의 산출 방법은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산출할 수 있으나 모든 거리 구간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 고도 및 최고 고도와의 거리, 최고 고도를 이용한 산출, 즉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경사도를 산출하였다. 최저 및 최고 고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 코스 유형별 물리적 특징」을 참고.

9) 해녀, 소금밭, 돌하르방, 방사탑, 동자석, 원담을 의미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한 인자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코스별 인자득점을 기초로 하여 군집분석의 통계적 수법을 이용하여 코스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인자분석 결과 표 2-7과 같이 5개의 인자를 추출하였다.

	추출인자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해안식물대	.924	5.634E-05	.188	-.183	-.091
해안선	.924	5.634E-05	.188	-.183	-.091
최저고도와의 거리	.685	-.444	.023	.185	.290
코스길이	.175	-.877	-.090	-.016	-.093
침엽수림대	-.013	.837	-.292	.051	.212
역사유적	.210	.524	.503	-.134	-.247
최고고도	.032	-.102	.916	.127	.032
낙엽활엽수림대	-.278	.024	-.647	.145	-.034
습지대	-.037	.460	.019	.786	-.128
초지대	-.169	-.192	.196	.748	.106
물질문화	.329	.053	.404	-.658	.007
경사도	-.388	.033	.448	-.652	-.355
근대유적	.040	.091	.049	.016	.777
오름	.005	.362	-.416	.083	.654
하천1	.422	.388	-.276	-.025	-.596
기여율(%)	24.5	16.3	15.3	11.4	9.8

표 2-8. 베리멕스 회전후 얻은 인자부하행렬 인자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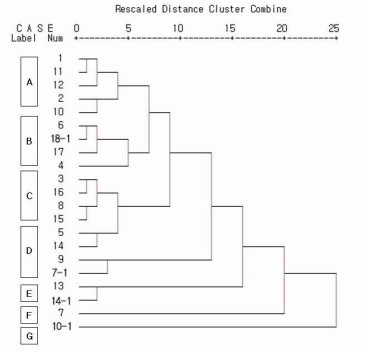


그림 2-1. 군집 분석 결과

덴드로그램: 유형화된 A~G그룹은 그림의 A~G 그룹과 일치함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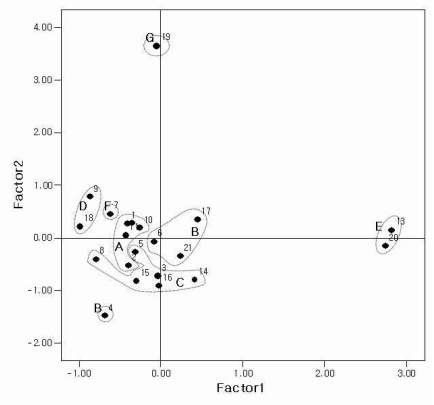


그림 2-2. 각 코스별 인자득점 분포

유형화된 A~G그룹은 그림의 A~G그룹과 일치함: 17:1-1코스, 18:7-1코스, 19:10-1코스, 20:14-1코스, 21:18-1코스

추출된 5개의 인자를 이용하여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의 인접거리에 의한 군집 형태와 그림 2-2의 인자득점의 분포를 고려하여 7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A 그룹에서는 1코스(해안+오름코스), B 그룹에서는 18-1코스(섬코스), E 그룹에서는 13코스(중산간코스), F 그룹에서는 7코스(해안코스)를 대표 유형으로 선정하되 D 그룹, G 그룹의 경우는 군집 형태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하되 C 그룹의 경우 내륙 코스의 특징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14-1코스 선정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특히 13코스가 중산간을 중심으로 개설된 코스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 그룹의 13코스와 중복되는 면은 있으나 내륙코스인 14-1코스를 추가하여 총 5개 코스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 코스 유형별 인문사회적 특징

(사)제주올레가 제공한 코스별 인문사회적 자원분포 현황을 근거로 코스 유형별 인문사회적 특징을 검토한 결과 유형적 문화역사 환경요소가 고르게 분포한 제주올레 코스는 1, 2, 5, 10 코스로 나타났다. 21개 올레코스에서 인문사회적 유형화 요소를 검토한 결과 7-1, 14-1, 코스에서는 유형적 문화역사 환경요소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3, 4, 6, 7, 8, 9, 10-1, 11, 13, 14, 15, 16, 18-1 등의 코스는 한 개 이상의 유형적 문화역사 환경 요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2.1 코스 유형별 특징

2.1.1 : 1코스(시흥-광치기 올레)

제주올레를 대표하는 해안+오름 올레코스로서 성산읍 시흥리, 오조리, 성산리와 종달리 등 4개 마을을 경유한다. 1코스(시흥-광치기 올레)는 코스 유형별 인문사회적 특징을 검토한 결과 유형적 문화역사 환경요소인 물질문화와 역사·근대유적이 고르게 분포한 코스로 나타났다.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 역사, 문화 풍경을 고르게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1코스의 유형적 문화역사 요소는 시흥초등학교, 쇠물통, 종달리 옛 소금밭, 성산갑문, 성산포항, 성산마을 포제단, 수마포 해안, 광치기 해변 등이다.



그림 2-3. 1코스의 유형적 문화역사 요소

2.1.2 : 7코스(외돌개-월평 올레)

외돌개를 출발하여 법환포구를 지나 일강정 바당올레의 서건도 사이 바윗길, 강정포구, 월평포구로 이어진 해안올레길로 제주바다와 관련한 해녀, 굿당 등의 물질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코스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귀포시 남성리, 호근동, 법환동, 강정동, 월평동 등의 마을을 경유하며, 외돌개, 선녀탕(황우지해안), 돔배낭길, 속골, 법환포구, 악근천, 강정천, 강정포구, 월평포구, 굿당, 월평 아왜낭목 등의 유형적 문화요소가 있다.



그림 2-4. 7코스의 유형적 문화역사 요소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2.1.3 : 13코스(용수-저지 올레)

해안가에서 출발해 내륙을 이어지는 올레코스로 한경면 용수리, 두모리, 조수1리, 낙천리, 저지마을 등 5개 마을을 경유한다. 제주마을의 농경문화와 농촌 풍경을 경험 할 수 있는 코스로서 절부암, 방사탑, 용수포구, 용수저수지, 먼고돌담, 낙천리 아홉굿 마을, 용선달리, 잣길 등의 유형적 문화요소가 있다. 13코스에는 제주 농촌마을의 생업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이 있다.



그림 2-5. 13코스의 유형적 문화역사 요소

2.1.4 : 14-1코스(저지-무릉 올레)

14-1 코스는 저지마을에서 출발해 문도지오름과 저지곶자왈, 오설록, 무릉곶자왈, 무릉리 인향마을을 지나 무릉 생태학교까지 이어지는 중산간 내륙코스로 숲길코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올레코스의 유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한 코스유형별 인문사회적 요소의 유형적 문화역사 환경요소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13코스의 유형적 문화역사 요소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2.1.5 : 18-1코스(추자도 올레)

추자도 올레코스는 상하추자 섬을 일주하도록 개설된 코스로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2리, 신양1리, 예초리 등 6개의 마을을 두루 살펴보며 섬 마을의 문화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18-1코스의 유형적 문화역사 요소는 최영장군 사당, 순효각 입구, 처사각, 추자등대, 묵리 고갯마루, 묵리마을, 신양2리, 신양항, 모진이 몽돌해안, 황경헌의 묘, 예초리 기정길, 예초리포구, 엄바위 장승 등이다.



그림 2-7. 18-1코스의 유형적 문화역사 요소들

2.2 코스 유형별 종합평가

2.2.1 : 1코스(시흥-광치기 올레)

제주올레의 기본 설계 방침은 우선 자연경관을 염두에 둔 산책로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다양한 자연을 즐기는 데, 그 1차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문화역사적 요소라거나 교육적 요소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자연을 체험하고 즐기는 가운데 역사문화적 감동을 더하고, 부모와 동반한 아이들을 위해 교육적 요소를 더하여 그 감동을 배가시키는 것도 제주올레 개척의 취지에 해당된다.

1코스는 제주를 대표하는 자연경관 중심의 올레길이다. 1코스는 말미오름에서 성산일출봉 수마포해변으로 이어지는 들판과 바다의 풍경만으로 제주의 가치를 담아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코스는 물질문화를 비롯해 역사와 근대 유적이 고르게 분포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지역이 지닌 문화와 역사 등 고유한 자원과의 연계성은 미흡하다.

2.2.2 : 7코스(외돌개-월평 올레)

올레꾼들은 제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올레코스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주의 자연을 만나면서 동시에 역사와 문화를 만나게 된다. 길가에 서 있는 돌담 방사탑을 보고, 길에서 제주 사람들과 만나면서 낯선 제주어를 듣게 되고, 바닷가를 지나면서는 해녀의 물질작업을 보게 되고, 그들의 신앙장소인 굿당을 지나게 된다. 식사 때에는 제주만의 음식문화인 물회 혹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은 말고기를 맛보게 되거나 제주의 대표 브랜드인 흑돼지를 접하게 된다. 분명 제주올레를 걸으며 여유 있는 여행을 즐기면서 동시에 문화를 향유하게 된다. 육지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들이기에 그 문화적 속성들이 강렬하게 와 닿을 수도 있다. 이 올레길 여행은 자연생태 체험이면서 동시에 역사문화 체험인 셈이다.

제주올레의 바다코스를 대표하면서 좀녀마을로 지정된 법환마을과 강정마을로 이어지는 7코스는 해녀, 굿당, 포구, 용천수, 고유지명, 음식문화 등 제주의 물질문화를 접할 수 있는 코스이다.

7코스는 지난 3년간의 탐방객 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올레코스 중 가장 인기 있는 코스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은 이로 인해 가장 훼손의 우려가 높은 곳으로 지적받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7코스의 경우 코스에 집착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자유산책로를 안내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2.2.3 : 13코스(용수-저지 올레)

제주의 각 마을이 지닌 역사문화적 요소를 올레길에서 모두 만나지는 못 한다. 그 여러 가지 문화 요소 중에서 일부를 만나게 된다. 제주어를 들을 수도 있지만, 육지 사람을 배려하는 제주 사람들에게는 표준어 길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신화 본풀이를 경험하려면 별도의 시간과 기회를 내야 가능하다. 갈옷을 입은 제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젠 드문 일이 되었을 것이다. 평생 먹어 보지 않은 말고기를 체험할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정신적, 언어적, 물질적 문화의 일부분은 만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은 쉽게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주만의 고유한 음식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짬뽕이나 한정식을 먹으면서 차별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것은 올레꾼 방문객 개인의 관심사에 달려 있다. 올레길이 제주 마을의 모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마을의 문화에 대한 정보가 있고, 관심이 있는 방문객은 올레길 코스를 조금 벗어나 그 문화적 향기를 취할 수도 있다.

제주올레코스의 역사문화적 요소의 활용은 경관 중심의 걷는 길에서 주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길,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길로의 확장의 의미가 있다. 제주의 고유한 풍광과 함께 지역문화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제주다운 길이 완성된다.

13코스는 해안에서 출발하여 내륙으로 이어지는 중산간 코스로 해안과 중산간을 지나 종점 마을인 저지마을에 도착하는 코스이다. 제주농촌마을의 생업과 문화풍경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배려하고, 농촌체험마을인 낙천리와 저지마을 등의 지역축제와 이벤트를 연계하여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코스를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2.2.4 : 14-1코스(저지-무릉 올레)

곶자왈과 오름을 경유하는 코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민이 안내하는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해 볼만하다. 지역민이 안내하는 탐방서비스를 통해 생태문화요소 중심의 코스에 문화적인 향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스의 활성화와 적정 관리를 위한 모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2.5 : 18-1코스(추자도 올레)

제주이면서 제주와 다른 생업과 문화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물질문화와 역사, 근대유적이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한 곳이다.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은 체류형 탐방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제주올레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직접 체득할 수도 있다.

다만 섬은 제한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방문객이 많아질수록 경관과 문화, 자연이 훼손되기 쉬운 조건임을 감안해야 한다.

3. 코스 유형별 생태적 특징

코스 유형별 생물과 그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생태환경적 요소인 습지, 초지대, 해안식물대, 상록활엽수림대, 낙엽활엽수림대, 침엽수림대를 도면에 나타내었다. 1코스, 13코스 그리고 14-1코스의 식생은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공간정보 DB의 수치임상도와 다음과 네이버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도면을 제작하였다.

각 코스별 생태환경적 특징을 살펴보면, 습지를 포함하고 있는 올레 코스는 1코스, 7-1코스, 8코스, 9코스, 13코스, 16코스이고 초지대를 포함하고 있는 올레 코스는 1코스, 1-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6코스, 7코스, 7-1코스, 8코스, 9코스, 10코스, 11코스, 12코스, 14코스, 14-1코스, 15코스, 18-1코스이다. 해안식물대를 포함하고 있는 올레 코스는 1코스, 1-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6코스, 7코스, 8코스, 9코스, 10코스, 10-1코스, 11코스, 12코스, 14코스, 15코스, 16코스, 18-1코스이며, 상록활엽수림대를 포함하고 있는 올레 코스는 2코스, 5코스, 6코스, 7코스, 7-1코스, 8코스, 9코스, 11코스, 13코스, 14-1코스, 15코스, 낙엽활엽수림대를 포함하고 있는 올레 코스는 4코스, 7-1코스, 13코스, 14코스, 14-1코스, 15코스, 16코스, 18-1코스 그리고 침엽수림대를 포함하고 있는 올레 코스는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6코스, 7코스, 7-1코스, 8코스, 10코스, 11코스, 12코스, 13코스, 14코스, 16코스이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거리 (m)	생태적 요소(거리, m)						생태요소 통과거리	생태요소 통과율(%)
		습지	초지대	해안 식물대	상록활엽수 림대	낙엽활엽수 림대	침엽 수림대		
1코스	15,000	670	842	4,812			742	7,066	47.1
1-1코스	16,100		1,716	4,738				6,454	40.1
2코스	17,200		462	1,960	210		1,262	3,894	22.6
3코스	22,000		2,049	1,773			814	4,636	21.1
4코스	23,000		1,001	5,650		116	778	7,545	32.8
5코스	15,000			6,153	1,112			7,265	48.4
6코스	15,000		1,568	3,592	1,468		1,718	8,346	55.6
7코스	16,400		342	4,806	1,064		891	7,103	43.3
7-1코스	16,400	300	237		663	642	1,157	2,999	18.3
8코스	16,300	114	227	5,637	1,059		1,302	8,339	51.2
9코스	9,100	176	280	273	1,374		2,890	4,993	54.9
10코스	15,000		3,384	6,584			970	10,938	72.9
10-1코스	5,000			2,927				2,927	58.5
11코스	21,500		1,632	873	4,245		879	7,629	35.5
12코스	17,600		1,484	2,819			1,498	5,801	33.0
13코스	15,300	623			83	387	1,696	2,789	18.2
14코스	19,300		120	4,177		1,241	502	6,040	31.3
14-1코스	17,500		383		7,485	493	2,529	10,890	62.2
15코스	19,000		969	505	466	1,650	2,118	5,708	30.0
16코스	17,800	1,127		4,430		84	1,174	6,815	38.3
18-1코스	17,700		2,887	1,746		1,658	5,037	11,328	64.0

표 2-9. 올레코스별 생태 요소 통과율

습지·초지대·해안식물대로 이루어진 올레코스(1, 8, 9)에서는 습지를 주요 요소로 인지하여 습지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1코스(시흥-광치기 올레)를 대표 코스로, 습지·초지대·해안식물대를 포함하면서 침엽수림대가 분포하는 올레코스(1, 2, 4, 6, 7, 8, 9, 10, 11, 12, 14, 15, 18-1)에서는 침엽수림대를 주요 요소로 인지하여 침엽수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7코스(외돌개-월평 올레)를 대표 코스로, 초지대·해안식물대를 포함하면서 수림대(낙엽활엽수림)가 분포하는 올레코스(4, 14, 15, 18-1)에서는 낙엽활엽수림대를 주요 요소로 인지하여 18-1코스(추자도 올레)를 대표 코스로, 해안식물대가 없이 초지대와 수림대(상록활엽수림)를 포함하는 올레코스(7-1, 14-1, 15)에서는 상록활엽수림대가 분포하는 곶자왈을 주요 요소로 인지하여 14-1코스(저지-무릉 올레)를 대표 코스로, 해안식물대가 주를 이루거나 해안식물대와 수림대가 분포하는 올레코스(7-1, 13, 16)에서는 해안식물대와 수림대를 주요 요소로 인지하여 13코스(용수-저지 올레)를 대표 코스로 추출하였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1 유형별 코스 특징

3.1.1 : 1코스

시흥에서 광치기 해안까지 개발된 올레 1코스의 생태적 요소는 습지, 초지대, 해안식물대 그리고 침엽수림대로 특징 지워 진다. 습지의 경우 약 670m, 초지대는 약 842m, 해안식물대는 약 4,812m 그리고 침엽수림대는 742m로 나타났다. 1코스는 주로 해안가를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안식물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침엽수림대의 경우는 두산봉에 식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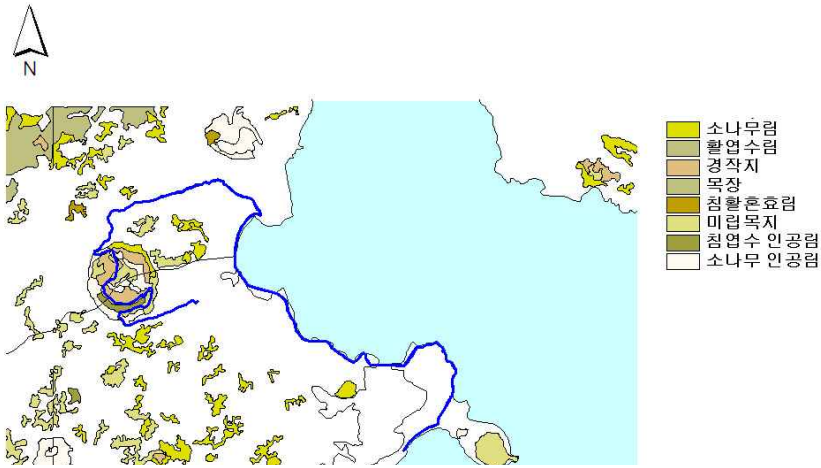


그림 2-8. 1코스의 식생도



그림 2-9. 1코스의 생태환경적 요소 사진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1.2 : 7코스

외돌개에서 월평까지 개발된 올레 7코스의 생태적 요소는 초지대, 해안식물대, 상록활엽수림대 그리고 침엽수림대로 특징 지워 진다. 초지대의 경우 약 342m, 해안식물대의 경우 약 4,802m, 상록활엽수림대의 경우 약 1,064m, 침엽수림대의 경우 약 891m로 나타났다. 7코스 역시 1코스와 마찬가지로 해안가를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안식물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록활엽수림대를 지나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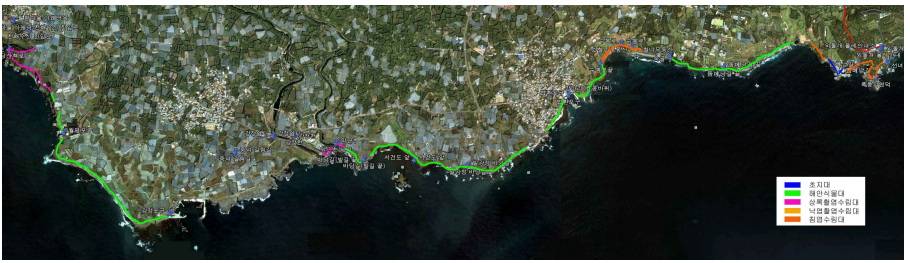


그림 2-10. 7코스의 식생도



그림 2-11. 7코스의 생태환경적 요소 사진

3.1.3 : 13코스

용수에서 저지까지 개발된 올레 13코스의 생태적 요소는 습지, 상록활엽수림대, 낙엽활엽수림대, 그리고 침엽수림대로 특징 지워 진다. 습지의 경우 약 623m, 상록활엽수림대의 경우 약 83m, 낙엽활엽수림대의 경우 약 387m, 침엽수림대의 경우 약 1,696m로 나타났다. 13코스는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1코스나 7코스와는 달리 해안가에서 중산간 지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침엽수림대와 낙엽활엽수림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습지대를 지나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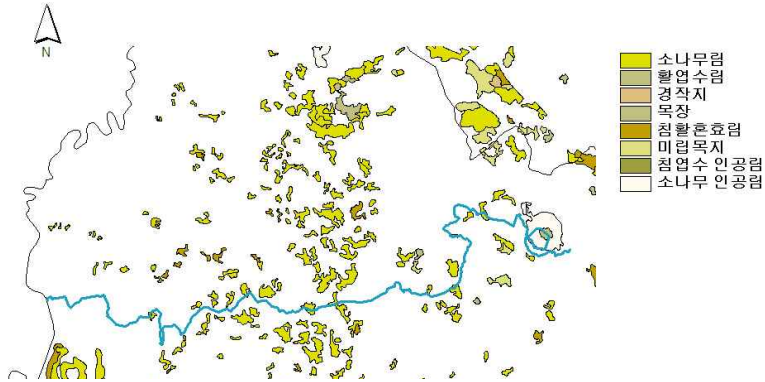


그림 2-12. 13코스의 식생도



그림 2-13. 13코스의 생태환경적 요소 사진

3.1.4 14-1코스

저지에서 무릉까지 개발된 올레 14-1코스의 생태적 요소는 초지대, 상록활엽수림대, 낙엽활엽수림대 그리고 침엽수림대로 특징 지워 진다. 초지대의 경우 약 383m, 상록활엽수림대의 경우 약 7,485m, 낙엽활엽수림대의 경우 약 493m, 침엽수림대의 경우 약 2,529m로 나타났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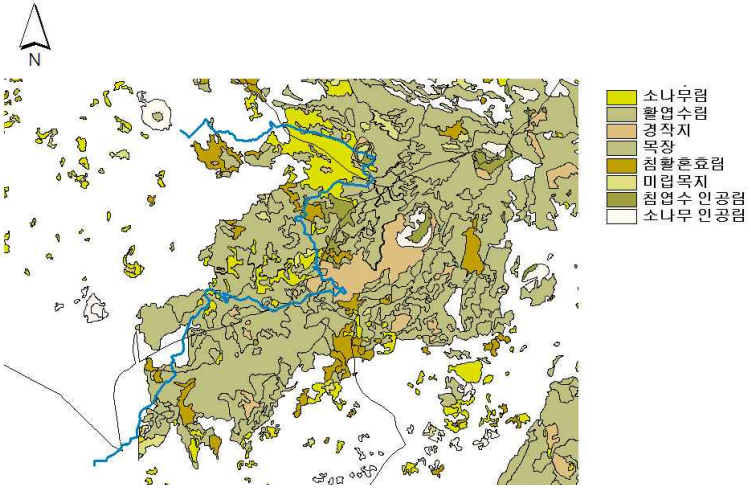


그림 2-14. 14-1코스의 식생도



그림 2-15. 14-1코스의 생태환경적 요소 사진

14-1코스는 13코스와는 달리 중산간에서 해안가로 개발된 코스이며 제주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7,485m의 상록활엽수림대를 거쳐 지나가게 되며, 침엽수림대와 낙엽활엽수림대를 지나가기도 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1.5. 18-1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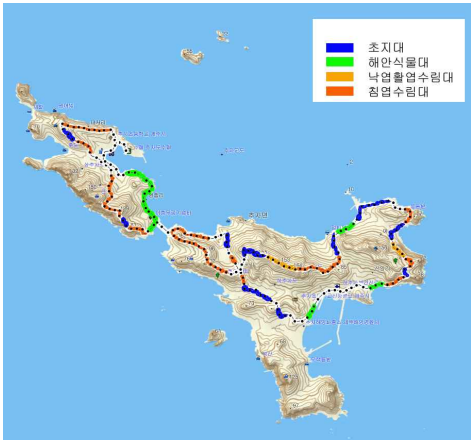


그림 2-16. 18-1코스의 식생도

추자도를 일주하도록 개발된 올레 18-1코스의 생태적 요소는 초지대, 해안식물대대, 낙엽활엽수림대 그리고 침엽수림대로 특징 지워 진다. 초지대의 경우 약 2,887m, 해안식물대의 경우 약 1,746m, 낙엽활엽수림대의 경우 약 1,658m, 침엽수림대의 경우 약 5,037m로 나타났다. 18-1코스는 자그마한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침엽수림대와 낙엽활엽수림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초지대와 해안식물대를 지나가기도 한다.

3.2 코스 유형별 종합평가

3.2.1 : 1코스

시흥에서 광치기 해안까지 개발된 올레 1코스는 오름-바당 코스이다. 1코스의 생태적 요소 중 종달리 소금밭의 습지는 약 670m, 초지대는 약 842m, 종달리 바당길과 수마포해안에서 광치기 해안에 이어지는 해안식물대는 약 4,812m 그리고 말미오름(두산봉)에 식재된 침엽수림대는 742m로 나타났다. 1코스의 전체 거리 15,000m 중 생태요소 통과 거리는 7,066m로 생태요소 통과율이 47.1%로 해안식물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1코스에서 올레꾼들이 해안식물대를 주로 통과하고 있으나 해안식물대의 특성을 잘 관찰하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종달리 바당길과 수마포해안에서 광치기 해변으로 이어지는 코스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표 2-10. 1코스(시흥-광치기 올레)의 생태적 요소 및 생태요소 통과율

거리 (m)	생태적 요소(거리, m)						생태요소 통과거리	생태요소 통과율(%)
	습지	초지대	해안 식물대	상록활엽수 림대	낙엽활엽수 림대	침엽 수림대		
15,000	670	842	4,812			742	7,066	47.1

3.2.2 : 7코스

외돌개에서 월평까지 개발된 올레 7코스는 바다코스이다. 7코스의 생태적 요소 중 초지대는 약 342m, 일강정 바당올레가 이어지는 해안식물대의 경우 약 4802m, 자연생태길인 수봉로와 강정천이 있는 상록활엽수림대의 경우 약 1064m, 침엽수림대의 경우 약 891m로 나타났다. 7코스 전체 거리 16,400m중 생태요소 통과 거리는 7,103m로 생태요소 통과율은 43.3%이다. 7코스 역시 1코스와 마찬가지로 해안가를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안식물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록활엽수림대를 지나가기도 한다.

표 2-11. 7코스(외돌개-월평 올레)의 생태적 요소 및 생태요소 통과율

거리 (m)	생태적 요소(거리, m)						생태요소 통과거리	생태요소 통과율(%)
	습지	초지대	해안 식물대	상록활엽수 림대	낙엽활엽수 림대	침엽 수림대		
16,400		342	4,806	1,064		891	7,103	43.3

3.2.3 : 13코스

용수에서 저지까지 개발된 올레 13코스는 중산간 코스이다. 13코스의 생태적 요소 중 용수저수지 주변의 습지는 약 623m, 상록활엽수림대는 약 83m, 낙엽활엽수림대는 약 387m, 침엽수림대는 약 1696m로 나타났다. 13코스 전체 15,300m 중 생태요소 통과거리는 2,789m로 생태요소 통과율이 18.2%로 매우 낮게 통과하고 있다. 13코스는 1코스나 7코스와는 달리 해안가에서 중산간 지대로 개발되면서 제13 공수특전사 병사들의 도움을 얻어 복원된 숲길을 만들었으나 13코스가 지나가는 지역은 대부분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은 숲길을 지나며 대부분 밭길과 잣길을 지나가게 된다. 중산간 코스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 개의 숲길을 복원하면서 유도하고 있으나 생태요소 통과율이 올레 코스 전체 중 가장 낮은 18.2%이기 때문에 생태적 요소를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옛 숲길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12. 13코스(용수-저지 올레)의 생태적 요소 및 생태요소 통과율

거리 (m)	생태적 요소(거리, m)						생태요소 통과거리	생태요소 통과율(%)
	습지	초지대	해안 식물대	상록활엽수 림대	낙엽활엽수 림대	침엽 수림대		
15,300	623			83	387	1,696	2,789	18.2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2.4 : 14-1코스

저지에서 무릉까지 개발된 올레 14-1코스는 내륙코스이다. 14-1코스의 생태적 요소 중 초지대는 약 383m, 상록활엽수림는 약 7485m, 낙엽활엽수림대는 약 493m, 침엽수림대는 약 2529m로 나타났다. 14-1코스 전체 중 생태요소 통과거리는 10,890m로 생태요소 통과율이 62.2%로 곶자왈 숲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체 올레 중 생태요소 통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4-1코스는 13코스와는 달리 중산간 내륙으로 개발된 코스이며 제주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을 지나기 때문에 7485m의 상록활엽수림대를 거쳐 지나가게 되며, 침엽수림대와 낙엽활엽수림대를 지나가기도 한다. 곶자왈을 지나는 코스가 너무 길뿐만 아니라 올레꾼들의 안전상 문제로 곶자왈을 통과하는 거리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어 진다.

표 2-13. 14-1코스(저지-무릉 올레)의 생태적 요소 및 생태요소 통과율

거리 (m)	생태적 요소(거리, m)						생태요소 통과거리	생태요소 통과율(%)
	습지	초지대	해안 식물대	상록활엽수림대	낙엽활엽수림대	침엽 수림대		
17,500		383		7,485	493	2,529	10,890	62.2

3.2.5 : 18-1코스

추자도를 일주하도록 개발된 올레 18-1코스는 섬 코스이다. 18-1코스의 생태적 요소 중 초지대는 약 2887m, 해안식물대는 약 1746m, 낙엽활엽수림대는 약 1658m, 침엽수림대는 약 5037m로 나타났다. 18-1코스 전체 17.700m 중 생태요소 통과거리는 11,328m로 생태요소 통과율은 64%이다. 18-1코스는 상추자와 하추자를 잇는 봉우리를 넘고 또 넘는 특징 때문에 침엽수림대와 낙엽활엽수림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초지대와 해안식물대를 지나가기도 한다. 섬중의 섬이라는 특성과 맞물려 18-1코스의 경우, 상추자와 하추자를 분리하고 코스를 다양화한 후 2개의 코스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표 2-14. 18-1 코스(추자도 올레)의 생태적 요소 및 생태요소 통과율

거리 (m)	생태적 요소(거리, m)						생태요소 통과거리	생태요소 통과율(%)
	습지	초지대	해안 식물대	상록활엽수림대	낙엽활엽수림대	침엽 수림대		
17,700		2,887	1,746		1,658	5,037	11,328	64.0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4 코스 유형별 물리적 특징

코스 유형별 물리적 특징 분석은 현장답사를 통한 파악과 아울러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주변의 현황, 지형적 조건, 경사도, 지형 단면도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4.1 1코스

마을과 오름, 해안으로 연결되는 1코스는 다양한 풍경을 만들어 내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면서도 가파른 경사지형과 약간의 경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평탄한 지형에는 바다와 인접해 있고 성산일출봉의 풍경을 즐길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지형을 갖는 곳은 오름 부분과 성산일출봉 부근 지역이며 그 외 지역은 평탄하여 보행하기 쉬운 코스라 할 수 있다.

평탄한 지역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오름 지역의 25°이상의 상당히 가파른 경사지역에서는 경사면 훼손, 보행길 확장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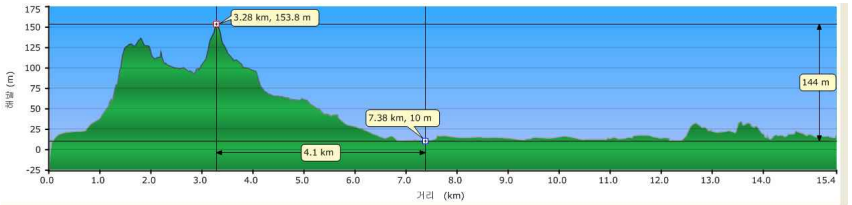


그림 2-17. 지형단면도(GIS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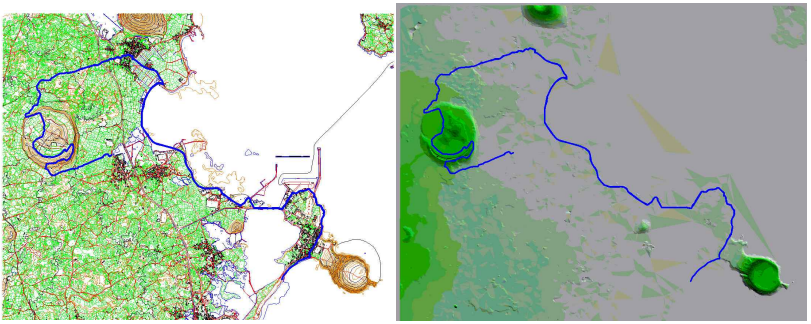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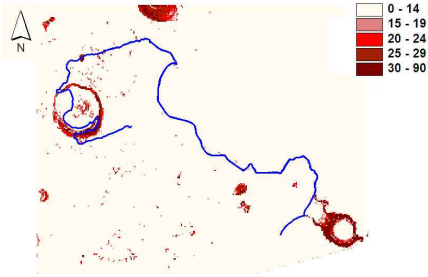


그림 2-18. Arc GIS를 이용한 3D지형분석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경사도	길이(m)	비고
0-14°	14,585	
15-19°	0	
20-24°	240	
25-29°	680	
30° 이상	95	

그림 2-19. Arc GIS를 이용한 경사도 분석

4.2 7코스

코스의 구간에 따라 경사 정도가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7코스는 코스 전체가 14°미만의 경사도를 갖는 지역으로 완만하지만 약간의 오름과 내림이 이어지는 경사를 갖는 지형이며 특히 제주 특유의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코스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방문자가 방문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많은 방문자로 인해 기개설된 평탄한 길 옆으로 보행하여 길의 폭이 확장되거나 이외의 보행으로 인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방문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에서 임의로 설치한 각종 안내표시판, 목재데크의 설치 등으로 인해 시각적 물리적 환경훼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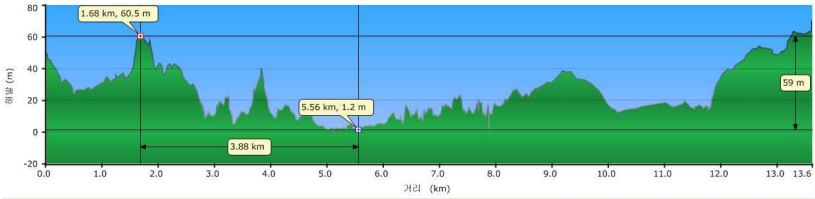


그림 2-20. 지형단면도(GIS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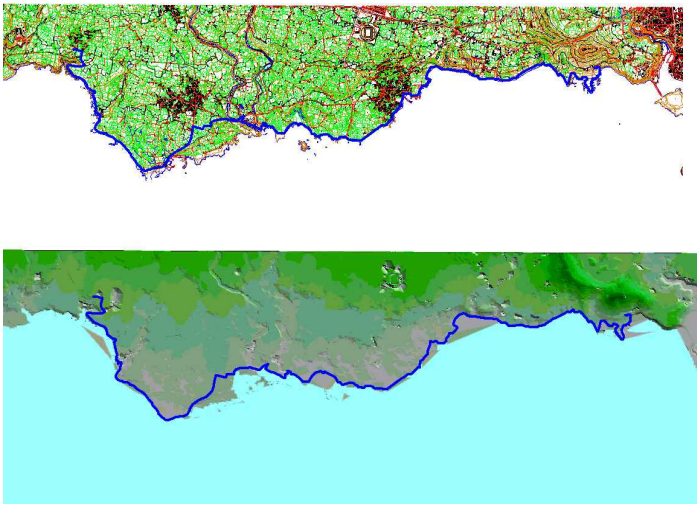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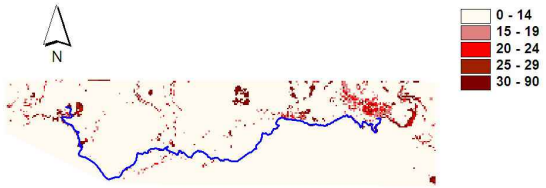


그림 2-21. Arc GIS를 이용한 3D지형분석



경사도	길이(m)	비고
0-14°	13,800	
15-19°	0	
20-24°	0	
25-29°	0	
30° 이상	0	

그림 2-22. Arc GIS를 이용한 경사도 분석

4.3 13코스

다른 코스와 달리 13코스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코스의 특성상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도 내륙으로 갈수록 경사도가 높아지는 지형적인 조건을 갖는 코스이다.



그림 2-23. 지형단면도(GIS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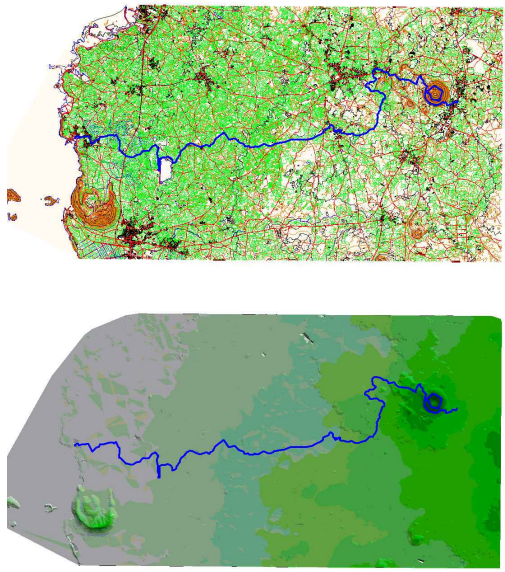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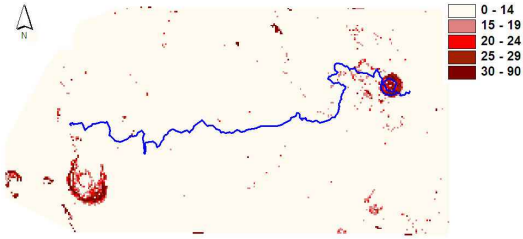


그림 2-24. Arc GIS를 이용한 3D지형분석

평탄한 지형을 따라 걷는 코스에는 넓게 펼쳐지는 자연숲과 생산녹지가 있어서 주변 바다와 한라산의 원풍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경사도	길이(m)	비고
0-14°	14,619	
15-19°	0	
20-24°	1,185	
25-29°	596	
30° 이상	0	

그림 2-25. Arc GIS를 이용한 경사도분석

4.4 14-1코스

내륙으로 이어지는 코스인 14-1코스는 거의 대부분이 곶자왈 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완만한 경사도를 갖고 있으나 코스의 중간 구간 부분에 다소 급한 경사지를 갖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다. 이 지역에는 오설록 뮤지엄과 저지 현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관광시설이 있어 향후 방문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해 곶자왈을 지나는 코스이기 때문에 환경훼손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림 2-26. 지형단면도(GIS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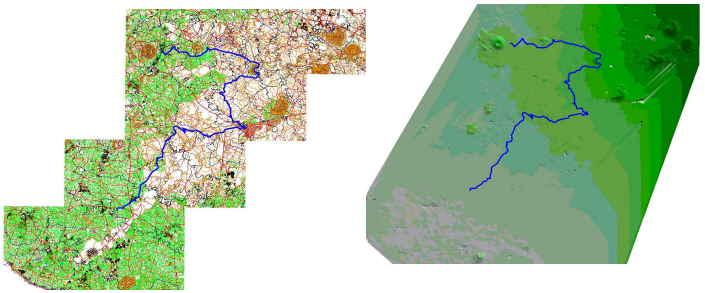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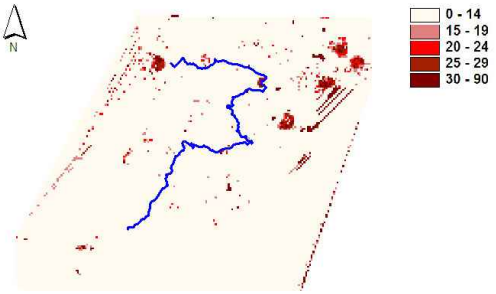


그림 2-27. Arc GIS를 이용한 3D지형분석



경사도	길이(m)	비고
0-14°	18,455	
15-19°	0	
20-24°	345	
25-29°	0	
30° 이상	0	

그림 2-28. Arc GIS를 이용한 경사도분석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4.5 18-1코스

18-1코스는 추자도의 지형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코스로 평가된다. 거의 모든 구간에 있어서 경사가 비교적 급한 경사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 이상 급경사 지역도 상당 구간 있는 코스이다. 현재 제한적인 방문자로 인하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급경사지에서의 토사유출 방지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림 2-29. 지형단면도(GIS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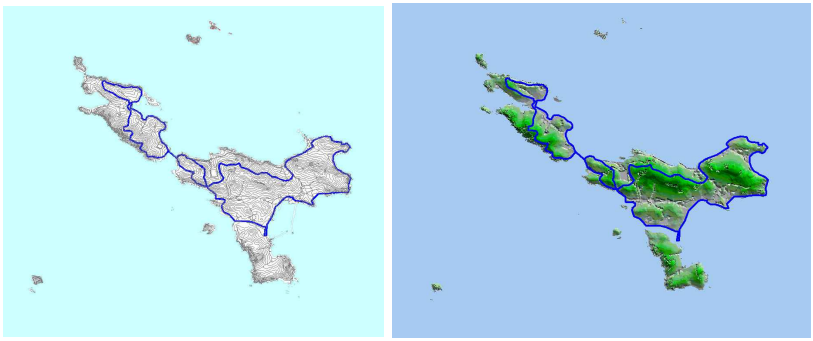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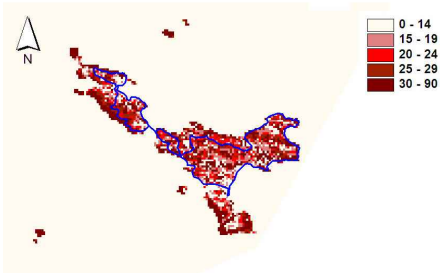


그림 2-30. Arc GIS를 이용한 3D지형 분석



경사도	길이(m)	비고
0-14°	9,578	
15-19°	1,148	
20-24°	3,667	
25-29°	2,638	
30° 이상	3,969	

그림 2-31. Arc GIS를 이용한 경사도 분석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5. 종합 평가 및 시사점

5.1 1코스

말미오름 올라가는 길은 타이어벨트가 설치되어 미끄러지고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미관상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알오름 오르고 내리는 길은 자연 상태로 있다 보니 무너지고 풀이 죽어 구간을 옆으로 비껴 내고, 복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리에서 말미오름 가는 길은 외길의 농로로서 차량과 올레꾼이 함께 이용하고 있고 관광버스들이 올 경우 농민들을 방해하고 걷는 이들을 방해하여 개선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1코스는 서귀포 시흥리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가 만나는 구간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구좌읍 청년회에서 별도 올레 사인물과 벤치 등을 설치하고 성산읍에서 뷰포인트와 간이 쉼터가 설치되어 사인물과 벤치 등이 혼재해 있는 상태로서 길의 아이덴티티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코스 후반부는 약 4km 구간이 해안 도로. 지루하고 차량 통행과 겹쳐 안전성이 떨어져 대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마포 해변-광치기 해변까지의 길에 어떤 루트로 길을 내는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식당, 숙소, 휴게소 등 마을 편의시설이 우후죽순 늘면서 코스의 경관을 해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2-32. 탐방로의 보행안전성



그림 2-33. 탐방로 훼손



그림 2-34. 목장문(3코스 목장 사례)



그림 2-35. 보행 어려운 길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5.2 7코스

7코스는 전형적인 해안 코스로서 제주올레 길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길의 특성을 함축한 '표본 코스'나 마찬가지다. 나무계단, 흙길, 돌길, 바위길, 시멘트 길이 고루 퍼져 있는 코스이다. 가장 인기 있는 코스여서 항상 많은 사람들로 인해 차분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람이 많다 보니 노점도 계속 늘고 있고, 코스 따라 새로운 점포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현실이다.

새로운 점포들이 대부분 '올레 쉼팡'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제주올레 공식 휴게소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제주올레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이들 노점과 새로운 점포들이 경관을 해치기도 하고, 문화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지나치게 붐비다보니 흙길은 넓어지기도 한다. 7코스 수봉로는 처음 개설 당시 한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오솔길이었으나 지금은 2~3배가 넓어진 상태이다. 길이 넓어짐으로써 애당초 지향했던 경관미(좁은 오솔길)가 없어졌다. 좁은 소로일 경우 안전선을 만들어 정해진 루트로만 걷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코스 돔베낭길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속골 바당길의 경우, 2010년 8월 새로 개척한 루트. 서귀포여고로 이어지는 차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다. 해안으로 바로 낸 길이어서 풍광이 좋고 돌길이어서 제주올레 성격에도 잘 맞는다. 문제는 만조시 큰 태풍이 불면 길이 유실되어서 복구 기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올레개설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차로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길을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환포구 지나서 만나는 일강정 바당올레 길도 비슷한 성격이다. 가을 만조 때는 아예 통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서 차로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만조시 우회로 통과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풍림리조트 직전 악근천 다리는 풍림에서 올레꾼을 위해 설치했으며 만조 때마다 차로로 우회했었는데, 이 다리 생기고 나서 안정된 루트가 확보되었다.



그림 2-36. 과도한 안내물과 사인물, 그리고 올레 길을 따라 흘러내린 토사물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림 2-37. 보행성과 안전성 등 기준 없이 설치된 다리

5.3 13코스

전형적인 중산간 코스로서 마을과 들길, 크고 작은 곶자왈을 지나는 코스이며 시점과 종점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올레꾼들은 주로 일주도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13코스 시작점인 용수포구와 종점 저지리 마을회관은 일주도로 버스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작점은 일주도로 버스 정거장에서 20분 가량 걸어가면 만날 수 있으나 종점인 저지리 마을회관은 아예 다른 지선 버스를 타고 일주도로 변으로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10].

코스 여행 중 만나는 마을은 낙천리뿐이어서 점심 먹을 곳이 이 곳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음. 숲길과 들길이 많아서 길의 상태는 좋은 편으로 평가되며 마지막에 만나는 저지오름도 좁은 소로의 멋진 오솔길로 만들어진 탐방로가 기조성되어 있다. 저지오름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는데, 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5.4 14-1코스

저지리 마을회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점 접근을 대중교통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지역조건을 갖고 있으며 초반 문도지 오름의 경우 사유지여서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유지 주인을 어렵게 설득해서 문도지 오름으로 루트를 만들었으나, 방문이 많아지자 소유자에 의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루트대로 걷지 않고 오름 전역으로 사람들이 퍼져 걷기 때문에 크고 작은 길들이 만들어지고 비 오는 날 통행으로 인해 흙이 무너지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1코스 알오름처럼 오름 흙길 구간의 답압 훼손 문제에 대한 해결이 주요 검토사항 중의 하나이다.

10) 이 문제에 대하여 (사)올레에서 도청 교통정책과에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했으나 아직은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점심 먹을 곳이 거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시작점과 종점에만 마을이 있고 중간 경유지인 오설록 뮤지엄에서는 곧 샌드위치나 간단한 점심 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곶자왈로 이어진 코스여서 현재 수용인원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추후 방문객이 많아지게 되면 답압 훼손 우려 지역이 적잖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수봉로처럼 길이 넓어질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곶자왈 지역이 많아서 휴대폰이 잘 연결되지 않아 길을 잃었을 경우 대응하기 용이하도록 사인물을 보다 꼼꼼하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코스로 평가된다.

5.5 18-1코스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통편의 한계가 있으며 섬이기 때문에 바다만 보고 걸을 것이라는 편견을 뒤집고 섬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길이 조성되었다. 섬 올레 길의 새로운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연과 경관을 살린 길이어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편의 공간이 부족하며 상추자항을 제외하면 밥 먹을 곳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코스 개설 후 예초리에 멍게비빔밥 집이 생겨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올레길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산 내려가는 길의 안전성과 경관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여 흙이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미끄러워 개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예초리 기정길은 경관 면에서 최고의 길로 평가되지만 안전밧줄은 줄 하나만 놓은 상태여서 안전 밧줄에 대한 고민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38. 심한 절벽에 조성된 올레 숲길의 안전시설 부재



그림 2-39. 정상부근에서의 부조화스러운 시설물과 안전시설 부재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 3 장 올레꾼의 평가 및 요구 분석

1 설문조사방법 및 내용 ·····
2 조사자의 속성 및 여행 행태 특징 ·····
3 인문사회 측면에서의 평가 ·····
4 물리적 측면에서의 평가 ·····
5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3장 올레꾼의 평가 및 요구 분석

1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개설된 제주올레를 방문하는 이용자로 통칭되는 올레꾼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제주올레를 어떻게 평가하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 분석과 함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즉 이용자의 입장에서 올레를 방문하는 목적을 파악할 수 있고 올레를 거닐며 느꼈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등 이용자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생태문화로 조성의 접근방법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용자에 대한 의식조사는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설문조사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올레꾼이 머무는 숙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행형태 및 비용
2) 올레꾼들의 올레 이용실태
3) 올레코스의 평가
4) 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0일~24일까지 총 2주간 실시되었으며 총 1,300부를 배포하여 유효설문지 1,089부를 회수(회수율 83.8%)였으며 통계분석은 범용프로그램인 SPSS-win12.0을 사용하였다.

2 조사자 속성 및 여행 행태 특징

2.1 조사자의 속성

조사에 응한 올레꾼의 연령은 20대가 36.1%, 30대가 28.5%로 비교적 젊은 연령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력의 경우 대학졸업자가 59%를 차지하고 있고 직업은 공무원/회사원이 29%, 전문/관리직 1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의 경우 서울 거주자가 35.1%, 경기도 거주자가 22.2%, 경사도 거주자가 21.8%로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표 3-1. 올레꾼의 속성

항목	내용	빈도(n)	비율(%)
성별	여자	659	60.6
	남자	429	39.4
연령	20세이하	43	3.9
	21-30세	393	36.1
	31-40세	310	28.5
	41-50세	218	20.0
	51-60세	109	10.0
	60세이상	16	1.5
학력	고졸이하	113	10.7
	대학재학	153	14.5
	대학졸업	622	59.0
	대학원(졸업)	167	15.8
직업	공무원/회사원	315	29.0
	서비스업	91	8.4
	사업/자영업	79	7.3
	주부	94	8.7
	학생	198	18.2
	전문/관리직	194	17.9
	기타	115	10.6
거주지	서울	382	35.1
	경기도	241	22.2
	강원도	18	1.7
	충청도	46	4.2
	경상도	237	21.8
	전라도	64	5.9
	제주도	68	6.3
	기타지역	31	2.9

2.2 여행 형태

그림 3-1과 3-2와 같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올레 여행을 하는 이들이 절반 이상이지만, 혼자 여행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많다. 30.4%가 혼자 여행을 왔고 한 명 또는 단 둘이 하는 여행의 비율을 합하면 77.9%에 이른다. 이는 걷기 여행이 명상 여행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고자 올레 여행을 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보 여행 길인 스페인 산티아고를 찾는 여행자들이 산티아고 길을 '순례자의 길' '명상의 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제주올레도 도보 여행 마니아들에게는 풍광이 아름다운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명상과 순례를 위한 길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또, 제주올레는 열명 중 여섯 명 가량이 여성 올레꾼이 찾는다. 이는 여성 혼자 여행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제주올레가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안전한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감성으로 만들어진 여성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 풍광이 아름다운 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비교적 편안한 길이라는 인식이 여성들의 여행지로 각광받는 비결로 분석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올레길은 인생의 동반자(가장 친한 연인 혹은 벗) 그리고 가족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사랑과 우정과 가족애를 다지는 길이다. 함께 길을 걸으며 그 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택하는 길이다. 즉 올레 길은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길이다.

그리고 올레길은 순례의 길이다. 혼자 이 길을 걸으면서 바쁜 일상을 벗어난 자유를 만끽한다거나, 복잡한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수한 인생의 질문을 던지면서 사색하는 길이기도 하다. 스페인의 산티아고가 순례길이었듯이 제주올레 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순례 코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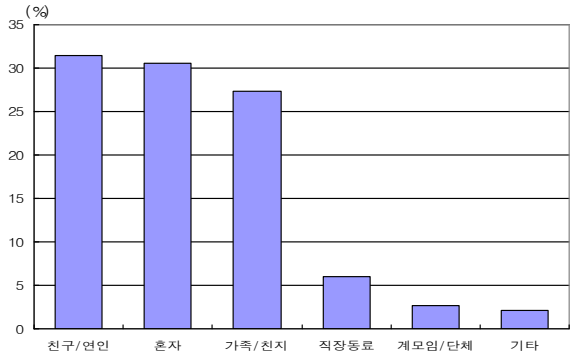


그림 3-1. 함께 여행하는 상대(n=1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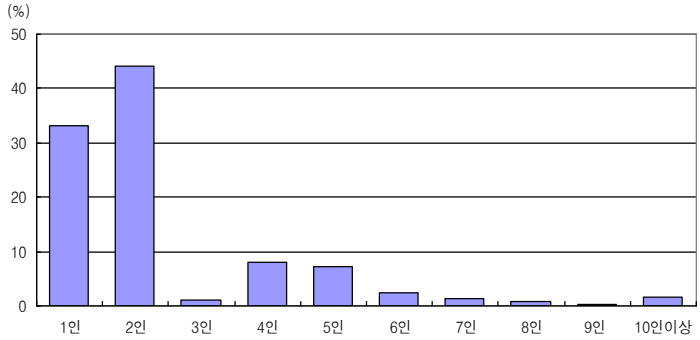


그림 3-2. 여행자수(본인포함)(n=1083)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2.1.1 올레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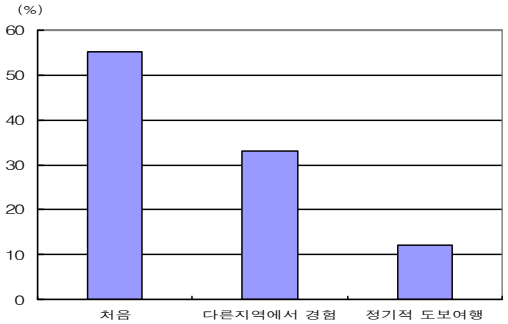


그림 3-3. 올레와 유사한 탐방길 경험여부(n=1086)

그림 3-3과 같이 올레꾼의 54.6%는 제주올레 여행이 처음이지만, 나머지 절반가량은 도보 여행 유경험 또는 매니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 몇 번 다른 지역에서 도보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가 33.9%, 정기적으로 도보 여행을 하는 이가 11.6%에 이른다. 이는 도보 여행이 대중적인 여행 형태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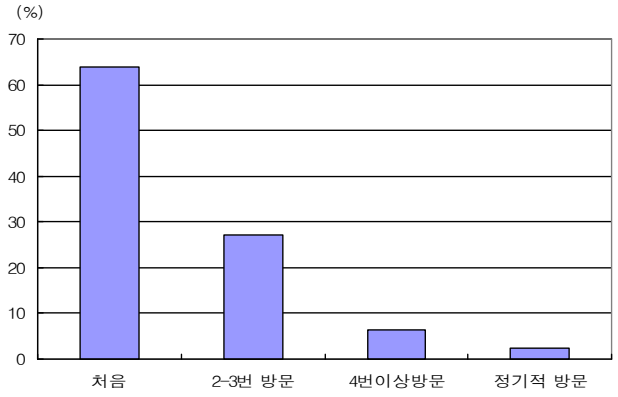


그림 3-4. 제주올레경험여부(n=1082)

올레꾼의 63.3%는 제주올레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지만, 약 40%는 제주올레를 두 번 이상 방문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그림 3-4로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올레가 한번 오고 말 여행지가 아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니라 자꾸 오고 싶은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고, 코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코스를 돌아보고자 하는 이가 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2.1.3 체류기간 및 소요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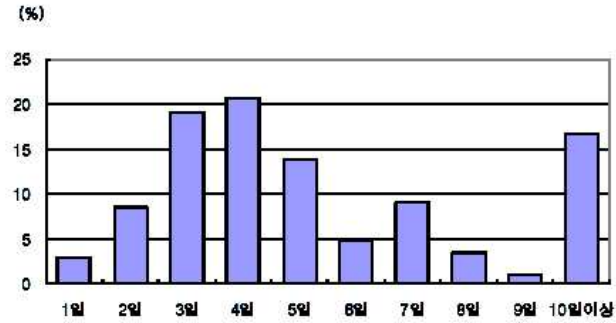


그림 3-5. 체류일(n=1052)

올레 꾼의 54.5%은 3일~5일 정도 제주에 체류하며, 32.1%는 7일 이상 제주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올레꾼들은 평균 6.2일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도가 2박3일의 여행지로 인식되던 것에서 장기 체류 여행지로 바뀌고 있고, 특히 제주올레 탐방을 위해 체류일을 연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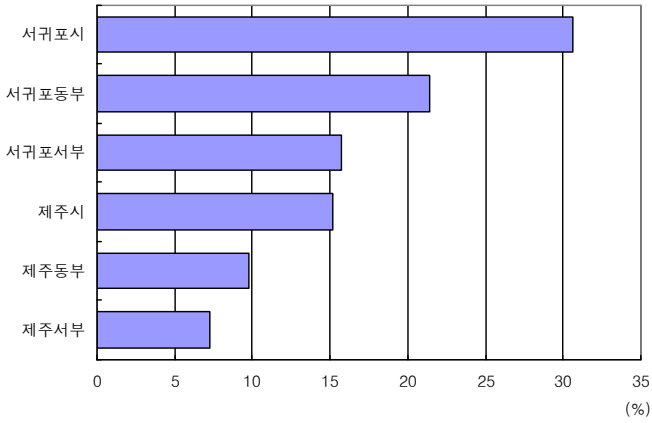


그림 3-6. 체류장소(복수응답, n=1905)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올레 꾼 대다수는 제주시 지역보다 서귀포시 지역에 주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 올레꾼의 88.6%가 서귀포시 지역 숙박 경험이 있고, 제주시 지역 숙박 경험이 있는 올레꾼은 전체 올레꾼의 42%가 채 안 된다. 이는 제주올레 코스가 현재 서귀포시 지역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과 밀접하다. 제주올레 패스포트가 서귀포시 권역 코스에서만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1코스~12코스), 제주올레 여행 초보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1, 7, 10코스 등)가 모두 서귀포시 권역에 있는 까닭이다. 코스의 활성화가 여행자들의 체류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레꾼은 주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 이는 물론 설문조사를 올레꾼이 주로 묵는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한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혼자 또는 둘이 장기 체류 여행을 하는 올레여행 패턴 상 전체 여행 경비 중 숙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행 경비 절약을 위해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제주올레 길 주변의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는 이미 도보여행자 문화가 정착되어 숙소에서 만난 올레꾼들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우정을 쌓는 문화가 일상적이다. 여행자들은 길을 즐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숙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제주올레 여행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올레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코스에 있는 둥지황토 민박의 경우 비수기에는 하루 평균 100명~150명의 올레꾼이 머물며, 서귀포 시내에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한 민중각 모텔이나 남국호텔의 경우 비수기에도 예약이 꽉 차는 수준이다. 이들 모텔은 하루 수용인원이 50~60명 가량 되는데, 한 달 뒤까지 예약이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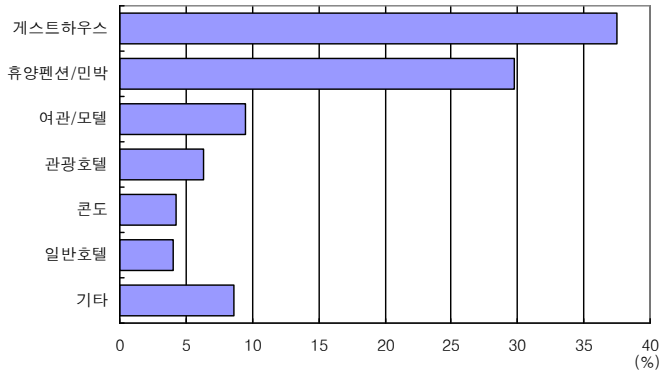


그림 3-7. 숙박 장소(복수응답, n=1439)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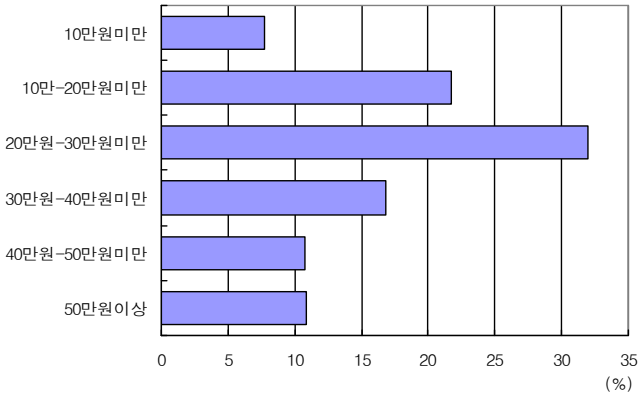


그림 3-8. 소요경비(n=1063)

올레꾼은 항공료와 승선료를 제외하고, 제주올레 여행 중 먹고, 자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20~30만원 정도의 비용 지불이 32%로 가장 높고 다음이 10~20만원이 21.7%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3-7).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비교적 숙박료가 싼 곳에서 자고 먹고 이동하고 특산물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치고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 그러나 평균 6일 정도 체류하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30만원 사용을 전제로 계산할 경우 1일 평균 4~5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이들 금액은 1일 지출 금액으로 볼 때 적절한 금액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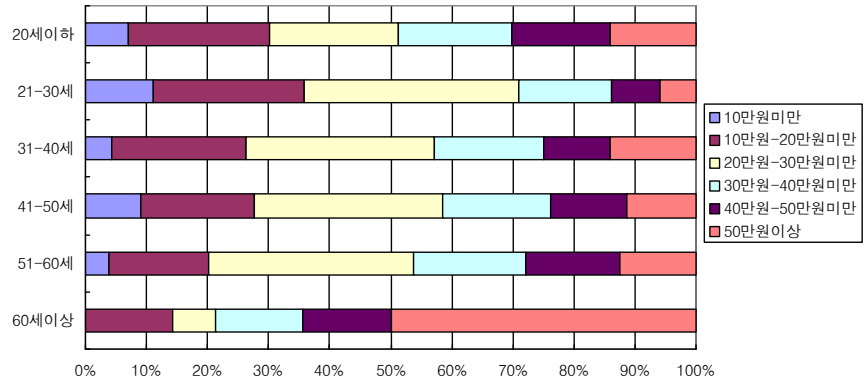


그림 3-9. 연령별 소요경비(P<0.00 df=25 χ2=63.9)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한편 연령별 소요 경비를 살펴보면(그림 3-9), 연령이 높을수록 소요 경비가 증가하고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50만원 이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이 높은 이용자들의 경우,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보다는 고급 호텔을 이용하고, 선물 구입(지역 특산물 택배 포함)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대의 경우 35.1%, 30대의 경우 30.9%가 20~30만원 정도를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4 올레 관련 자료 수집 및 안내 센터 방문 여부

올레꾼은 여행을 오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10). 특히 이들의 72.0%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의 추천을 받고 온 사람도 14.0%로 적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매체나 홍보책자, 관광안내 책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이는 적었다(그림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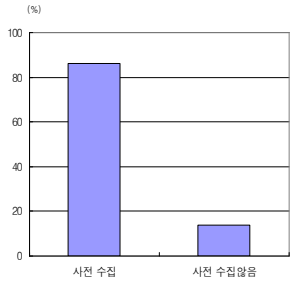


그림 3-10.
방문이전
올레정보수집여부(n=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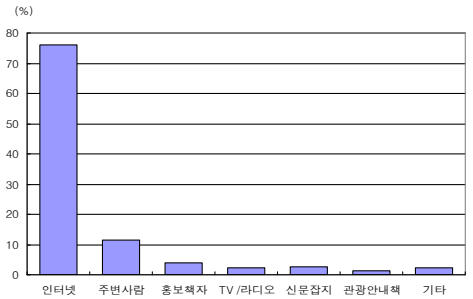


그림 3-11.
올레정보수집방법(n=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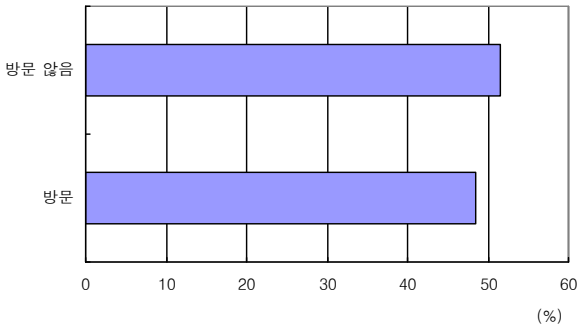


그림 3-12. 올레 길 탐방 전 안내센터 방문 여부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올레길을 탐방하기 이전에 안내 센터(공항 안내소 포함)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50% 약간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12). 이와 같은 현상은 제주올레 공항 안내소가 2010년 5월 18일 문을 열었지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안내소가 생긴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제주올레 여행은 여행 전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준비하는 여행으로 인식되고 있어 제주올레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주올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한 뒤에 여행 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1.5 이용교통수단 및 길동무의 필요성

올레꾼 69.5%는 제주올레 여행을 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를 참고해보면 일반 관광객과 달리 렌트카나 승용차를 이용해 제주올레를 여행하는 비율은 13.0%였다. 종일 걸어야 하는 여행 특성상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올레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CO_2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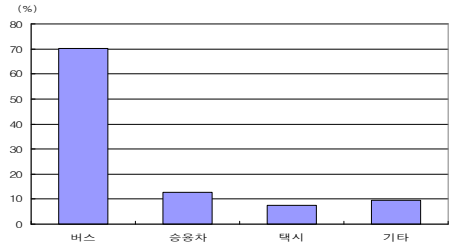


그림 3-13. 이용교통수단(n=1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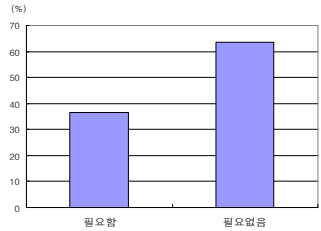


그림 3-14. 길동무(해설사)
필요유무(n=1080)

그림 3-14과 같이 올레꾼들은 단지 길을 걷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동무(자연환경문화 해설사)의 필요성을 적잖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대상이었던 개별 여행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스케줄을 계획하여 여행하는 이들이며, 이들 34.9%가 길동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있는 것은 앞으로 제주올레에서 길동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3 인문사회 측면에서의 평가

3.1 올레 개척 및 코스에 대한 평가

탐방과정을 통해 개설된 올레 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5개의 요소, 즉 자연적 요소, 경관적 요소, 문화/역사적 요소, 지역경제적 요소, 교육적 요소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각 요소별 내용은 표3-2와 같다.

표 3-2 올레 개척 상 중요시 하는 항목과 내용

요소	내용
자연적 요소	자연적 요소는 지형, 지세, 숲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 요소
경관[11]적 요소	환경이라는 실체의 개념보다는 관찰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경우에 보여지고 형성되어지는 心像 혹은 이미지(image)와 관련된 요소
문화/역사적 요소[12]	지역사회가 성장발전해 오는 과정속에 축착되어 온 결과물로서 당, 굿, 심방(무당), 포제, 본풀이, 역사유적: 고인돌, 선사유적, 몽고군 유적, 읍성, 환해장성, 봉수와 연대, 잣성(마목장) 등의 요소
지역경제적 요소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요소
교육적 요소	환경보존 혹은 마을주민과의 교류 등 직접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질수 있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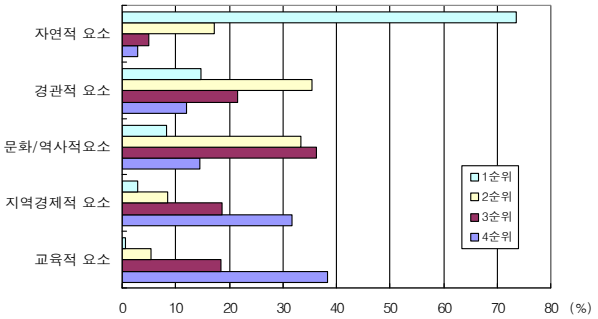


그림 3-15. 개척상의 중요순위(n=1059)

제주올레를 개척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림 3-14를 보면 자연적인 요소가 69.2%, 경관적 요소가 16.2%로 자연 경관측면이 85.4%이고, 문화역사적인 요소가 8.2%, 지역 경제적 요소

11) 김태일(2005), 제주건축의 맥, 제주대학교 출판부, p145
12) 제2장의 인문사회적 환경요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가 3.1로 나타나 자연 경관적인 요소가 제주올레 길 개척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개척 2순위에서는 경관적 요소가 33.2% 문화적 요소가 32.3%로 자연적 요소가 17.9%로 나타났으며, 개척 3순위에서는 문화 역사적인 요소가 34.9%로 가장 많고, 지역 경제적인 요소도 18.6%로 경관적인 요소 18.8%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요소도 17%로 다음 순위로 조사되었다.

3.2 생태계보존 및 영향

올레 길 조성이 제주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올레꾼의 52%가 생태계 보존에 '매우 도움이 됨' 혹은 '그런대로 도움이 됨'이라고 대답하였다(그림3-16). 그러나 25%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음' 혹은 '매우 도움이 안 됨'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레를 탐방한 경험 정도에 따라 개설된 올레의 생태계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올레 탐방정도에 따른 생태계에 대한 인식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었다(그림3-17).

'환경보존에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환경파괴를 부추겼는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제주올레 길이 제주의 자연과 더불어 걷는 목적과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사색의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민감한 자연의 속살을 밟고 걷는 길이라는 점에서 방문객들은 훼손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즉 제주올레 길 개발이 자연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24.9%는 길 개발이 제주 자연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올레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일부 오름이나 흙길이 손상되거나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방문자들의 지속적인 간섭이 이뤄지는 탐방로의 속성상 그 유형과 행태에 따라 훼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사실 이 질문에는 제주올레 길이 제주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합리적 개발의 대안인가를 묻고 답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제주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묻는 의미일 것이다.

올레길은 다양한 유형의 길이 만들어졌다. 숲길, 오름길, 해안길, 농로길, 잣길 등 그 길의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향후 올레길 조성과 관리 계획 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코스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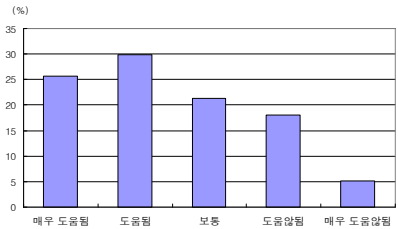


그림 3-16. 생태계보존에의 도움 여부(n=1078)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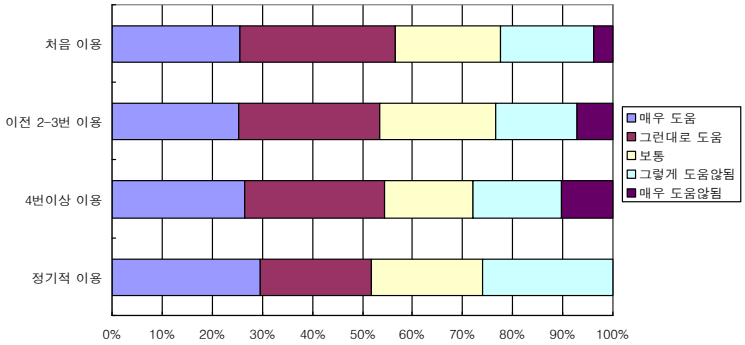


그림 3-17. 올레 경험 정도별 생태계 보존에 대한 도움 여부(P<0.298 df=12 χ2=14.039)

3.3 문화교류의 기능 및 개척상의 중요 요소

올레꾼의 88.6%은 그림 3-17과 같이 제주올레가 문화교류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레꾼들이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대중교통과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지역민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과 올레꾼, 올레꾼 끼리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지역 문화 및 여행 문화들이 교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의 속살을 보는 여행'이라는 제주올레의 슬로건과도 맞닿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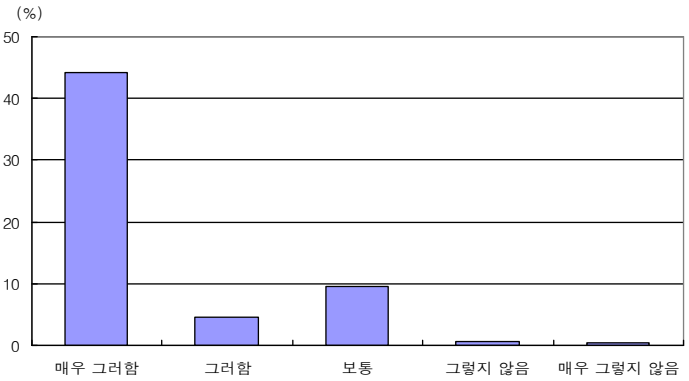


그림 3-17. 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n=1076)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4 선호 코스 평가

제주 올레 선호 순위[13]는 그림 3-1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해안 코스인 7코스(외돌개-월평 코스) 23.5%, 내륙-해안코스인 1코스(시흥-광치기 코스) 15.8%, 해안 코스인 10코스(화순-모슬포 코스) 10.1%로 조사 되어 해안 코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올레 길을 처음 찾는 이들은 풍광이 아름다운 해안 코스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7코스와 10코스를 선호한다. 특히 7코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설문조사에서 파악되었듯이 올레꾼들은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코스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그 과정에 난이도, 방문 후 평가 등을 고려하여 7코스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숙박 장소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14]. 그리고 7코스는 다른 코스와 달리 탐방과정 중에 이탈이 용이한 장소적 특성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또 1코스는 바다와 오름을 함께 볼 수 있는 코스이며 맨 처음 열린 제주올레 길이어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선호 코스는 내륙 코스인 2코스(광치기-온평 코스) 9.5%, 해안-내륙코스인 3코스(온평-표선 코스) 7.3%, 4코스(표선-남원 코스) 6.2%로 나타났다. 이 세 코스 모두 해안 코스라기보다는 중산간을 낀 코스여서 상대적으로 비선호 코스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산간 코스는 마을과 돌담, 귤밭, 오름 등을 볼 수 있는 호젓한 코스여서 명상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인기가 있으나, 단지 풍광을 즐기기 위해 제주올레를 걷는 이들에게는 인기가 덜한 편이다. 즉 2코스인 경우 내륙 코스로 여행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들과 밭길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3코스 4코스인 경우 해안-내륙 코스이긴 하나 난이도가 상으로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 같다. 특히 3, 4코스는 코스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코스여서(20㎞ 이상) 선호도가 덜한 편이다. 제주올레가 코스 길이를 20㎞ 이하로 개척하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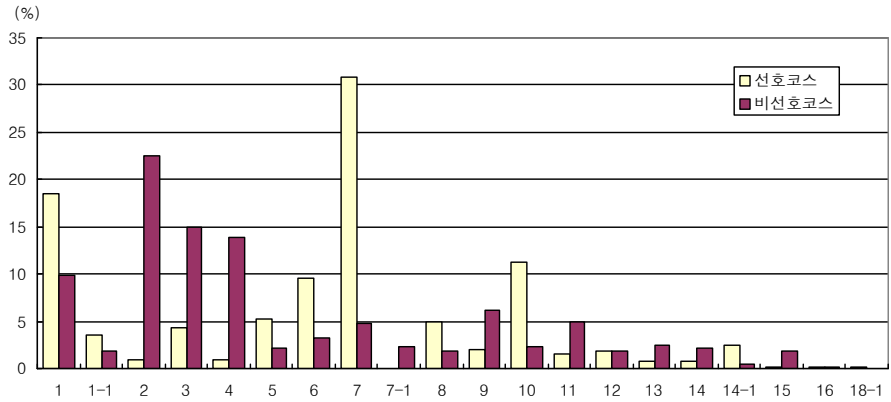


그림 3-18. 선호 및 비선호 코스(1순위 기준)(선호코스 n=886, 비선호코스 n=479)

13) 해석의 차이는 있겠으나 첫 번째 방문자의 경우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통해 선택한 올레코스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4) 본 설문조사에서도 올레꾼들의 숙박장소가 서귀포시 중심이었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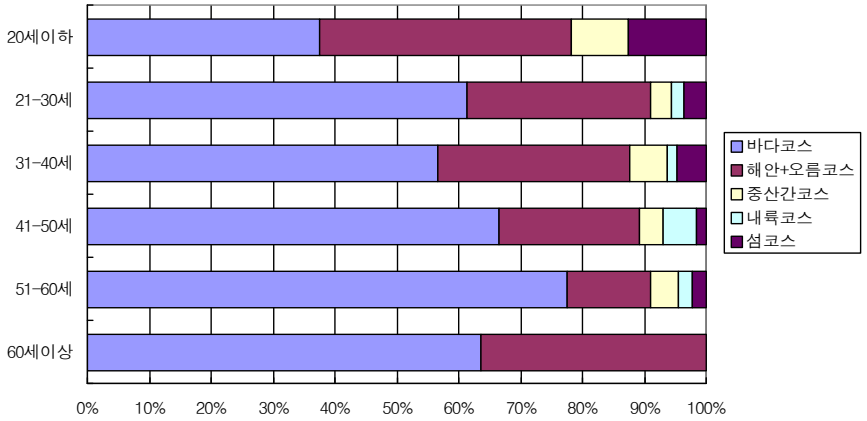


그림 3-19. 연령별 1순위 선호 코스 유형(P<0.002 df=20 χ2=43.906)

한편 연령별로 가장 선호하는 코스를 제2장에서 분류하였던 장소별 코스 유형으로 정리하여 연령별 차이를 파악하여 본 결과(그림 3-19), 전반적으로 바다코스를 선호하는 경향이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바다코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2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해안+오름코스와 중산간 코스를 선호하고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해안+오름 코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만족도 및 재방문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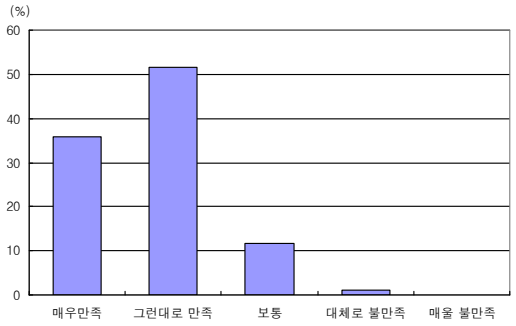


그림 3-20. 올레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n=1052)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올레꾼들의 올레 길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은 86.6%로 매우 높고 불만족의 비율은 1.1%에 불과하다(그림3-20). 한편 올레 경험 정도는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21). 즉 올레 경험 정도와 관계없이 올레꾼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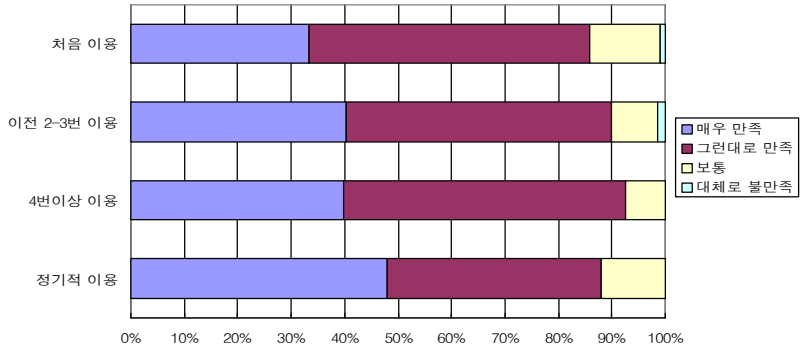


그림 3-21. 올레 경험 정도별 만족도(P<0.253 df=9 χ2=11.342)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재방문의 여부에 대하여 97.3%가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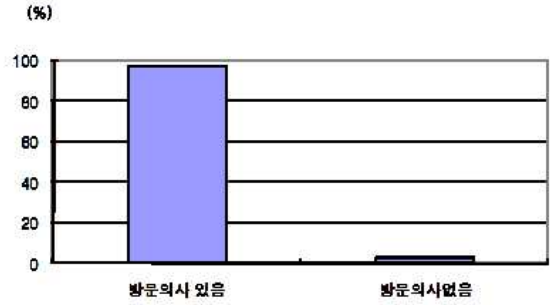


그림 3-22. 재방문의사(n=1066)

각 항목에 대한 성별, 연령별, 올레탐방 빈도별 만족도를 보면(그림 3-23) 올레꾼들은 편의시설, 휴식시설, 식당 등의 인프라에 비교적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올레가 길을 내면서 편의시설이나 인프라 추가 설치에 대해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이기도 하다. 10명 중 3명꼴로 불만족을 표시한 사람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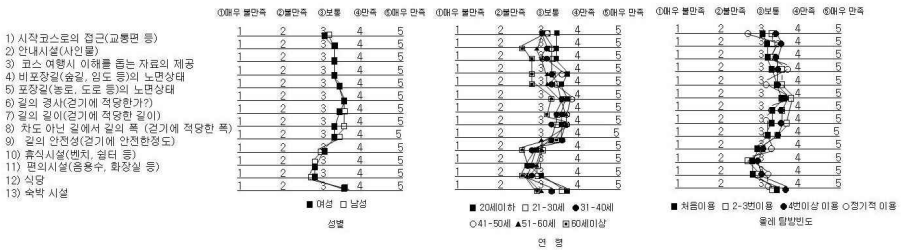


그림 3-23. 성별, 연령별, 올레 탐방 빈도별 만족도

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올레꾼들은 대체로 코스 교통편이나 길의 길이, 길의 폭, 안전성 등에서 불만족을 표시한 이는 20% 미만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제주올레 길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으나 주변 인프라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이도 있는 것으로 설문 결과 드러난 셈이다.

4. 물리적 측면에서의 평가

4.1

한라산, 해안, 오름, 하천 풍경 등 자연 환경 측면, 과수원, 밭 등의 농작지, 밭담, 올레 길, 마을내 돌담 등의 지역적 환경 측면, 올레 표시, 숙소, 화장실, 안내소, 점포, 버스 정류장, 정자 등 편의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답사 및 설문 조사를 통해 관심도 및 만족도를 평가해 보았다, 우선 관심도의 조사 내용을 보면,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림 3-24와 같이 한라산 전경인 경우 설문 조사자들이 예상외로 20.5% 정도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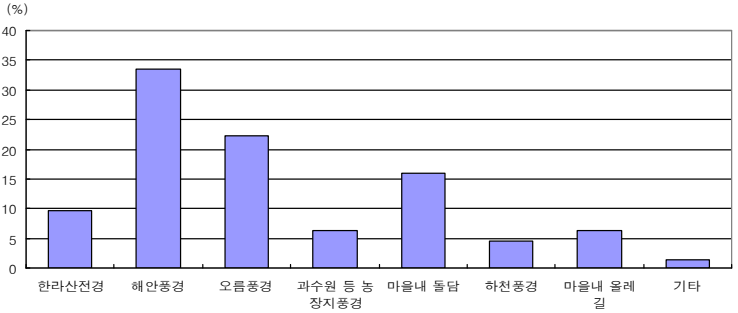


그림 3-24. 선호 풍경(복수응답,n=1052)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관심도로 보면, 해안풍경(82.6%), 오름 풍경(53.8%), 한라산 전경(20.5%), 하천 풍경(7.9%)순이었다. 지역적 환경 측면에서는 마을 내 돌담(39.7%), 농작지(16%), 올레길(15.4%) 순서로 조사되었다.

올레꾼들이 기억하는 풍경은 해안과 오름, 돌담 풍경이다. 이는 제주올레 길의 풍광을 주로 차지하는 풍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라산의 경우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풍광이기 때문에 올레 길에서는 큰 인상을 남기지 않는 듯하다.

4.2 설치 디자인물 평가

4.2.1 도내 시설물 디자인 평가

도내 시설물 디자인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항목은 쉼터/정자(19.8%), 버스 정류장(18%), 마을안내 표지판(14.4%), 식당(14.4%)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마을 자체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그림 3-26). 특히 쉼터/정자의 경우 제2장 유형별 코스 현황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성 제품의 정자를 과도하게 설치하고 있고 안내표시판 역시 지역에 따라 홍보 효과를 위해 과도하게 설치해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제주올레가 설치한 인공 시설물에 대한 평가에서 디자인 작업이 필요한 항목으로 화살표(39.7%), 버스 정류장(34.5%), 쉼터(34.3%), 화장실(31.8%), 마을안내 표지판(26.6%), 안내소(22.9%), 식당(22.9%), 올레 안전 시설물(15.7%) 등의 순서로 나타나 화살표와 화장실을 가장 많이 꼽았다(그림3-27).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화살표의 사인물은 올레 개설당시 동일한 장소에 여러 유형의 화살표가 남발되거나 혼재되어 사용[15]되었던 장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둘째 마을주민들이 임의로 올레 화살표와 유사한 표식을 추가하였다는 점, 셋째 화살표의 재료와 크기 등 작성형식이 통일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그림 3-25 참고) 등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제주올레 화장실과 마을 간이 화장실이 혼재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올레 화장실의 경우 디자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제주올레가 설치하지 않은 화장실 즉, 행정기관이 편의성을 위해 기존에 임의로 설치한 화장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15)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제주올레에서는 2009년6월 13코스개설 부터 작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화살표를 표기하고 있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림 3-25. 올레길 조성 초기의 화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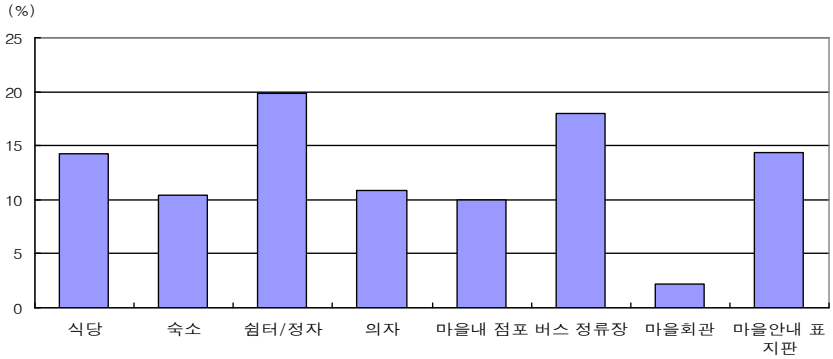


그림 3-26. 도내설치물(복수응답, n=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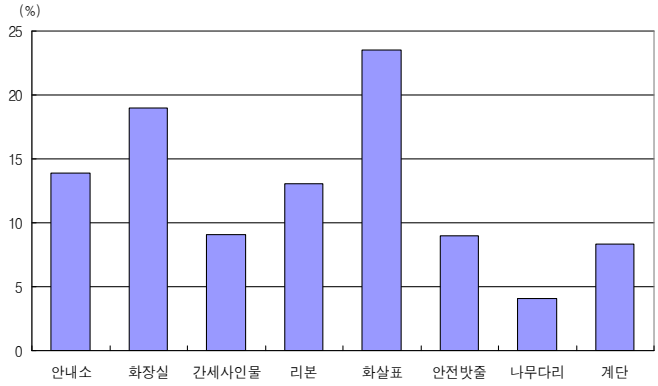


그림 3-27. 올레설치물(복수응답, n=958)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5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레 길에 대한 만족 및 평가에 있어서는 올레 탐방 빈도와 연령에 관계없이 만족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코스와 특정 지역의 풍경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올레를 걷는 것 자체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생태계 보전에 대한 도움 여부에 있어서는 올레길 개설이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올레꾼은 생태계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올레 탐방로 개설 그 자체에 의한 생태계환경의 훼손보다는 일시에 많은 올레꾼들이 탐방함으로써 발생되는 환경 훼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 훼손을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방안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올레길 주변 설치물에 대한 개선점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내 시설물로서는 쉼터/정자, 버스 정류장과 같은 공공성이 있는 구조물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올레 관련 설치물에 대해서는 화살표와 화장실, 안내소, 리본 등이 해당되는 개선대상이었다. 최근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표준화된 디자인 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 4 장 마을 주민의 평가 및 요구 분석

1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
2 올레 개설에 대한 마을 주민 평가 ·····
3 마을 활성화를 위한 요구 조건 ·····
4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4장 마을 주민의 평가 및 요구 분석

1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주올레는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관광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다.

제주도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함께 공유하고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대안적인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올레 코스가 마을을 지나고 있고 마을과 마을 주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올레개설을 통해 마을과 마을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올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올레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3) 올레에 대하여 긍정 및 부정적인 이유
4) 향후 올레개설방향
5) 올레의 개선 부분

설문조사는 올레코스가 지나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코스별로 25부~30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배포 설문지는 총 630부였으며 유효 설문지 회수는 441부로 70% 회수율이었다.

1.1 조사자 속성

설문조사에 응한 마을 주민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53.9%와 46.1%로 남성 비율이 약간 높고 연령대에 있어서는 40대가 29.3%, 30대가 25.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농업/어업에 종사자의 비율이 31.7%, 서비스업이 21.7%로 1차 및 2차 산업 종사자이면서 30대와 40대의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는 그룹으로 파악되었다(표4-1).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표 4-1. 마을 주민 조사자 속성

항목	내용	빈도(n)	비율(%)
성별	여자	203	46.1
	남자	237	53.9
연령	20세이하	15	3.4
	21-30세	49	11.1
	31-40세	113	25.6
	41-50세	129	29.3
	51-60세	85	19.3
	60세이상		11.3
직업	농업/어업	139	31.7
	서비스업	95	21.7
	공무원	56	12.8
	전업주부	52	11.9
	회사원	52	11.9
	무직	44	10.0

2 올레 개설에 대한 마을 주민 평가

2.1 올레 개설에 대한 만족

올레 길 개설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매우 만족'의 비율이 50.1%, '대체로 만족' 비율이 42.6%로 만족하는 비율이 92.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그림4-1). 올레 길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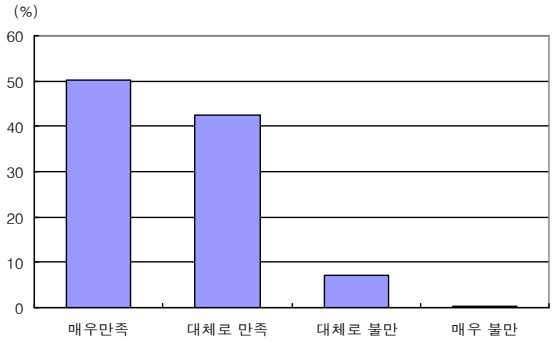


그림 4-1. 올레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n=441)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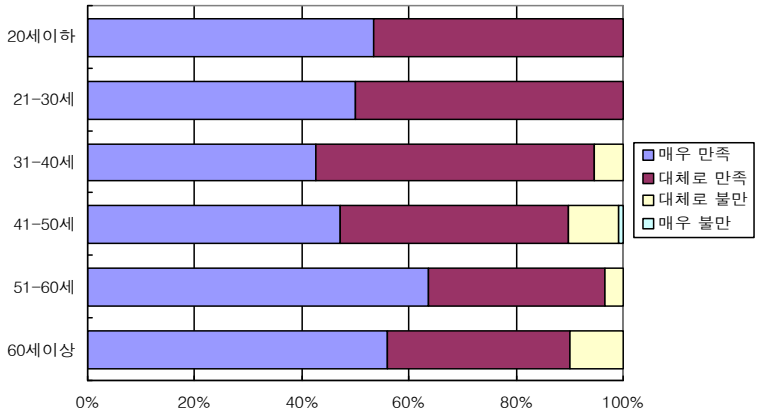


그림 4-2. 연령별 올레 코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P<0.25 df=15 χ2=18.29)

연령별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 수준 P<0.25로 연령별로 특별한 유의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그림4-2). 다만 총 21개 코스를 장소별로 분류하여(제2장 1.1 참고)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 수준 P<0.072로 장소별 코스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하며 전반적으로는 매우 만족하는 지역 코스는 바다 코스의 마을이며 다음이 중산간 코스의 마을, 섬코스 마을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4-3).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를 종합한 전반적인 만족의 비율은 중산간 지역 마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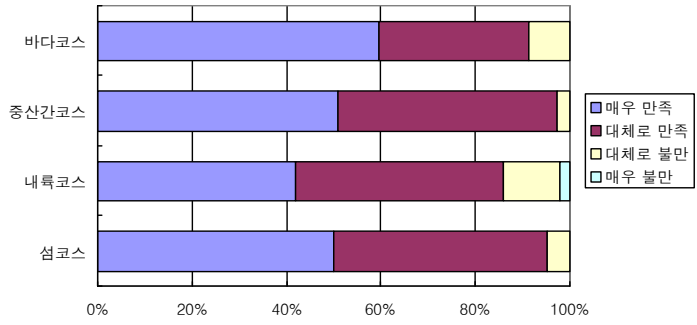


그림 4-3. 장소별 코스에 대한 평가((P<0.072 df=9 χ2=15.745)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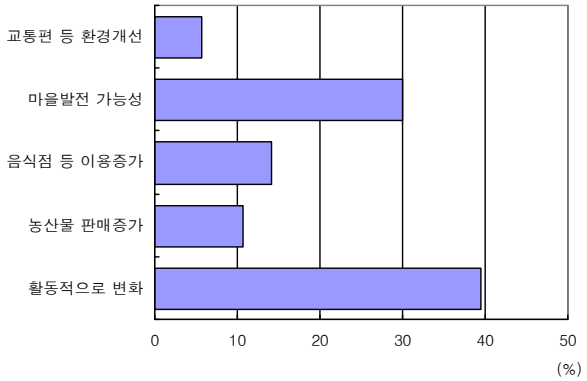


그림 4-4. 만족스러운 이유(n=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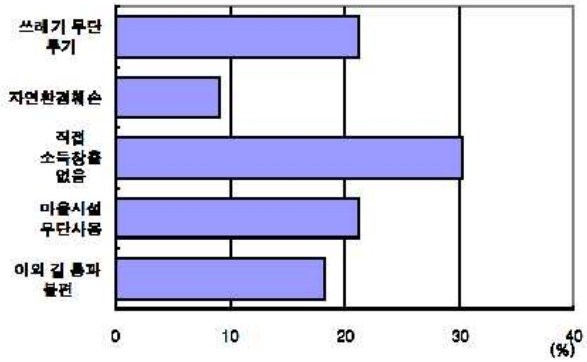


그림 4-5. 불만스러운 이유(n=33)

한편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을 살펴보면, 만족스러운 이유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올레 길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4-4). 마을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과 여행객이 오가면서 마을에서 물이나 간식,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마을 작은 경제에 직접적 보탬이 되기도 하고 마을 홍보가 생산물 등의 직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로 보인다. 그림 4-5가 제시하고 있듯이 만족스럽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직접적 소득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올레꾼이 지나감으로써 마을에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사)제주올레에서는 올레길을 개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설할 때 마을 주민들에게 일종의 역할론을 강조함으로써 올레길 개설 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즉 그것은 외지 사람들을 제주도로, 마을로 끌어들이는 역할은 제주올레가 담당하고 그 사람들을 마을에 체류하게 하고 마을을 홍보해서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은 마을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여행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바로 소득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마을에서 마을을 홍보하고 생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과 논의를 위한 조직구성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을시설 무단 사용과 쓰레기 투기이며 이는 여행객의 윤리의식에 관련한 사항이다. 화장실이 급해 마을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마을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올레에서는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되가져오도록 권하고 있지만 쓰레기를 돌담 사이에 끼워 넣거나 길가에 버리고 가버리기도 한다. 코스 별로 청소 담당자가 열심히 활동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많다. 올레꾼의 노력과 마을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별 여행자보다는 단체 여행객들에게서 발생빈도가 높은데, 홍보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010 제주올레 걷기축제 기간 중 (사)제주올레는 '클린올레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시작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고, 쓰레기를 주워 온 이들에게는 '클린 올레 배지'를 상으로 주었다. 클린 올레 배지를 일정한 수만큼 모아오면, 제주올레 기념품으로 교환해주는 캠페인이었다. 이 클린 올레 캠페인 덕에 제주올레 축제 기간 내내 제주올레 길에서는 쓰레기 줍는 올레꾼들이 많았고, 8천여 명이 걸은 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다. 이런 형태의 클린올레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2 올레 개설에 대한 평가와 개설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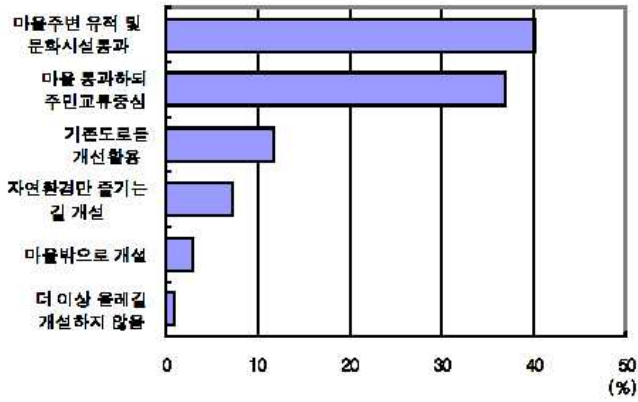


그림 4-6. 올레길 개선방향(n=436)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올레길 개선방향에 있어서 주민들은 마을주변에 있는 유적과 문화시설을 통과하여 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6). 그러나 문화유적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마을의 직접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될 필요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점과 점을 잇고 있는 길이 면과 면으로 발전할 때는 자연스럽게 마을주변에 있는 유적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3 올레꾼에 대한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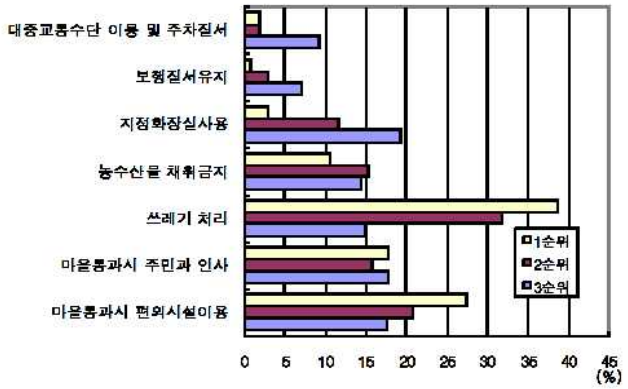


그림 4-7. 올레꾼이 개선할 사항(n=432)

올레꾼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개선할 문제가 쓰레기 처리로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위로서 마을 통과 시 편의시설 이용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올레길 코스가 개설된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소득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도 쓰레기 투기, 마을 편의시설 이용하기, 주민과 인사와 같은 최소한의 예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올레꾼의 교육 강화와 직결되는 부분이며 올레꾼들의 정보수집의 주요매체인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4 올레 사무국에 대한 요구사항

마을주민들은 (사)제주올레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1순위로 올레꾼 이용 방법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2순위는 길 개설 후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 3순위는 환경훼손 최소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8).

현재 올레꾼 이용방법 교육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주올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카데미에서 기본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이 제주올레의 정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주민 또는 마주치는 사람과 인사하기, 농작물에 손 안대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제주올레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주를 찾는 여행객 보다는 단체관광 성격의 여행객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관광협회, 여행사 관계자에 대한 홍보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길의 지속적인 관리에 있어서 비, 바람, 햇빛 등에 의한 자연적인 것과 간세 부러뜨리기, 리본 떼어가기, 화살표 훼손하기 등 인위적인 것이 많으며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를 통해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정비와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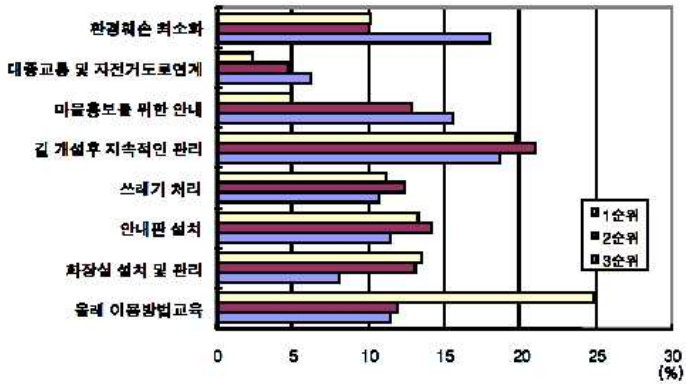


그림 4-8. 올레사무국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n=436)

3 마을 활성화를 위한 요구 조건

3.1 마을활성화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과 투자보다는 자연환경 최대한 보전을 중심으로 마을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9). 지금까지 발전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이 무언가 새로운 건물이나 번듯한 무언가를 지어서 보여주기 위한 토목공사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올레 길과 연계된 마을을 중심으로 발전에 대한 기본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특히 자연환경 최대한 보전을 중심으로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빈집이나 공터를 활용하거나 자연지물을 이용한 최소한의 시설이 적당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10).

반면 새로운 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방안으로는 판매장이나 여행객을 위한 휴게시설 확충, 화장실 설치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이들 문제들은 하드웨어적인 개발과 시설투자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마을주민과 행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을내 유휴시설들을 파악하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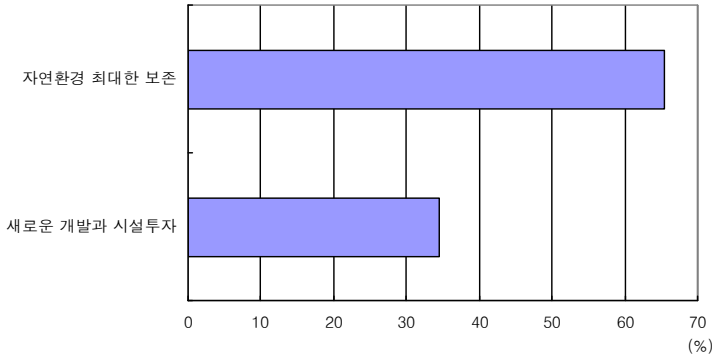


그림 4-9. 마을이 해야 할 일(n=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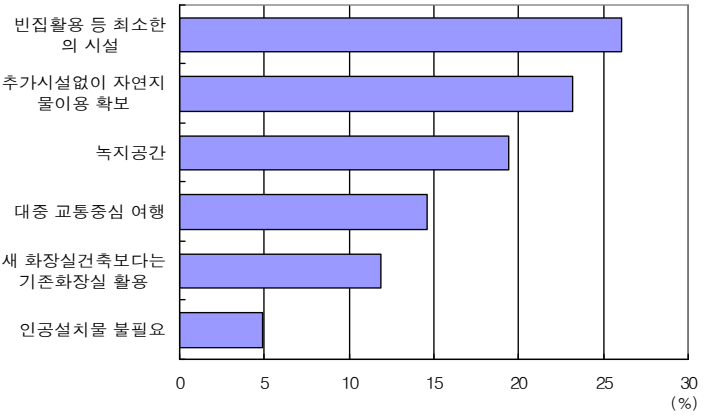


그림 4-10.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생각(복수응답, n=371)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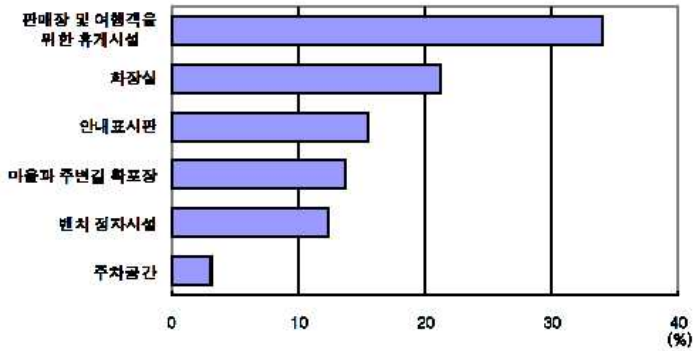


그림 4-11. 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생각(복수응답, n=226)

3.2 제주 발전 방향

향후 제주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식에서는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발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2). 또한 훼손된 환경 복원 중심의 개발에 대한 응답이 20%에 이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제주도는 자연환경 보존이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마을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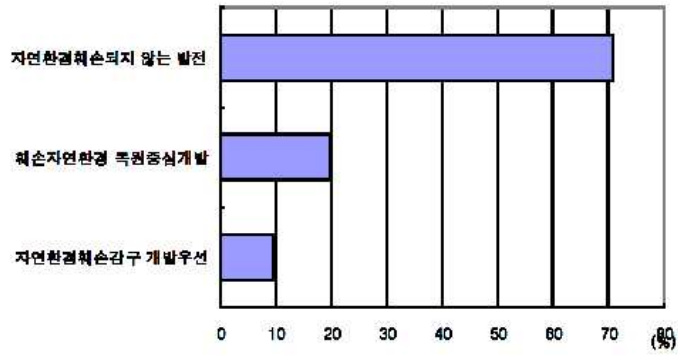


그림 4-12 제주의 발전방향(n=434)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4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올레꾼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및 요구분석을 보면 올레 길을 찾는 이들의 86.2%가 오기 전에 자료 수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이 의존하는 정보는 홈페이지와 제주올레가 발행하는 가이드북이다.

홈페이지와 가이드북에는 '제주올레 에티켓'이 게재되어 있다. 내용으로는 설문에서 지적된 쓰레기, 주민과 인사 나누기, 남의 농작물에 손대지 않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0 제주올레 걷기 축제 기간에 시행했던 '클린 올레 캠페인'처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을이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의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인 것은 대규모 개발이 더 이상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제주의 발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발전'을 원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인 것이 증거이다.

이는 제주올레로 인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이들이 올레 길 주변의 마을과 시장에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올레와 같은 생태문화로를 활성화시킨다면 대규모 개발이 아닌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 5 장 국외 탐방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캐나다 사례 ·····
2 영국 사례 ·····
3 국외 사례의 시사점 ·····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5장 국외 탐방로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캐나다 사례

1.1 브루스 트레일(bruce tr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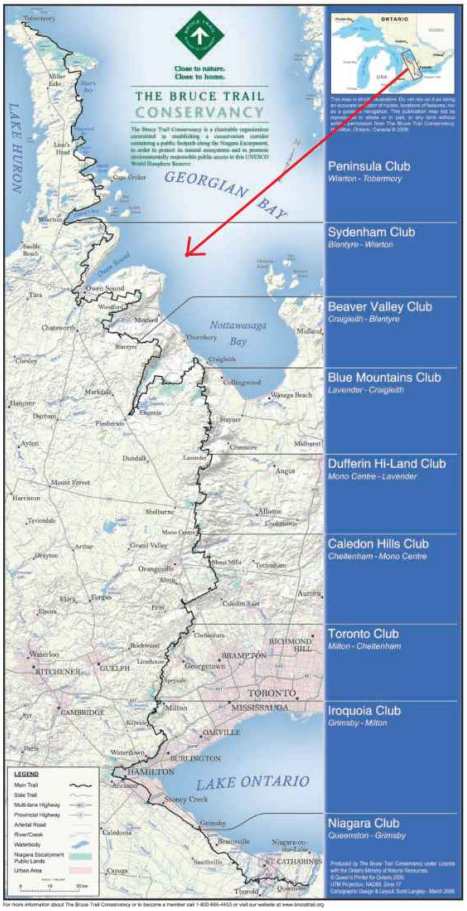


그림 5-1.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도와 확대한 브루스 트레일 지도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1.1.1 브루스 트레일 개요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트레일로 유엔이 지정한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퀸스턴 고원에서 시작해서 브루스 반도 끝 토버모리까지 이어지는 850km 거리의 트레일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트레일 코스다. 나이아가라 절벽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로 알려진 트레일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나이아가라 절벽을 보호하기 위해 걷는 길을 내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창립 멤버인 레이 로에즈, 필립 고즐링, 노먼 피어슨, 로버트 맥라랜 등이 브루스 트레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걷게 하면 그들이 이곳의 소중함을 몸소 느껴 나이아가라 절벽을 보호하는 일에 나설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다. 1962년 4월, 처음 브루스 트레일을 걷기 시작하면서 브루스 트레일이 구축되었다. 그 이후 캐나다 동부도 개발이 속속 진행되면서 나이아가라 절벽 지구 역시 개발 위기에 처해 있다. 2010년 현재 45%만 개발로부터 안전하고 55%는 여전히 개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이다. 6백만 명의 인구가 나이아가라 절벽으로부터 90분 거리(자동차 기준)에 살고 있다. 끊임없이 개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브루스 트레일은 출발 배경에서 시사하듯, 나이아가라 절벽 지대의 자연 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때문에 트레일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와 안전 설치를 할 뿐이다. 숲과 계곡, 절벽 길 등으로 이어지는 트레일이다. 현재 브루스 트레일 보호단체에는 8,9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1,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트레일 보호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 매해 4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온다.

주요 볼거리: 나이아가라 폭포, 브루스 국립공원, 전나무 숲, 폭포 등.

1.1.2 코스 거리

브루스 트레일은 메인 트레일만 850km 거리를 자랑하는 트레일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긴 트레일이다. 메인 트레일 외에 트레일 주변에서 꼭 들러야 할 명소를 연결하거나 주거 지역을 순환하는 산책 코스로 사이드 트레일을 개척하기도 한다. 사이드 트레일은 250km 가량으로 긴 것은 10km 이상 되기도 하지만 1km 미만의 짧은 사이드 트레일도 있다. 850km의 메인 트레일을 9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1.3 트레일 개설 원칙과 기준

1. 탐방로 디렉터(담당자)의 자문을 받아 가장 적합한 노선을 찾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관과 풍경이다. 경관과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찾되 역사적인 곳과 의미 있는 곳을 거쳐 가게 한다. 만약 역사적 유적지와 의미 있는 곳을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이드 트레일로 개척한다.

2. 탐방로의 토지주를 찾아내야 하며, 클럽의 토지주 관련 디렉터(담당자)가 이 일에 참여해야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한다. BTA의 경우 1:10000 스케일의 지도에 탐방로 인근의 부동산 등을 표시하고 준비하였다. 클럽의 토지주 관련 디렉터(담당자)는 부동산 관련 목록을 작성하고 토지주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3. 지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토지주 관련 디렉터(담당자)나 토지주 관련 디렉터에 위임받은 탐방로 용역자가 해야 한다. 토지주에게 불편이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와 브루스 트레일의 목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사고 상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토지주에게 지울수 없도록 1980년 제정된 토지소유자 책임법에 의한 보호조항(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휴양을 하는 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위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 법령과 가택침입법령(1980)은 온타리오주의 법무장관 부처나 BTA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는 『This Land is Whose Land?』라는 소책자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BTA는 토지소유자들의 예상 질의 답변 내용들을 엮어 책자로 펴내고 있다.

탐방로를 허용한 토지주에게는 감사의 작은 상징으로 브루스 트레일 뉴스 무료책자와 브루스 트레일 달력을 주는 등의 인상을 남겨야 한다.

4. 새로운 노선이 도시공원, 공공용지와 같은 보존지역을 지나칠 경우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노선의 허가가 떨어지면 토지주의 동의를 위한 측량 테이프가 계획 노선에 붙여진다. 노선이 높은지, 건조한지,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등을 관찰하기 위해 시간을 더 들여 4계절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일단 제안된 새로운 노선이 정해지고 나면 클럽의 탐방로 디렉터(담당자)가 면밀히 조사하고 BTA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얻어낸다. 새로운 노선이 승인이 나면 비로소 사인, 디딤계단, 표적 등을 설치할 작업반을 편성할 수 있다.

7. 기존 노선의 디딤계단, 표적, 사인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나뭇잎, 바위, 통나무, 관목과 나무 등으로 탐방로를 신속히 위장하여 하이커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노선의 각 섹션 말미마다 특별히 디자인된 사인을 설치한다. 이를테면, 흰 바탕에 검을 글자로 '브루스 트레일의 새로운 노선'과 같은 간단한 비문을 새긴 화살표 사인들이다. 또한 'No Hiking'이나 'Hiking'의 픽토그램(그림문자) 사인은 새로운 노선과 폐쇄된 기존의 노선을 알려줄 수 있다.

9. 가이드북 본문에 어떠한 수정이 필요하다거나 새로운 노선의 거리변화를 보여주려면 1:10000 지도에 스케치로 표현하여 BTA 본사로 보낸다. 새로운 토지주의 자세한 정보도 포함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토지주들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와 브루스트레일 뉴스, 가이드북 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탐방로의 어떠한 변화나 소식을 알리는 것도 클럽 보드를 통해야 한다. 디렉터(담당자)는 그러한 변화나 필요한 물자, 공구들을 알아야 필요한 예산을 준비하고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브루스 트레일 시작점 사인(왼쪽), 휴게소(가운데), 후원자 기념 표식(오른쪽)

1.1.4 코스 유지 및 관리 방법

브루스 트레일을 개발, 관리하는 '브루스 트레일 보호단체(BTC)'는 기부와 봉사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14명의 직원과 1,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1인당 평균 118시간을 자원봉사 하는데, 68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한 효과와 맞먹는다. 자원봉사자들이 내준 시간의 가치만 280만 달러(31억원어치)라고 한다. 브루스트레일 보호 단체를 구성하는 9개의 클럽은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이 클럽들은 매해 1,500회의 하이킹 투어를 구성하고 있으며, 보전을 위해서는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사람들은 브루스 트레일에서 얻은 고마움을 갚고, 경력을 쌓기 위해 자원봉사를 신청한다. 트레일을 무료로 걷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생겨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 브루스 트레일 보호 단체는 트레일 지역을 관리하거나 복구하는 활동을 한다. 이 모든 활동은 서식지 관리 계획(habitat management plans), 재래종 식수 산림화 프로젝트(native species reforestation), 산림정화 프로젝트(clean up project)에 근거해서 한다. 모든 활동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 자원 활동을 한다. 예컨대 트레일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맡은 자원봉사자는 'Guide for Trail Workers'라는 가이드북을 충실하게 읽고 그 지침대로 일한다.

브루스 트레일 보호 단체는 나이아가라 절벽 지구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트레일 구간의 땅을 끊임없이 구입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180헥타르의 땅(10,000,000달러, 65개 부지)을 구입했다. 나이아가라 절벽의 토지 가운데 1,600,000달러 가치의 땅이 보호 단체에 기부되었다. 2010년의 총 수입은 2005년 1,900,000달러에서 3,500,000달러로 증가하였다. 브루스 트레일은 또한 트레일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용자 수칙을 제정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자 수칙을 엄수하게끔 유도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 브루스 트레일 이용자 수칙

표식된 곳으로만 걷기. 지름길로 가지 않기.
울타리로 기어오르지 않기. 디딤 계단을 이용할 것.
트레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당신이 걷기 전보다 트레일을 더 깨끗한 상태로 두기. 모든 쓰레기는 가져갈 것.
개방형 화재용구는 안됨. 휴대용 스토브만 가능.
캠프는 지정된 캠프 사이트에서만 가능.
다른 사람을 위해 꽃과 식물을 그대로 두기.
나무를 꺾거나 껍질을 벗기지 않기.
애완견은 항상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데리고 다니기.
야생 생태계를 방해하지 않기.
고마움과 사진 외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않기.
모든 사인을 지킬 것.

1.1.5 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

1. 탐방로 개척(조성)과 보행로 보호
아름답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아래 지침에 따라 탐방로를 조성한다.

·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는 2가지 기본적 공구가 필요하다. 직경 약 2cm의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긴 손잡이의 전지가위와 큰 나무나 죽은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중간 사이즈의 스웨덴형 활톱이다.
· 탐방로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한 줄로 된 탐방로이며, 0.6m 정도면 충분하다. 탐방로는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장애물이 제거된 형태여야 한다. 그러나 발목 높이 이상의 초목으로 된 길은 최소한 너비 1.5m이상이어야 한다.
· 탐방로는 2.5m이상 가능한 높이까지 시야가 확보되도록 제거한다. 일부 배낭보행자들은 2m가 훨씬 넘는 높이가 필요하다. 가지가 자라거나 비나 눈에 의해 쳐지면서 발생하는 공간의 변화를 유의해야 한다. 가지 끝이나 잎을 제거한 관목이나 나무는 내리막길을 걷는 보행자의 시야를 어둡게 할 수 있으나, 풀숲이 자라면 탐방로 안으로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준다. 가능하면, 탐방로 위로 연속된 차양아치가 형성되도록 조성해야 한다.
· 크기가 큰 나무가 산책로 위에 쓰러져 있을 경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쓰러진 나무의 지면에서의 높이가 20cm 이하일 경우에는 치우지 않고 보행자들이 밟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제거해야 할 만큼의 크기인 나무라면 큰 활톱이나 전기톱을 사용하여 최소 1.8m이상을 걷어낸다.
· 습지지역에 사용되는 방법에는 돌계단 설치, 유료도로 설치, 우드칩스 깔기, 통나무길, 트렌치, 목재 데크 탐방로 등이 있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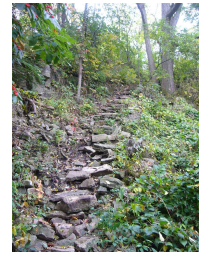


그림 5-3. 배수로 시설(왼쪽)과 목재계단, 돌계단

2. 표적

좋은 표적은 탐방로에서 아무 불편 없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브루스 트레일의 표적은 가로52mm, 세로156mm (2"x 6")의 흰색으로 칠한 사각형이다.

· 크기: 애팔래치아 지방 탐방로에서 채택되었으며, 경관상의 큰 흠이 없이 일정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크기이다.
· 모양: 사각형의 경계선은 불규칙한 형태의 자연적 특징과는 명확히 대비되는 두드러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 색상: 색상 역시, 애팔래치아 지방의 탐방로 기준에 근거를 두며, BTA(Bruce Trail Association)는 주요 탐방로 구간에 흰색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명도가 높은 바탕에 새기는 표적의 경우에는 흰색 사각형 외부로 가로 76mm, 세로 178mm의 검정색 사각 테두리를 칠하는 것으로 한다.
· 재료: 과거 플라스틱이나 슬레이트를 사용하였으나 쉽게 파손되고 변형되어 내구성을 가진 페인트를 사용한다.
· 위치: 표적은 보통 나무, 울타리 말뚝, 전신주 등에 새겨 넣는다.






그림 5-4. 사이드트레일 표지판과 트레일 표적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 사면 제어방식

사면 제어방식은 브루스 트레일의 많은 지역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다. 사면제어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 탐방로 측면 통나무(Side-logging): 사면이 꺾이면서 교차되는 지점에 낮은 사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측변통나무세트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아래 그림은 탐방로의 노면을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둔덕이 붕괴되거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나무와 바위, 말뚝 등으로 구성되어 노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지그재그 형 산악도로(Switchbacks): 사면이 연속적으로 교차되는 곳에는 스위치백 형태의 지그재그형 방식을 구성할 수 있다. 탐방로 측면 통나무 방식은 지그재그형 산악도로에 적용하기에 충분하다. 지그재그 형 산악도로의 전환점은 워터바를 설치하기에도 알맞은 장소이기도 하다.
· 워터바: 물이 길을 따라 모아져 흐르면, 내려갈수록 그 양과 속도에 의해 하부의 노면은 침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길거나 가파른 사면에서는 이러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빈번한 간격으로 물을 제어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워터바이다. 워터바는 보통 삼나무를 탐방로 방향에 약 45도 틀어서 가로질러 놓는다. 삼나무의 직경은 (수피를 제거하고) 약 15cm 정도이며, 길을 따라 흐르는 물을 완전히 제어하고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한다.
· 계단: 계단 역시 사면 제어의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상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계단은 언급된 다른 방식들을 모두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행량이 많고, 사선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짧고 가파른 경사에 가장 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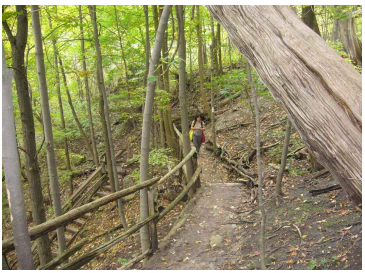



그림 5-5. 사면방지책과 안전시설

4. 사인

· 일반적인 표식: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무에 표식을 새기고, 흰색 페인트로 칠을 했다. 여행자들은 이 흰색 직사각형 모양의 표적을 따라 걷는다.
· 갈림길 표식: 직사각형 모양의 표식 두 개를 나란히 표시해 두었다.
· 사이드 트레일: 표식 모양은 같고, 색깔만 하늘색으로 구분했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5. 디딤계단(Stiles)
디딤대는 브루스 트레일이 처음 조성된 후부터 그 곳의 특징적인 것이 되어 왔다. 보행자들이 울타리를 넘으면서 훼손하거나, 문을 열어놓고 가면서 가축이 도망가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토지주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디딤계단은 탐방로가 울타리를 지나는 모든 곳에 적용되었고, 간혹이라도 출입문을 통해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Dodge way: 영국에서는 흔히 보이지만 북미에서는 드물게 사용되는 'Dodge way'는 디딤계단의 대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울타리의 일부에서 두 개의 팔이 비스듬히 뻗어 나와 한 개의 팔을 감싸는 모양의 조그만 틈을 형성한다. 약 0.6m의 크기로 사람이 아닌 가축이나 차는 지나갈 수 없는 구조이다.

6. 교량 설치
시냇물이나 개울이 있는 곳에 수생 환경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량 설치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부분적으로 교량보다 디딤돌만으로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교량의 설치 위치는 개울의 가장 협소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알맞지만 교량이 수면과 가까이 설치될 경우 범람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최적의 장소는 개울이 협소하고 기슭이 높은 부분이며, 그렇지 않다면 기초를 설치하고 그 위에 교량의 단부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가 빠른 물살에 의해 침식되는 곳은 피해야 한다.

7. 숙박 가능한 휴게소(ORA)
전형적인 ORA는 야영지, 물 공급, 화장실, 위치 표시, 메모함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야영지: 대략 3m×2m의 단위 공간이면 배낭보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텐트를 설치하기에 알맞으며 적어도 3개의 단위공간이 구비되어져야 한다. 바람을 타고 화장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피하고, 바닥은 돌과 풀을 제거하여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위치 표시: 휴게소는 보통 브루스 트레일과 다소 떨어져 있으며, 표지를 통해 탐방로에서 휴게소까지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ORA 표시는 지역 BTA 클럽명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새겨 높이 2.5m에서 3m되는 위치에 눈에 잘 띌 수 있게 나무에 표시한다.
· 메모함: 너비 30cm, 깊이 15cm의 철제 우편함에 종이와 펜을 같이 비치한다. 유지관리의 문제나 수고에 대한 하이커의 코멘트를 기록할 수 있다.
· 물 공급: 물은 야영지와 되도록 가까워야 하며, 야영지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지 않을 경우 표지를 통해 수원까지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끓이거나 약 처리 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 화장실: 보통 개인 웅덩이로서, 웅덩이 틀에 가림막이 고정된 최소한의 형태이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림 5-6. 뷰포인트 안내판과 트레일 안내 표식

2. 영국 사례

2.1. 코츠월드 웨이

2.1.1 코츠월드 웨이 개요

영국에는 15개의 '내셔널 트레일(national trail)'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가장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지정해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는 길이다. 15개의 내셔널 트레일을 모두 합하면 총 4천 킬로미터에 이른다. 내셔널 트레일은 1949년에 제정된 '국립공원 및 전원지역 접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이 법에 근거해 모든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 주민들의 거주지 50마일 이내에는 국립 트레일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5-7.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셔널 트레일 지도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이렇게 조성된 트레일은 내셔널 트레일 품질 기준에 근거해 지정 받아 운영되고 관리된다. 각 트레일에는 트레일 담당관과 자원봉사단이 있고, 내셔널 트레일을 상징하는 로고마크인 도토리 모양의 사인물이 개별 트레일 사인물과 함께 설치된다. 전체 내셔널 트레일을 운영하는 예산은 연간 4백만 파운드(71억원) 가량 투입된다.

내셔널 트레일 웹사이트는 매월 10만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만 명의 사람들이 분기별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다. 영국 내셔널 트레일에는 매년 1천 2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다녀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방문자중 95%가 "트레일 방문 경험이 좋았다" 또는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15개 내셔널 트레일 가운데 연구팀이 찾은 트레일은 런던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영국의 대표적인 전원 지역인 코츠월드에 조성된 '코츠월드 웨이'다. 코츠월드 남쪽 마을인 바스(BATH)에서 시작해 북쪽 마을인 쉬핑 캠든(Chiping Campden)까지 이어지는 163킬로미터 길이의 트레일이다. 코츠월드 웨이는 숲과 꽤 높은 절벽과 계곡을 지나는 구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완만한 경사지를 주로 통과한다. 너도밤나무 숲과 돌담이 어우러진 목장, 야생화가 만발한 들판, 석회암으로 지어진 돌집으로 이뤄진 동화 같은 마을을 통과하는 길 등으로 주로 이뤄져 있다.

코츠월드는 영국의 옛 마을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관광지이기도 하다. 아담한 돌집과 목장, 전통적인 매너하우스 등이 보존돼 있는 아기자기한 마을 수십 개가 모여 있는 이 지역은 런던에서 멀지 않아 일반 관광객에게도 많이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 단점을 트레일이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코츠월드 트레일을 따라 동화속 같은 코츠월드 전역을 여행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코츠월드 웨이는 1950년대부터 조성된 트레일이지만, 내셔널 트레일에 지정된 것은 3년 전이다. 내셔널 트레일에 조성되면 트레일 담당관이 배치되고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트레일들은 내셔널 트레일로 지정받으려 노력한다.

코츠월드 웨이도 내셔널 트레일로 지정받기 위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 노력들을 해왔다. 노면 상태를 고르게 하고, 목장 문 설치 등에서 품질 기준에 맞춘 뒤에야 내셔널 트레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주요 볼거리: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바스(Bath), 브리콘 비콘즈(Brecon Beacons)로 이어지는 강 풍경, 멜번 언덕(Malvern Hills)과 딘 숲(Forest of Dean). 내셔널 트러스트인 다이엄하우스와 호튼 광장(Dyrham House and Horton Court), 브로드웨어 타워와 서머셋 기념비(Broadway Tower and Somerset Monument), 옛날 방앗간 마을 패인즈윅(Painswick), 성 등.

2.1.2 코스 거리

코츠월드 웨이는 총 163km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7일 동안 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 제주올레처럼 번호를 매겨 코스를 나누는 대신에 163킬로미터 전 구간이 연결돼 있다. 도보 여행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거리만큼 여행하는 형식인데, 대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시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작하고 끝낸다.

2.1.3 트레일 개설 원칙과 기준

1966년 코츠월드 지방은 '주목할만한 자연 경관 지역(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AONB)'에 선정되었다.

AONB는 국가적으로 보호할만한 독특한 자연 경관을 가진 지역을 선정하는 제도로써 자연 경관과 국립공원을 국가에서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츠월드 지방이 AONB로 선정된 후인 1970년, 이 지역 걷기 동호회 사람들이 코츠월드 웨이를 개척했다. 그들은 도심에서 멀지 않고 영국의 전형적인 자연 경관과 전원 마을 풍경이 남아 있는 곳을 골라 루트를 찾았다. 코츠월드 지역의 80% 이상이 농장 지대이며, 9% 가량이 숲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림 5-8. 코츠월드 웨이의 숲길로 접어드는 구간과 들판을 가로지르는 구간

런던에서 멀지 않아 런던 사람들이 주말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츠월드 웨이는 영국 내셔널 트레일 가운데 가장 완만하고 편한 트레일로 손꼽힌다. 코츠월드 웨이는 이미 조성된 산책로를 지나기도 하고, 목장 안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오솔길을 지나기도 한다. 풍광이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 역사적 유물이 있는 곳을 연결해 트레일이 형성됐다.

주요 포인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된 구간은 거의 피했다. 포장된 구간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마을을 통과할 때처럼 구간을 연결해야 할 경우에만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을 통과한다. 아스팔트나 시멘트를 통과할 때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반드시 피했다. 마을을 통과할 때는 대로변보다는 마을 뒷골목으로 루트를 뽑았다. 그런 길을 찾아 50년 이상 사람들이 걸어 다녔던 길(foot path)에 사인물을 설치해 코츠월드 웨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코츠월드 웨이는 땅을 구입해서 길을 내지 않는다. 사유지라도 해도 트레일을 내겠다고 하면 법으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없다.

트레일에 인위적인 시설이나 조성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다만 목장을 지나는 구간이 많다 보니, 목장 문이 꽤 많이 설치돼 있다. 목장 문의 설치 의무는 땅 주인에게 있다. '국립공원 및 전원지역 접근법'에 근거해 사유지에 트레일이 통과할 경우 목장 문 설치 및 해당 구간 유지 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과 의무는 땅 주인에게 있다. 그러나 땅 주인이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트레일에서 직접 목장 문을 설치하기도 한다.

습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작은 나무다리를 만들어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만 하는 정도다. 흙길이 많으나 답압으로 인한 훼손은 심하지 않다. 답압으로 인한 훼손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나무 침목을 설치해 놓은 정도다.

트레일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나 숙박 시설을 따로 조성해 놓지는 않았다. 다만 마을마다 B&B(베드앤블랙퍼스트: 아침을 제공하는 민박)와 호텔이 있고, 식당이 있다.




그림 5-9. 시내 구간에 설치된 사인물(왼쪽)과 내셔널트레일 규격에 맞춘 목장 문

2.1.4 코스 유지 및 관리 방법

코츠월드 웨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주체는 코츠월드 컨서베이션 보드(Cotswolds Conservation Board)다. 직원은 2명뿐이다. 영국 정부에서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고, 기념품 수익과 후원금으로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코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는 3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다. 각 구간별 자원봉사자가 있어 수시로 코스를 돌며 유지 관리한다. 길이 훼손되었거나 목장 문이 망가져 있다면 자원봉사자들이 책임지고 고치고 수리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름 값이 매달 지급되는 정도다. 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원봉사자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 있다. 코츠월드 웨이는 다양한 부류의 도보 여행을 안내한다. 예컨대 휠체어를 이용해 장애인이 걸을 수 있는 루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루트 등을 따로 설정해 별도의 리플릿을 만들어 안내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2.1.5 영국 내셔널트레일 가이드라인

루트	선형	길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배 타고 강을 건널 경우 제외)
		루트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의 길이어야 할 것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주목할 만한 뷰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흥미로운 장소를 지나야 함.
	도로와 교차로	포장 구간은 최소한으로 이용
		분주하고 위험한 구간 피하기
		포장도로나 철도를 지날 때는 안전한 건널목 표시하기
		자동차나 말이 지나가는 구간에는 대기 표시하기
		자동차 구간은 보도를 설치해 지나가게 하기
		강을 건너할 경우에는 페리에 대한 대비책 세울 것.
		인도 위 다리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안전하게 만들 것
		냇가나 강가에 세우는 다리는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설계
	방해물	쉽게 접근하고 방해물이 없는 루트로 갈 것
	노면	잘 다듬어지고 지속가능한 노면이되 경관이 좋을 것
		야생 지역이나 길을 새로 개척할 때는 인공적인 길은 최소화할 것
		어쩔 수 없이 길에 손을 댈 때는 자연적인 소재와 컬러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
		초지대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할 것
		깊이 패일 수 있는 부드러운 흙길은 말이나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
		산악자전거 등이 허용된 구간에 대해 트레일 표면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조절할 것.
		모터사이클은 엄격하게 제한할 것
	계단	계단은 최소한으로 할 것.
트레일 제한 구역	제한구역 관리	민감한 농작물이나 민감한 숲지대는 최소한으로 할 것.
		역사 유적이나 유물은 잘 보호하고 관리할 것.
		울타리는 농작물 보호나 안전을 위해서만 설치할 것.
		부적절한 개발이나 흉물에 의해 경관이 방해받지 말아야 할 것.
트레일 가구	품격있는 디자인	지역 환경과 역사에 적합한 고품질 디자인과 스타일, 재료를 사용해 디자인 품질 유지할 것
		설치물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쉽고 사용하기 쉬운 것이어야 함.
		휠체어 등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최소한으로 할 것.
		문은 저절로 열고 닫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서비스	접근성	시종점은 대중 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종점에는 트레일을 방해하지 않는 규모의 작은 주차장을 만들 것.
		주거 지역 근처에 트레일과 연결된 잘 다듬어진 순환 루트를 만들 것
	숙식 시설	시, 종점 1~3마일 이내에 숙식 시설이 있을 것.
	기타 서비스	공공 음용수대 설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정보를 줄 것.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환경 정비할 것(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라면 정기적으로 치울 것)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정보	브랜드 관리	지속적인 메시지를 적절한 양식으로 흥미롭고 정확하게전달할 것 (미디어 보도 포함)
	지도	측량 지도 위에 도피처를 포함한 트레일 루트를 그릴 것
	인쇄	다양한 언어 버전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
사인	품위있게 표시하기	모든 사인물에는 로고를 넣을 것
		붐비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인물에는 출발, 멈춤, 마침, 마을 안내, 주차장, 대중교통 안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





그림 5-10. 코츠월드웨이 사인물과 안내 표식

2.2 이든 프로젝트(Eden Project)

생태 탐방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그 길 주변에 사는 지역민과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제주형 생태탐방로 개설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생태탐방로 조성 기법뿐만 아니라 생태탐방로 주변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어떻게 연관시켜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거대한 온실로 재현된 열대우림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기후변화, 공정무역, 지역민 중심의 관광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곳으로 꼽히는 영국의 이든 프로젝트 사례를 들여다 본 이유이다.

2.2.1 이든 프로젝트 개요

이든 프로젝트는 2001년 영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남서부 변방의 콘월 지역에 들어선 1억4000만파운드(2800억원)가 투입된 초대형 식물원 프로젝트이다. 팀 스미트를 비롯한 영국의 예술가, 건축가, 과학자들이 모여 '에덴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동산 안에 전 세계 식물들을 심어 자라게 한다는 개념으로 지어졌다.

온실을 짓기 위해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과 지역 중심의 운영 방식이 도입되었다. 고령토 폐광 부지를 17m의 흙을 덮어 땅을 다지고, 경사지를 안정시키기 위해 2천여개의 바위를 옮겨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왔다. 공사에 쓰인 광물은 근처 광산에서 버려진 폐기물을 활용했고, 모래와 진흙은 지역의 광산업체와 진흙 회사에서 공급받았다. 지하에는 거대한 빗물 수집 장치를 만들어, 식물에 공급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이든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하는 물의 43%는 빗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든 프로젝트 안에 심은 식물은 4000여종 100만개에 이른다. 대부분 씨를 심어 키우거나 다른 식물원이나 연구소, 후원자에게서 기증받은 것이다.

이든 프로젝트는 2009년 유료 관광객 수가 100만 명에 이르는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 5-11. 이든 프로젝트 건립 전과 건립 후

2.2.1 이든 프로젝트 프로그램

1. 지역 협력 프로그램

이든 프로젝트는 지난 10년 동안 콘월 지역에 18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켰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든 창립자 팀 스미트는 “주민이 행복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든 프로젝트 설립 단계부터 지역과의 연계 문제를 고민했다. 이든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부터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때까지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든 프로젝트 전체 직원은 450명 가량. 직원 대다수는 콘월 지역 출신이다. 이든 프로젝트를 개장한 이후에는 이든 프로젝트 내부에서 소비되는 농산물과 식료품의 85% 이상을 지역 농가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든 프로젝트 안에는 방문객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들 레스토랑은 저마다 ‘로컬 푸드’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내놓고 있다.

이든 프로젝트에서는 지역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지역이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를 강조한다. 팀 스미트는 “지역의 물품을 사겠다면, 납품량을 늘릴 수 있는지 적어도 1년의 여유를 두고 지역 업체와 의논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또한 지역 주민이 새로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업체의 경영 능력도 지원한다. 이든에 납품하는 지역 업체만 수백 개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든과 함께 성장한 곳이다. 예컨대 맥주병을 재활용해 컵을 만들어 판매하는 콘월 지역 기업이 있는데, 이곳은 처음부터 이든의 지원으로 성장했다. 이든 내부에서 소비된 맥주병을 수거해서 이 기업에 제공하면 기업은 컵으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식이다. 씨앗을 넣은 양초를 개발해 공급하는 회사도 이든의 지원 속에서 성장했다. 이든 프로젝트 내에 있는 기념품 가게는 이든 자체 상품 외에는 지역 맥주, 초콜릿, 양초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 이든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수록 이든에 납품하는 지역 업체들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든 프로젝트 브랜드가 유명세를 타면서 콘월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 예컨대 콘월 지역에서만 팔리던 맥주가 지금은 이든 상표를 붙여 영국 전역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다. 이든 프로젝트 덕에 콘월의 와 주민들의 건강한 협력은 가치에 감동한 방문객의 증대로 이어졌고, 주민들의 관광 수입도 덩달아 늘어났다.



그림 5-12. 이든 안내판과 쉼터

2. 교육 문화 프로그램

이든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발전, 자연과 인간의 공존 등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젊은이와 함께 하는 모험: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 지역과 함께 하는 모험: 지역의 아트 그룹 또는 창의적인 그룹들과 함께 음악, 지역 예술, 노래, 스토리, 조명 축제 등을 여는 프로그램
· 지역 생산자와 함께 하는 모험: 지역에서 로컬 푸드를 생산하는 이들과 함께 실제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체험 프로그램
· 학생들과 함께 하는 모험: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 생물 다양성 등을 공부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
·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모험: 조각가, 화가, 건축가 등과 함께 다양한 예술을 직접 배우고 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험하는 프로그램
· 과학자와 함께 하는 모험: 기후변화, 음식 안전성, 에너지 재생, 생물 다양성의 상실 등을 주제로 일상에 필요한 과학을 배우는 프로그램

이밖에도 재활용을 이용한 건축, 걷기 프로그램,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 등 지역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1년 내내 진행된다. 예컨대 이든 프로젝트 안에서는 거의 매일 지역 대학생들의 졸업 작품전 또는 지역 학생들의 패션쇼, 지역민들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이런 교육 문화 프로그램은 지역민과 방문객들이 이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이든 프로젝트의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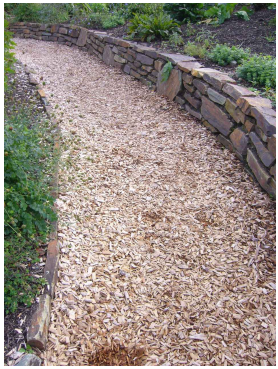
그림 5-13. 이든 프로젝트 안내 지도와 지역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국외 사례의 시사점

브루스 트레일이나 코츠월드 웨이 모두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트레일이다.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자연과 인간 모두를 배려하는 트레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트레일의 목적과 그에 걸맞은 조성 기법 그리고 운영 방식 모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 트레일의 목적
자연과 인간을 함께 배려한 트레일을 걷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 자원 보전에 관심을 갖게 유도한다는 출발 배경과 목적은 제주올레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향후 문화생태형 탐방로는 브루스 트레일이나 코츠월드 웨이처럼 자연과 인간을 함께 배려하는 목표를 두고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편의만을 목적에 둔다면 트레일을 낸다는 목적 아래 무수한 자연 자원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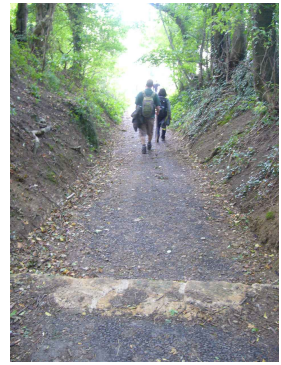


그림 5-14 이든 트레일(왼쪽), 브루스 안내판(가운데), 코츠월드 트레일(오른쪽)

○ 트레일의 조성 기법

자연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트레일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와 안전 설치만을 해야 한다. 아름다운 곳을 찾되 포장된 구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사면 지역 보호를 위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로 최소한의 계단이나 보호 장치를 하는 점은 문화생태형 탐방로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본보기로 보인다.

○ 운영및 관리 방식

코츠월드 웨이나 브루스 트레일, 이든 프로젝트 모두 자원 봉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꾀하고 있다. 이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 트레일들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식으로 보인다. 1,1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곧 68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브루스 트레일처럼, 해당 지역에 사는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끌어들여 이들을 교육하고 실제 운영 및 관리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생태 탐방로 유지 관리의 핵심으로 보인다. 또, 코츠월드 웨이 같은 경우 유모차나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루트를 표기하고, 애완견과 함께 갈 수 있는 루트 정보 리플릿을 만드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내하는 것은 국내 문화생태 탐방로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여긴다.

○ 지역과의 연계성

지역 커뮤니티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지역 사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 가는 이든 프로젝트의 사례는 지역 밀착형 문화생태 탐방로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지역 학교와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든 프로젝트가 돕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등은 문화생태 탐방로가 배워 실행해야 할 것들이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 관련 법령

현재 국내에서는 트레일 관련 법령이 전무한 상황이다. 영국 내셔널 트레일의 '국립공원 및 전원지역 접근법'(1949년 제정)과 브루스 트레일이 활용하는 사고 상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토지주에게 지울수 없도록 1980년 제정된 '토지소유자 책임법에 의한 보호조항(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휴양을 하는 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위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 등은 트레일 조성이 활성화하고 있는 한국에서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관계 법령 사례일 것이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 6 장 생태문화로 조성 원칙과 수법

1 조성 원칙 ·····
2 조성 기준(가이드라인) ·····
3 조성 수법과 실제 ·····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6장 생태문화로 조성 원칙과 수법

1 조성 원칙

(사)제주올레의 생태문화로 조성 원칙과 수법은 걷기 좋은 길을 열되, 가능하면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배려하는데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위적인 편의시설조차 배제하고 있다.

(사)제주올레가 이런 조성 원칙과 수법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 생태문화로가 단지 인간만을 배려한 길이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제주올레는 제주올레를 열면서 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한 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1 자연과 인간 공존의 교육

인간은 자연의 길을 걸으면서 평화와 행복을 얻고, 자연은 그 속을 내어줌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1.2 생태계 보존

캐나다 브루스 트레일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이아가라 절벽 지구를 걸음으로써 이 지역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게 만들겠다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브루스 트레일처럼 (사)제주올레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올레를 걷게 함으로써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에 나서게 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1.3 수익 창출의 대안 제시

대형 골프장이나 리조트 건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트레일로도 제주도의 관광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자연 환경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개발을 지양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사)제주올레의 이런 철학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제4장 올레꾼 설문조사와 제5장의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지역 주민이나 올레꾼 모두 제주올레 길 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개발보다는 보전 쪽에 무게를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제주올레에서도 제주올레 길을 내면서 기본적인 조성 원칙과 수법을 확립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분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조성 원칙과 수법을 물리적, 경관 생태적, 인문사회적 측면으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조성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2. 조성 기준(가이드라인)

2.1 경관·생태환경적 측면

- 환경의 자연성, 취약성, 복원력 등 입지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야생 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환경 보전에 유의해야 한다.
  (예: 철새도래지와 같은 생태환경 민감 지역의 경우 계절별에 따라 우회 탐방길 개설 검토 등)
- 자연환경의 장기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지는 식생복원을 실시한다.
- 환경조건에 알맞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지형 및 식생 등을 배려하여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 사고·재해방지를 바닷가 밀물시 안전대책 방안 및 육로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연경관의 조화에 유의하고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주변 자연과의 연속성.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 부대시설의 형태적 통일성을 지향해야 한다.
- 자연스러운 굴곡으로 노선을 잡아야 한다.
- 정비한 시설물이 주변 자연 경관보다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고 색상은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 선택해야 한다.
-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을 배치해야 한다.

2.2 인문사회적 측면

- 인간의 우월적 입장을 배제하고 자연 속의 생명을 배려한다.
- 길 주변의 주민과 방문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조건을 성숙시킨다.
- 역사·문화적 유적과 유물의 훼손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길 주변의 일상생활을 존중하고, 의례·풍속을 방해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 느림의 미학을 존중하여 여유를 느끼며 사색할 수 있는 길, 자연 치유의 길을 계획한다.
- 공정여행의 원칙을 포함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2.3 물리적 측면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의 조성원칙으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코스의 현장답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사)제주올레의 내부 자료도 참고하여 5개 항목 즉 크게 코스 조성 및 관리, 이동 통로, 탐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편의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인물로 구분하여 조성수법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1과 같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표 6-1. 물리적 측면에서의 조성기준(가이드라인)의 항목과 세부 내용

항목	내용
코스조성및관리	조성된 코스는 연속적이어야 하며, 끊기지 않아야 한다.
	코스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의 길이거나, 사유지일 경우 주인의 허락을 득한 길이어야 한다.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 구간은 가능한 피한다.
	분주하고 위험한 구간은 피한다.
	도로를 가로지를 때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표시한다.
	자동차와 함께 가는 구간은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해 안전을 확보한다.
	야생 지역이나 길을 새로 개척할 때는 인공적인 길은 최소화하고, 폭은 1m 이내로 한다.
	안전을 위해 길을 다듬어야 할 경우에는 자연적인 소재와 컬러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초지대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한다.
	깊이 패일 수 있는 부드러운 흙길은 자전거를 비롯한 탈 것이 지나가지 못하게 관리하고, 답압으로 인한 훼손이 심한 지역에는 답압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부적절한 개발이나 흉물에 의해 경관이 방해받지 않는 루트를 찾는다.
	자전거를 비롯한 탈 것은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동통로	노면은 입지 환경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목장 문 및 울타리는 농작물이나 가축 보호 또는 안전을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계단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나무를 이용한다.
	목재 데크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으며, 습지 지역에는 징검다리나 우드칩스, 통나무길 등을 환경에 맞게 설치한다.
	다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안전하게 만든다.
안전시설	바닷가 절벽처럼 위험할 수 있는 구간에는 반드시 안전 시설을 설치한다.
	설치물은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재료와 디자인으로 안전하게 설치한다.
	설치물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쉽고 사용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휠체어 등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최소한으로 한다.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재료와 시설로 설치한다.
편의시설	시종점은 대중 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종점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사인물을 설치한다.
	코스 구간 3~4km 이내에는 화장실(열린 화장실 포함)을 배치한다.
	시, 종점 1~3km 이내에는 숙식 시설이 배치되도록 코스를 조성한다.
	코스 중간에는 식사와 물을 해결할 장소가 있도록 코스를 조성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준다.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환경 정비를 한다.
	전망대, 휴게 시설, 의자 등은 가능한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돌, 나무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해 인공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설계해 배치한다.
사인물	모든 사인물에는 로고를 넣는다.
	출발 지점에 설치하는 사인물에는 코스 경로, 구간별 거리, 화장실 위치, 코스 난이도, 코스 총 거리 등을 반드시 넣는다. 출발 지점에 설치하는 사인물은 제주의 현무암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햇빛과 바람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서 내용을 표기한다.
	코스 안내 및 경로 표시는 화살표, 리본, 간세 사인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데, 간세 사인에는 남은 거리 표시 및 위치 확인 번호를 넣는다.
	코스 안내 표식은 수시로 관리해서 여행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 조성 수법과 실제

3.1 경관·생태환경 측면에서의 조성 수법

- 길을 낼 때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에 유의하고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되 주변 자연경관과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야생 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환경 보전에 유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동·식물이 있는 숲지대는 최대한 우회한다.
- 지형 및 생태적요소를 고려하되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최소한의 탐방로를 개설하도록 한다.
- 초지대 및 활엽수림대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한다.
- 생태통로를 감안하여 탐방로를 조성하되 원지형 및 식생은 최대한 보전한다.

3.2 인문 사회 측면에서의 조성 수법

- 최대한 있던 길을 활용하고 인공적으로 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점에서는 코스에 집착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자유 산책로를 안내하여 역사·문화의 향기를 느끼도록 배려한다.
- 산책로 주변의 생업 혹은 특산물 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객 체험학습장을 곳곳에 둔다.
- 토착주민의 상점을 이용하도록 하여 코스 주변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설계한다.
- 지역 축제와 이벤트와 연계하여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지역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 지역의 이야기와 민요를 들을 수 있는 공간(예를 들어 마을의 노인정)을 개방하고, 각 마을의 설화와 민요를 소개하는 책자를 보급하거나 판매한다.
- 마을 별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발굴·조사 정리하여 방문객들이 쉽게 찾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3.3 물리적 측면에서의 조성 수법

3.3.1 탐방로

(1) 탐방로 넓이

- 한 줄로 된 탐방로를 조성하되 탐방로의 조성 폭은 최대 0.6m를 기본으로 하되 발목 높이 이상의 초목으로 된 길의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변식생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1.5m 정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탐방로의 폭은 안정적이며 장애물이 제거된 형태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하며 보행공간구역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탐방로 옆으로 확장되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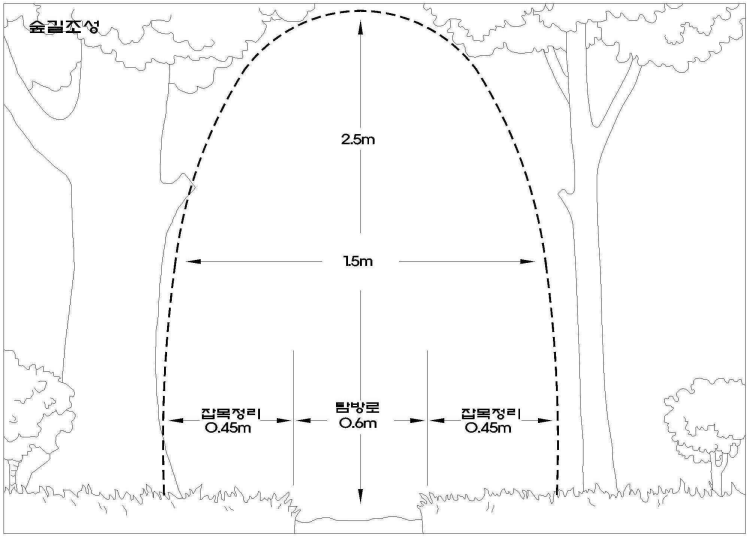


그림 6-1. 탐방로 개설 기준

(2) 탐방로의 높이

- 가지가 자라거나 비나 눈에 의해 쳐지면서 발생하는 공간의 변화를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2.5m높이까지 가지들을 제거하되 새순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곁가지라도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지 끝이나 잎을 제거한 관목이나 나무는 내리막길을 걷는 보행자의 시야를 어둡게 하고, 풀숲이 자라면 탐방로 안으로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리한다.

(3) 침수지역

- 우천시 침수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주변의 돌을 이용하여 징검다리를 만들어 건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돌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우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3.2 안내표식

- 좋은 표식은 탐방로에서 이용자가 불편 없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잡이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 너무 많은 표식의 설치보다 주변의 풍광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안내식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1) 화살표

- 길바닥, 돌담, 전신주 등에 탐방로의 주요지점에 화살표를 그려 넣어 진행방향의 정보를 제공하되 최소한의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다. 특별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표시방법이라고 할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페인트 재료를 사용한다. 파란색 화살표는 진행 방향, 주황색은 역방향을 의미한다.



그림 6-2.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파란색: 진행 방향, 주황색 역방향)

(2) 리본

-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두 가닥의 리본은 주로 나뭇가지에 매달고 화살표 표시가 어려운 산길에 주로 설치 되어있으며, 사람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한다.



그림 6-3.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리본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간세

- 옥수수 원료로 제작된 친환경 특수 소재로 제작, 제주의 비바람을 견딜만큼 내구성이 있으며, 폐기 처분 후 생화학 분해가 발생하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
- 간세는 길안내 용도로 사용 간세의 머리 방향이 길의 진행 방향이며 간세의 몸통에는 현재 진행코스, 위치번호, 남은거리를 표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간세의 등판에 표시된 위치번호는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때 유용하여 비상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분기되는 지점에서 목표 지점의 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이용자의 탐방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는 시설물이다.
- 체계적이고 보다 학습적인 활동과 안전한 탐방을 돕기 위한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되 도로의 분기, 결절점 및 주요시설 입구에 설치하되 이용객들의 탐방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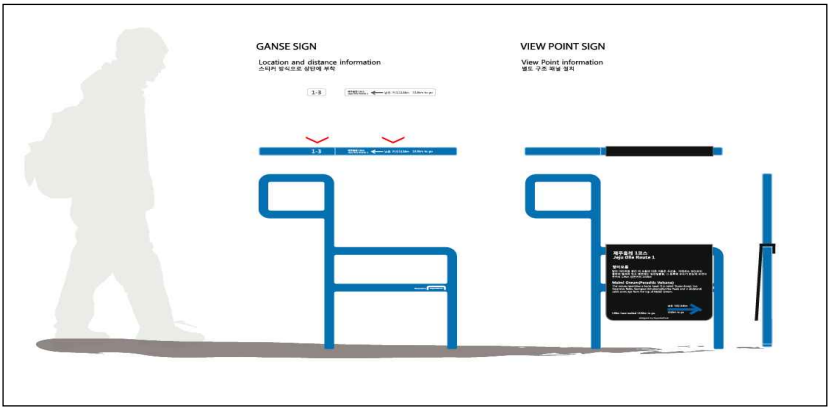


그림 6-4. 간세 설치 기준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4) 코스 시작점 표지석

- 코스의 약도와 경로가 그려져 있고 주요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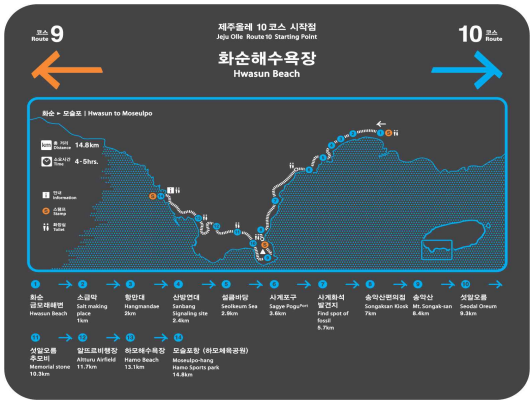


그림 6-5. 코스 시작점 표지석 설치 기준

수량: 각 코스의 시작점에 1개
언어: 한글,영문

표시 내용

순방향 및 역방향 진행 표시 지도
시작점과 종점지명, 총거리와 소요 시간, 포인트번호 및 안내소, 화장실, 스탬프 찍는 위치 표시,
포인트 지명 및 종점까지의 남은 거리 표시

3.3.3 사면(斜面) 제어

사면제어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들이다. 사면을 제어하는 방식에는 탐방로 측면을 통나무(Side-logging)로 제어하는 방식, 워터바 방식, 계단방식 등이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1) 탐방로 측사면(側斜面) 통나무(Side-logging)

- 사면이 꺾이면서 교차되는 지점에 낮은 사면의 침식을 방지키 위해 측면 통나무 세트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 탐방로의 노면을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둔덕 부분이 붕괴되거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나무와 바위, 말뚝 등으로 구성되어 노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지그 재그형 산악 도로(Switchbacks), 사면이 연속적으로 교차되는 곳에는 스위치백 형태의 지그 재그형 방식을 구성할 수 있다. 탐방로 측면 통나무 방식은 지그 재그형 도로에 적용하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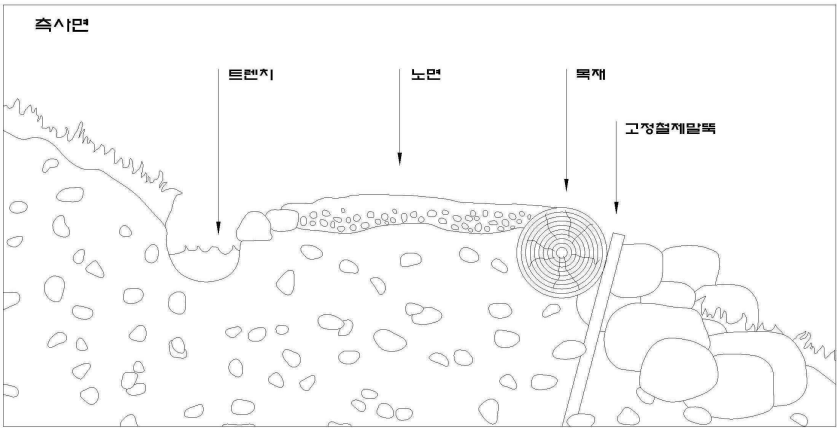


그림 6-6. 탐방로 측사면(側斜面) 통나무(Side-logging)의 설치 기준

(2) 워터바

- 물이 길을 따라 모아져 흐르면, 내려갈수록 그 양과 속도에 의해 하부의 노면은 침식된다. 이러한 침식을 방지하기 물을 제어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워터바이다. 워터바는 보통 삼나무를 탐방로 방향에 약 45도 틀어서 가로질러 놓는다.
- 삼나무의 직경 (수피를 제거하고)약 15cm 정도, 길을 따라 흐르는 물을 완전히 제어,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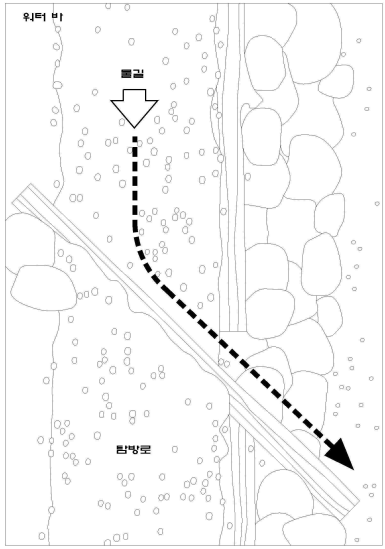


그림 6-7. 워터바의 설치기준

(3)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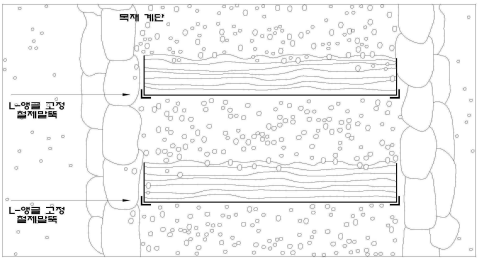
-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면 제어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 조성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계단의 종류에는 사용재료에 따라 목재계단, 돌계단, 통나무계단 등으로 구분하여 사면형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목재 계단

주재료를 목재로 하여 경사 지역, 토양 유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

지형 복원이 어렵고, 보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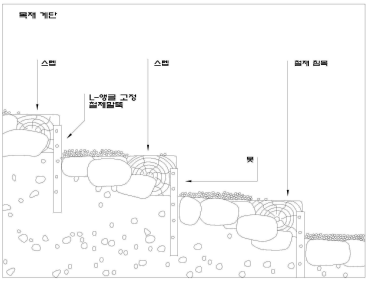


그림 6-8. 목재 계단 설치 기준

2) 돌계단

주변에서 흔히 구하기 쉬운 돌을 구해 자연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며 사면(斜面) 고르기를 시행하고 계단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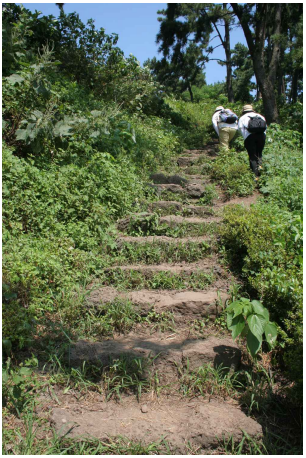


그림 6-9. 지형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치된 돌계단

3) 통나무 계단

주변 경관과 조화가 잘되는 통나무를 사용하며, 나무 말뚝을 충분히 고정시킬 수 있는 깊이의 지반에 설치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림 6-10. 통나무를 수직면으로 세워 말뚝형식조성하여 토사유출방지와 견고한 계단디딤판을 조성

3.3.4 휴게시설

이용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을 의미하며 설치 장소는 이용자의 움직임으로부터 독립된 곳에 설치하며, 가능한 한 휴게 공간 설치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그림 6-11. 휴게시설의 바닥은 나무껍질을 깔고 굵은 통나무를 휴식 의자용으로 활용하여 조성(영국 이든 프로젝트 사례)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3.5 안전시설

- 탐방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로서 탐방객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 안전시설에는 위험표지판, 차단울타리, 경계시설 등이 있으며 설치 지역은 미끄럽거나 경사가 심한지역 등 주의를 요하는 지점이나 높이가 높아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 등에 설치한다.
- 안전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적거나 완만한 곳은 안전 밧줄을 설치한다.



그림 6-12. 급한 경사를 가진 측면에는 안전사고 예방용 난간설치

3.3.6 미로형 문

사유 목장은 특히 가축이 출입문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구성이 있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재료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6-13. 목장 출입구에 설치된 미로형 문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3.7 교량

- 시냇물이나 개울이 있는 곳에 수생 환경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디딤돌만으로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 최적의 장소는 개울이 협소하고 기슭이 높은 부분이며, 그렇지 않다면 기초를 설치하고 그 위에 교량의 단부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가 빠른 물살에 의해 침식되는 곳은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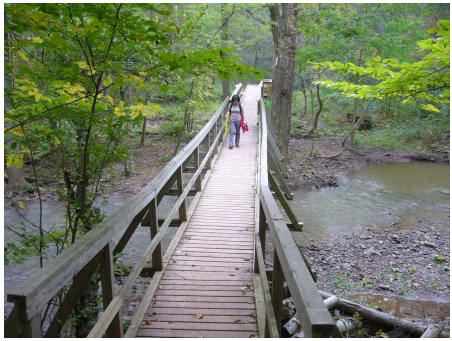


그림 6-14 자원보호와 보행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량(캐나다 브루스 트레일의 사례)

3.3.9 화장실

화장실 신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 유도하며, 상하수도 연결이 되지 않고, 인가가 드문 곳에는 친환경적인 화장실(자연발효 화장실)을 설치하며, 외부 마감재료 역시 가능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그림 6-15. 주변 환경에 시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사용과 단순한 디자인의 화장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3.4 조성의 실제

3.4.1. 이동 통로

이용객의 증가로 훼손되어지는 탐방로를 폐타이어 벨트, 마닐라 삼 벨트 등으로 탐방로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마닐라 삼 벨트가 미관이 수려하지만 고가에 물 흡수성이 좋아 배수시설이 잘되지 않으면 쉽게 파손되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폐타이어 벨트 사용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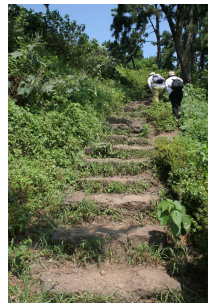
훼손된 탐방로	개선된 탐방로
	

3.4.2. 경사지

흙길의 경사로는 토사의 붕괴 및 미끄러져 안전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사지 폐타이어의 밸트, 목재계단, 돌계단, 통나무계단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경사 탐방로	폐타이어 밸트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목재 계단	돌 계단	통나무 계단
		

3.4.3 편의시설

기존 화장실의 악취와 불결한 이미지를 대신한 자연 발효식 친환경 화장실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화장실	개선된 친환경 화장실
	

3.4.4 안전시설

경사면이 급한 탐방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안전 난간이 없는 경우	안전 난간이 설치된 경우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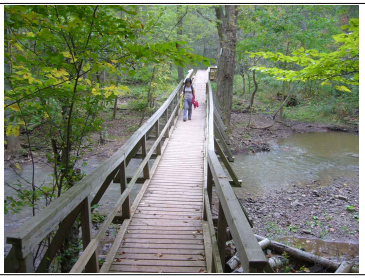
3.4.5 배수가 되지 않는 길

장마철에 배수가 되지 않아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탐방로에는 디딤돌을 놓거나 자갈을 도포하여 배수 및 노면을 정리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빗물에 젖어 있는 길	자갈 깔기로 개선된 길
	

3.4.6 교량

교량은 이용객이 안전하게 하천을 지날 수 있도록 난간 높이 및 바닥이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존 교량	개선된 교량(브루스 트레일 사례)
	

3.4.7 목장문

이용객이 사유 목장 출입 시 기존의 여닫이문은 가축 탈출이 용이하여 미로형 문으로 교체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축의 탈출을 막아 목장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기존 여닫이 목장 문	개선된 미로형 문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 7 장 생태문화로 활성화 방안

1 자원정보제공 방안 ·····
2 생태문화로 활성화 방안 ·····
3 지역 활성화 방안 ·····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7장 생태문화로 활성화 방안

1 자원정보 제공 방안

- 생태문화로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은 생태문화로를 방문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해당 생태문화로가 갖는 의미와 탐방 수칙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하고 적정한 탐방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 또한 생태문화로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은 방문객들의 방문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 분산효과 등과 지역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게 한다.
- 생태문화로에 대한 자원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생태문화로의 역사문화, 생태,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코스별 특징과 차이에 대한 기본적이고 다양한 정보의 지속적인 발굴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소, 박물관 등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발굴 조사된 생태문화로의 코스별 역사문화, 생태, 물리적 환경 등의 대한 자원정보는 생태문화로 가이드북, 지도 등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여행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 정보전달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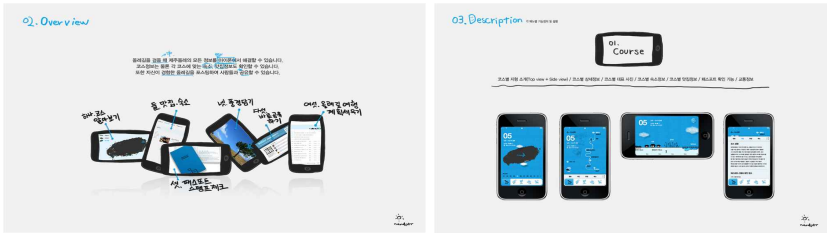


그림 7-1. 스마트 폰을 활용한 제주올레 정보 제공 사례

2 생태문화로 활성화 방안

- 코스 별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의 우수성, 탐방기 등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 해안코스에서 인도로 걸어 다니게 되어 있는 구간의 경우 해안식물대를 관찰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안선 부근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태요소 통과율이 낮은 코스의 경우 도보 여행자가 생태요소를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하여 옛날 숲길 복원 등이 더욱 필요하다.
- 곶자왈처럼 코스가 너무 길뿐만 아니라 도보 여행자의 안전상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곶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자왈을 통과하는 거리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주올레 추자도 코스의 경우 섬 중의 섬이라는 특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추자와 하추자를 분리하고 코스의 구간을 다양화한 후 2개의 코스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각각의 코스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일정구간은 우회하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휴식년제를 실시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태적으로 우수한 숲길, 문화유적이 산재한 구간의 경우 안내자가 있는 탐방예약제 운영을 검토한다.
- 무분별하고 지나친 탐방으로 인해 훼손 우려가 높은 구간에 대하여 정기적인 탐방실태 및 코스 훼손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휴식년제, 사전예약 탐방제 등의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3 지역 활성화 방안

- 제주의 색과 빛깔을 보고, 제주의 맛과 멋, 소리와 냄새를 맡으며 걷는 제주올레는 이미 그 자체가 제주의 역사·문화적 감동을 체험하는 탐방문화이다. 그러나 제주올레는 다양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들을 길이라는 매개체로 이어나가고 있지만 올레 코스 외곽의 주변 자원과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제주올레 코스를 따라 이들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여 스토리화하고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는 전달함으로서 새로운 감동과 만족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7-2 . 제주올레 공항 안내소와 루트 및 주요 지점을 설명한 안내판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유인 요소를 발굴하고 이것이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코스 개발 시 주민과 함께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코스 조성 이후 주민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생태문화로를 알리는 안내자, 생태문화로 지킴이, 이야기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7-3. 제주올레 길동무: 제주올레 아카데미를 이수한 지역민들은 제주올레 길동무로 활동할 수 있다. 길동무를 나가 제주올레와 제주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일정한 가이드 비용도 받는다.

- 생태문화로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마을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체류형 공간인 숙박시설과 음식점, 휴게 공간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7-4.(왼쪽) 할망 숙소: 혼자 사는 할머니가 남는 방을 이용해 올레꾼 대상 민박을 운영하는 숙소. 할머니 입장에서는 용돈벌이가 되고, 올레꾼 입장에서는 제주의 속살을 체험할 수 있는 체계다.
그림 7-5.(오른쪽) 마을내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체류형 시설: 제주올레 5코스에 있는 신례2리는 마을회관의 남는 공간을 이용해 올레꾼 쉼터를 조성해 놓았다.

- 특히 생태문화로를 탐방하면서 제주의 농산어촌의 독특한 풍경과 문화, 생업체험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지역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생태문화로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어 간접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림7-6. 지역특산물(갈치, 귤, 옥돔, 자리젓 등): 제주올레 행사 때나 제주올레길 주변에는 지역민들이 귤이나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특산물 코너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



그림 7-7. 서귀포 매일시장: 제주올레 6코스가 재래시장인 서귀포 시장을 통과하면서 올레꾼의 시장 이용이 커지고 매출이 증진되어, 올레시장으로 이름까지 바꾸게 되었다.

- 농어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7-8. 1사 1올레 도농교류/자매결연: 무릉리 외갓집과 자매결연을 맺음, 도농교류의 첫 결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도보여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부합하는 좀 더 다양한 테마와 이벤트들이 개발되어 이용자들의 복합화 되는 욕구들을 충족시켜 올레꾼과 올레길을 찾는 방문객들의 참여와 만족도, 흥미요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마을 단위의 농촌축제, 어촌축제들이 활성화되면서 축제와 이벤트 등의 문화행사가 풍성함. 다만 이들 행사들이 축제를 위한 축제라는 평가 속에 지역의 독특한 문화향기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축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한 면도 없지 않지만 이 또한 제주의 문화향기를 경험하고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지역단위 마을단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림 7-9.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 빙떡 만들기 및 먹어 보기 체험

- 생물자원의 유지, 자원 이용에 따른 혜택의 확대, 지역주민의 참여가 전제되는 관광형태인 생태관광으로의 자원화가 필요하다.



그림 7-10. 제주 전통 뗏목 테우 체험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그림 7-11. 제주올레와 만나는 문화이벤트: 제주올레 길에서 펼쳐지는 제주 전통 춤 공연

- 제주올레의 질 높은 탐방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인증은 올레길을 찾는 방문객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올레길 조성 시 길을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증운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되 인증 심사는 (사)제주올레가 주관한다.

-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증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기준과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고 제주올레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7-12. 올레꾼들이 주로 찾는 게스트하우스형 숙박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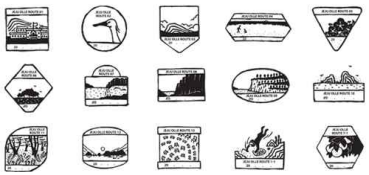


그림 7-13 제주올레 스템프 제도 및 할인권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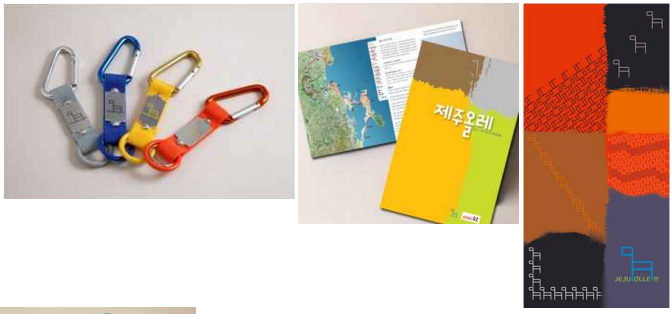


그림 7-14. 제주올레의 여러 가지 기념품 및 가이드 북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 8 장 결론

1 분석 결과 종합 ·····
2 생태문화로 조성을 위한 제언 ·····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제8장 결론

1 분석 결과 종합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이나 제주다움, 혹은 제주답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답다」 혹은 「~다움」의 의미는 「남자답다」「대장부답다」라고 표현하듯 사물이나 대상물이 가진 어떠한 성격 혹은 특성을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각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답다」 혹은 「제주다움」의 의미는 제주라는 지역이 지닌 성격이나 특성(문화, 역사, 삶 등)이 반영되는 일종의 종합적인 이미지, 종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다움의 실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해법은 지극히 근본적인 것에서 찾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땅」「공간」「스케일」이다.

제주도의 「땅」은 특이하다. 화산섬이라는 제주 특유의 지질학적 특성과 제주의 땅이 가진 지형과 지세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은 것이 제주스러운 멋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은 제주 사람들이 오랜 경험과 철학적 사상이 녹아 스며들어 형성된 제주전통초가에 대한 이해이다. 즉 형태적 미학뿐만 아니라 공간적 미학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케일」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주의 건축물은 육지의 그것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람과의 대응에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원풍경(原風景)이 되는 한라산과 오름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경관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함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땅, 공간, 그리고 스케일에 의한 지역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색깔을 보여주었던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뮌헨>,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소리를 소재로 한 <Lisbon Story>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의 색깔과 소리도 존재한다.

제주도의 색깔과 소리는 무엇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유채꽃과 눈 덮인 한라산의 이미지가 강력한 만큼 노란색과 흰색이 제주의 특징적인 색깔이라고 생각한다. 따스하고 인정미 넘치는 제주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색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의 소리는 역시 바람일 것이다.

작은 것은 아름답다. 여기에는 개성과 독특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고,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한 것이다. 제주의 돌담은 작은 돌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거칠지만 따스함을 간직한 돌담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바람의 구성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이다. 돌담 밑에 피어난 꽃들도 수줍음을 타듯이 작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제주전통마을의 풍경 역시 작은 초가집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기 때문에 정감이 가는 것이다. 바람과 기후적인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조건 때문에 더욱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제주의 원풍경(原風景)인 것이다. 큰 것을 만들고 인위적인 것을 세우기보다는 작은 것에 의한 지역의 정체성과 제주스러움의 미학을 찾으려는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기존 문헌 자료의 정리를 통한 현황 분석,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생태문화로 조성을 위한 원칙과 기준(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각 장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의 제주올레 코스 현황분석에서는 총 21개 제주올레 코스에 대한 개별적인 특징과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이들 코스는 통과되는 지역의 물리적 특징과 아울러 문화자원 등에 있어서 특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총 21개 코스를 장소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였는데 즉 바다코스: 7코스, 해안+오름 코스: 1코스, 중산간 코스: 13코스, 내륙코스: 14-1코스, 섬코스: 18-1(추자도 코스)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21코스에 대하여 생태환경적 요소, 인문사회적 환경요소, 물리적 환경요소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였고 이들 선정항목에 이용하여 통계적 수법으로 코스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의 올레꾼의 의식조사에서는 총 1,500명의 올레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기 개설된 올레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분석하였다. 개설된 올레에 대한 만족 정도에 있어서는 80% 이상이 올레길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자연적인 환경의 만족도는 높게 형성 되어있고, 많은 여행자들이 재방문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적 환경 측면의 마을 및 농작지 풍경과 제주 올레 길에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 되어진 건축물 혹은 인공 시설물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특히 한편에서는 환경훼손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등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태문화로 조성을 위한 제언

(사)제주올레가 조성해온 올레길은 이제 일반시민의 건강증진 수단으로, 또한 관광객들이 주요 목적으로 찾는 수단으로, 그리고 지역의 환경과 문화,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새로운 개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정한 구간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방문객이 탐방함으로써 크고 작은 문제가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탐방객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행정기관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환경훼손의 시비까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올레길 조성에 따른 철학적 이념을 모두가 공유하고 올레길을 걸으며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족하였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제주올레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홍보와 교육의 부족, 탐방객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인식의 문제, 그리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사업추진 등 각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올레와 같은 생태 문화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원칙과 기준이 어떠한 사람과 조직, 제도의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원칙과 기준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제시된 조성 원칙과 기준(가이드라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조직이다.

조성 원칙과 기준의 적용은 해당사업이 추진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사)제주올레와 같은 민간 기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사업예산을 고려한다면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행정 조직의 전문성 부존과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부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생태문화로 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들 조직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관계 법령의 정비이다.

행정조직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직과 예산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마을내 자원인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기존 건축물을 홍보관, 판매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조직의 주관부서와 지원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기관의 사업을 일정 부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탐방하는 과정 속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상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역시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고 상해 소송은 토지 소유주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생태문화로 개설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제5장 국외 선진 사례로 검토되었던 브루스 트레일의 경우 사고 상해에 대한 어떠한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책임도 토지주에게 물을 수 없도록 제정된 '토지소유자 책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듯이, 국내도 관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효율적이고 건전한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는 사유지 및 공유지를 경유하는 탐방로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토지 소유주 및 탐방로 운영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 강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원 봉사자 조직의 활성화이다.

조성된 탐방로는 방대한 지역에 걸쳐 개설되어 있어서 교육과 홍보,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이 수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탐방로 주변에 사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과 협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탐방로를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화, 네트워크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며 또한 공유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토지 매입을 통한 난개발의 저지이다.

사유지 소유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탐방로 주변의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할 부지의 경우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장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여섯째, 공유 수면을 되찾아야 한다.

바닷가 주변의 사유지인 경우, 공유 수면까지 침범해서 사유지화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주해안을 따라 도는 생태문화로의 경우, 공유 수면만 잘 활용해도 포장도로를 피해 낼 수 있는데, 공유 수면까지 사유화한 토지주들에 의해 막히는 경우가 있다. 행정 기관은 정확한 측량을 통해 공유수면을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 생태문화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곱째,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인증제의 도입이다.

최근 제주올레가 관심을 끌면서 제주올레 일부 코스에서는 주변에 음식점 및 숙박 시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새로 생긴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의 경우 제주올레의 특징이나 철학을 공유하지 못해 서비스나 가격에 있어 탐방객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탐방로 개설의 취지를 살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탐방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제주관광의 이미지 구축이라는 점에서 생태문화로 근처 음식점에 대하여 협약을 맺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부록 :: 제주올레 길 지역 주민 설문

(코스- 설문지 번호 : □□-□□)

제주올레 길 지역 주민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시간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제주올레'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향후 '제주올레'의 환경보호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리며, 작성하여 주신 자료는 매우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시행 : (사)제주올레(☎ 064-762-2170)

1. "제주올레" 길이 생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③ 대체로 불만이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불만이 많다.

1-1. "제주올레" 길에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②번에 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침체되어 있던 마을이 올레꾼 방문으로 활동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② 마을이 홍보되는 효과를 얻어 농수산물 판매 및 지역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③ 마을을 올레꾼들이 통과하면서 음식점 혹은 판매점 등 마을 내 시설 이용이 많아졌다.
④ "제주올레" 길과 연계하여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⑤ "제주올레" 길이 만들어 지면서 교통편 혹은 기타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있다.

1-2. "제주올레" 길에 대하여 불만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④번에 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안내 표식의 부족으로 인해 가끔 "제주올레" 길이 아닌 마을 길을 통과하여 불편을 주고 있다.
②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마을 내 시설을 무단사용 등 피해를 주고 있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③ 올레꾼이 지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마을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안된다.
④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

2. "제주올레" 길이 마을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 1개를 골라 ○표 해 주십시오.
① 국민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③ 소외 지역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④ 우리 마을의 가치를 새롭게 널리 알리고 있다.
⑤ 올레꾼과 지역민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는 등 제주도 여행 문화를 바꾸고 있다.

3. "제주올레" 길이 마을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 1개를 골라 ○표 해 주십시오.
① 올레꾼 통행으로 인해 농수산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② "제주올레" 길 주변에 쓰레기가 증가해 처리가 문제다.
③ "제주올레" 길이 마을 내를 직접적으로 지나게 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고 있다.
④ 제주올레 길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문제다.
⑤ "제주올레" 길로 인해 차량 통행이 많아져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4. 올레 길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새로운 개발과 시설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②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4-1 새로운 개발과 시설투자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번에 답한 분만 응답 하세요 / 여러 선택 가능)
① 마을과 주변 길의 확포장.
② 특산물 판매장이나 올레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건축.
③ 벤치 정자 등을 새로 시설해야 한다.
④ 주차공간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⑤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한다.
⑥ 안내 표지판을 더 늘려야 한다.

4-2 자연환경 보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②번에 답한 분만 응답하세요 / 여러 선택 가능)
① 녹지공간을 그대로 보존한다.
② 빈집이나 공터 등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판매장이나 휴게 시설을 만든다.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③ 새로운 시설 없이 자연지물을 이용해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④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대중교통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하게 한다.
⑤ 화장실을 새로 짓기보다는 열린화장실을 늘린다.
⑥ 현재 안내 표지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공 설치물은 필요하지 않다.

5. 전반적으로 볼 때 향후 "제주올레" 길을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마을 밖으로 지나는 "제주올레"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② 마을 내를 통과하는 "제주올레" 길을 만들되 주민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③ 오직 자연환경만을 즐길 수 있는 독립된 "제주올레" 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④ 풍광뿐만 아니라 제주사람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마을 주변의 유적지나 문화시설을 지나도록 해야 한다.
⑤ "제주올레" 길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도로를 개선하여 "제주올레" 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⑥ "제주올레" 길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6. "제주올레" 길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올레꾼들이 개선하여야 할 부분을 아래 항목에서 골라 우선 순위별로 3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① 마을 통과 시 가능한 마을 내 편의시설 이용하기.
② 마을 통과 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예의 지키기.
③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사용 후 쓰레기 처리를 잘 해주기.
④ 통과 시 농수산물 채취 금지.
⑤ 지정된 화장실 이용하기.
⑥ 보행 질서 지키기.
⑦ 대중교통 이용 및 주차 질서 지키기.

7. (사)제주올레 사무국에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을 아래의 항목에서 골라 우선순위별로 3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① 올레꾼에 대한 건전한 올레 길 이용 방법 교육.
② 화장실 설치 및 관리.
③ 자세한 안내판 설치.
④ 쓰레기 처리.
⑤ "제주올레" 길을 만든 후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
⑥ 마을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안내.
⑦ 대중교통 혹은 자전거 도로 등의 이동수단과의 연계.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⑧ 환경훼손이 되지 않는 "제주올레" 길의 개설.

8.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장 먼저 자연환경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의 훼손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
③ 개발보다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시키는 개발로 가야한다.

9.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 )
② 남자 ( )

10.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이하 ( )
② 21세~30세 ( )
③ 31세~40세 ( )
④ 41세~50세 ( )
⑤ 51세~60세 ( )
⑥ 60세 이상 ( )

11. 귀하의 직업은?
① 농업·어업 ( )
② 서비스업(숙박, 음식, 상점) ( )
③ 공무원 (마을 지도자 포함) ( )
④ 전업주부 ( )
⑤ 회사원 ( )
⑥ 무직 ( )

이상으로 본 설문조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사에 협력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1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

참고 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제이플러스 애드, 2006
온영태, 염철호 역, *지역 만들기의 신조류*, 기문당, 2008
진영환, 임정민, 정윤희 옮김,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전략편)*, 한울아카데미, 2006
진영환, 임정민, 정윤희 옮김,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사례편)*, 한울아카데미, 2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2009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 제주시*, 2008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 서귀포시권*, 2009
국토연구원, *건강 문화 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 2008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일본 지역 만들기 부화장을 가다*, 2006
한국생태학회,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길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탐방로 조성방안 연구*, 2009
장태산, 한국생태학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로 노선 계획에 관한 연구*, 2009
송인주, *서울시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김기호, 문국현,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중앙, 2006
서명숙, *제주 걷기 여행*, 북하우스, 2008
서명숙, *꼬닥꼬닥 걷는 이 길처럼*, 북하우스, 2010
신영철, *걷는 자의 꿈 존 뮤어 트레일*, 은행나무, 2009
노형철, 희망제작소, *작은 기업이 세상을 바꾼다*, 시대의 창, 2010
박원순,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검둥소, 20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올레 길 마을 스토리텔링 자료조사 보고서*, 2009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올레 가이드북*, 2010
The Bruce Trail Association, Guide for Trail Workers Third edition
Cotswold Way National Trail Office, *The Cotswold way*, 2009
Eden Project: *The Guide*, 2008

IP : 14.49.138.138, 2017-11-02 16:45:13